

국립국어원 2019-01-3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88-01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연구 책임자
신중진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연구 책임자: 신중진(한양대학교)

연구 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신중진

공동 연구원: 김선아, 김유진, 전은진, 엄태경, 이성우, 이종기

연구 보조원: 김령령

보조원: 김순옥

<주관 연구 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책>	<연구진>
연구 책임자	신중진(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전은진(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김유진(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엄태경(한양대학교 미래인문학융합학부)
	이성우(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음악 담당 공동연구원	이종기(예원학교)
미술 담당 공동연구원	김선아(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연구 보조원	김령령(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보조원	김순옥(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국문 초록>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본 연구는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를 구축하고 그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통일 시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여 용어를 표준화하고 남북 통합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부터 수행해 온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연속선에 있다. 이번 연구는 특히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남북 전문용어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도 초점이 놓인다.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남북 교류 과정에서 용어 차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함으로써 통일 준비기 및 전환기의 남북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나. 남북의 중·고등 교육에 필수적인 음악, 미술 교과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일관된 교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다. 이전 연구에서 마련한 절차와 방법론을 음악, 미술 교과에 적용하여 음악, 미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을 제시한다.
 - 라. 2015년부터 이어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의 한계를 살피고 앞으로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방향을 전망한다.
 - 마.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의 현황을 살피고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연구는 음악, 미술 분야와 지금까지의 남북한 연구 현황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먼저 남측의 해당 교과의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용어를 북측의 음악, 미술 교과서 및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음악 분야 전문용어는 1,124개, 미술 분야 전문용어는 476개로 모두 1,600개의 전문용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음악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AA형이 802개, Aa형이 122개, AB형이 200개로 나타났고,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AA형이 312개, Aa형이 33개, AB형이 131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음악과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남북이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과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

다. 선행 연구인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2018년의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의 기준을 바탕으로 통합 기준을 선정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위계를 세웠다.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세부 지침은 필터 기준인 ‘문법성, 윤리·미학적성’과 위계 기준인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과 조정 기준인 ‘체계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를 어종, 조어, 규범 등을 중심으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어종 분석 결과 음악과 미술 분야 모두에서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어 분석 결과 음악 분야 전문용어는 1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미술 분야 전문용어는 2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규범 분석 결과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모두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끝으로 2015년부터 이어진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에서 제시하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2) 가. 《우리말샘》 사전에 남북 전문용어 목록 활용

나. 남북 전문용어 어휘집 및 어휘사전 편찬

다. 남북 기술·가정, 지리 분야 전문용어 구축

라. 남북 전문용어 조화 및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핵심어: 음악 분야, 미술 분야, 전문용어, 용어 통합, 필터 기준, 위계 기준, 조정 기준, 언어학적 분석, 어종, 조어, 규범, 연구 성과, 향후 과제

차 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표	1
2. 연구의 내용	2
3. 선행 용역과의 연계성	3
4. 추진 일정	4

II.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

1. 남북의 음악 분야 교육과정 비교	7
2. 남북의 미술 분야 교육과정 비교	10
3. 남북 전문용어 추출 과정	12
3.1. 자료 수집	13
3.2. 남측 전문용어 추출	16
3.3. 북측 대응용어 확인	18

III.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1.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위계 기준 설정	20
2.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세부 지침	25
2.1.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판정의 적용과 실제	25
2.1.1. 문법성의 적용	25
2.1.2. 윤리·미학성의 적용	26
2.1.3. 투명성의 적용	26
2.1.4. 친숙성의 적용	28
2.1.5. 일의성의 적용	29
2.1.6. 경제성의 적용	31
2.1.7. 고유성의 적용	32
2.1.8. 일관성의 적용	33
2.1.9. 체계성의 적용	34

2.2. 통합 기준의 계량적 특징	38
2.3.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	41
2.3.1.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	42
2.3.2.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	46

IV.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1.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51
1.1. 어종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51
1.2. 남북 음악, 미술 전문용어 유형	52
1.3. 어종 분석의 실제	54
1.3.1. AA(Aa)형	54
1.3.2. AB형	65
1.4. 종합적 어종 분석	79
1.4.1.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 유형 특징	79
1.4.2.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 어종 특징	80
2.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82
2.1.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83
2.2. 조어 분석의 실제	84
2.2.1. 조어 분석의 단위	84
2.2.2. 조어 분석의 결과	88
2.2.3. 핵심 조어 단위	103
2.3. 종합적 조어 분석	106
2.3.1. 조어 길이의 비교	107
2.3.2. 형태 및 원어 정보의 비교	108
2.3.3. 결합 양상의 비교	113
3.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규범 분석	116
3.1. 어문 규범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116
3.2. 어문 규범 분석의 실제	117
3.2.1. 두음법칙	118

3.2.2. 사이시옷	121
3.2.3. 외래어 표기	123
3.3. 종합적 어문 규범 분석	127
3.3.1. 규범 유형별 비교	127
3.3.2. 분야별 비교	128
 V. 신중진 외(2015-2019)와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	
1. 신중진 외(2015-2019)의 연구 성과와 한계	138
1.1. 연구 성과	138
1.1.1. 전문용어 통합안 마련	138
1.1.2. 언어학적 분석	140
1.1.3. 통합 기준 구축	142
1.2. 한계 및 전망	143
1.2.1. 통합 기준의 정착과 활용	143
1.2.2. 새터민 참여	144
1.2.3. 다른 중등 교과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안 마련 ...	145
1.2.4. 남북 전문용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편찬	146
2.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 총망라	147
2.1 단행본	147
2.2 학위 논문	153
2.3 향후 연구 방향	156
 VI.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전문용어 연구의 방향	
1. 연구의 성과	158
2.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방향	160
2.1. 기존의 연구 결과 활용	160
2.2. 연구의 방향	162
 * 연구 자료 및 참고 문헌	166

<표 차례>

<표 1> 월별 주요 연구 진행 과정	5
<표 2> 남북 미술 교과서의 표현 영역 비교 1	10
<표 3> 남북 미술 교과서의 표현 영역 비교 2	11
<표 4> 음악, 미술 분야 남측 자료	13
<표 5> 음악, 미술 분야 북측 자료	14
<표 6>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판정의 순서	25
<표 7> ‘전자오르간’과 ‘전기풍금’ 용어 판정표	36
<표 8> ‘포장디자인’과 ‘포장도안미술’ 용어 판정표	37
<표 9> 변형한 기준 순서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판정	40
<표 10> 남북 음악 분야 ‘음(音)’ 관련 용어	42
<표 11> 남북 음악 분야 ‘장르’ 관련 용어	44
<표 12> 남북 음악 분야 ‘음악’ 표현 용어	46
<표 13> 남북 미술 분야 ‘회화’ 관련 용어	47
<표 14> 남북 미술 분야 ‘판화’ 관련 용어	48
<표 15> 남북 미술 분야 ‘예술 양식’ 관련 용어	49
<표 16>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 유형	53
<표 17>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 유형	53
<표 18> 형태가 같은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	55
<표 19> 형태가 같은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	58
<표 20> AB형 남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빈도	65
<표 21> AB형 북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빈도	67
<표 22> AB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유형	69
<표 23> AB형 남측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빈도	71
<표 24> AB형 북측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빈도	72
<표 25> AB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유형	74
<표 26> 조은경(2001: 22-28)에서의 조어 분석 방법	85
<표 27>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품사 표지	87
<표 28> ‘겹^세^도막^형식’의 분석 예시	87
<표 29> 음악 분야 전문용어 유형	88
<표 30> 음악 분야 조어 단위 길이	89
<표 31> 음악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90
<표 32> 음악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91

<표 33> 음악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93
<표 34> 음악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94
<표 35> 음악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95
<표 36> 미술 분야 전문용어 유형	96
<표 37> 미술 분야 조어 단위 길이	97
<표 38> 미술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98
<표 39> 미술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99
<표 40> 미술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100
<표 41> 미술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101
<표 42> 미술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102
<표 43>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고빈도 조어 단위(상위 50위)	103
<표 44> 분야별 전문용어의 조어 길이	107
<표 45> 수학, 과학, 문법 분야의 형태 정보	109
<표 46>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의 형태 정보	110
<표 47> 수학, 과학, 문법 분야의 원어 정보	111
<표 48>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의 원어 정보	112
<표 49> 수학, 과학, 문법 분야의 형태 결합 관계	114
<표 50>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의 형태 결합 관계	114
<표 51> 두음법칙과 관련된 용어	132
<표 52> 사이시옷 규범과 관련된 용어	134
<표 53>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용어	134
<표 54> 연도별 과제 현황	139
<표 55> 연도별 전문용어 수집 수량	139
<표 56> 단행본 목록	147
<표 57> 연구별 성과	150
<표 58> 학위 논문 목록	153
<표 59> 학위 논문의 연구 성과	154
<표 60> 2019년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성과	158
<표 61> 2015-2019 교과별 남북 전문용어 수집 현황	160

[그림 차례]

[그림 1] 남북 음악 교과서의 차례 예시	9
[그림 2]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추출의 6단계	12
[그림 3] 북측의 최근 음악, 미술 분야 교과서	16
[그림 4] 음악, 미술 교과서에 정리된 전문용어의 예시	17
[그림 5] 남측 전문용어의 추출 및 선정 과정	17
[그림 6] 대응 용어 확인에 활용된 참고 자료	18
[그림 7] 2015년 1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22
[그림 8] 2016년 2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22
[그림 9] 2017년 3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23
[그림 10] 2018(2019)년 4(5)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24
[그림 11]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위계 기준 판정 결과	38
[그림 12] 분야별 전문용어의 AA형 비율	54
[그림 13] AA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56
[그림 14] Aa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58
[그림 15] AA형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60
[그림 16] Aa형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61
[그림 17] 형태가 같은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62
[그림 18] 형태가 같은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63
[그림 19] 형태가 같은 남북 전문용어의 분야별 한자어 비율	64
[그림 20] 형태가 같은 남북 전문용어의 분야별 외래어 비율	64
[그림 21] AB형 남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66
[그림 22] AB형 북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68
[그림 23] AB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빈도	70
[그림 24] AB형 남측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72
[그림 25] AB형 북측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73
[그림 26] AB형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빈도	75
[그림 27] AB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76
[그림 28]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전체 어종 분포	77
[그림 29] AB형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78
[그림 30]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전체 어종 분포	78
[그림 31] 남북 교과별 전문용어 유형 빈도	79
[그림 32] 남북 교과별 전문용어 어종 출현 빈도	81

[그림 33] 각 분야 조어 단위 수의 분포	108
[그림 34]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113
[그림 35] 음악 Aa형	128
[그림 36] 미술 Aa형	128
[그림 37] 분야별 AA, Aa, AB형	129
[그림 38] 규범 차이에 따른 용어 비율	130
[그림 39] ‘미래엔’의 통일 교과서	161
[그림 40]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민사편)》 중 일부(172-173)	164
[그림 41] 향후 연구 계획 및 방향	165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표

남북 관계는 변화무쌍하다. 급격히 경색되기도 하다가 갑자기 관계가 풀리기도 한다. 통일 과정도 마찬가지로일 수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우,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는 바로 언어이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서로의 의사를 조율해 가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의 언어 상황을 고려해 보면, 문법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어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자못 심각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겨레말큰사전>이 준비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전문용어 부분이 그러할 것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2015년부터 남북 전문용어를 비교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이어지는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연속선에 위치한다. 더불어 2015년부터 이어진 남북 전문용어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도 초점이 놓인다.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남북 교류 과정에서 용어 차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함으로써 통일 준비기 및 전환기의 남북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나. 통일 시기에 청소년 및 학습자의 중·고등 교육에 필수적인 음악, 미술 교과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일관된 교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다. 이전 연구에서 마련한 절차와 방법론을 음악, 미술 교과에 적용하여 음악, 미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을 제시한다.
- 라. 2015년부터 이어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의 한계를 살피고 앞으로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방향을 전망한다.
- 마.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이 연구의 핵심 목표는 남북에서 사용하는 음악, 미술 교과 전문용어의 통합에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남북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용역에서는 수학, 과학, 국어, 그리고

역사 교과서의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 통합안이 마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예체능 교과 전문용어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구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방법론과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연구 또한 이전 성과의 방법론과 절차를 음악, 미술 교과에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다만 예체능 교과의 전문용어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구별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구축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설정한 방법론과 절차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남북 전문용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피는 작업까지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부터 이어진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학계에 산재되어 있는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 모으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표는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2018년의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과 동일하다. 즉, 남북 전문용어 차이를 해소하고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해당 용어의 추출이고, 둘째는 용어의 통합 기준 마련이다. 세부 절차 및 방법론은 이전 성과에서 정밀히 논의된 바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에서 용어 추출은 음악, 미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음악,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남측의 해당 교과의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용어를 북측의 음악, 미술 교과서 및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교과서 및 사전의 맥락을 바탕으로 남측과 북측의 대응 용어를 면밀히 검토하였다.¹⁾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진에 합류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단계이다.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은 2015년에 수행

1) 남측 자료 및 북측 자료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한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에 수행한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그리고 2018년에 이루어진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 바탕을 둔다. 다만 통합 기준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음악, 미술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각 기준의 위계와 음악, 미술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수립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전 사업인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남북 전문용어 구축》,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그리고 이 연구가 이루어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3. 선행 용역과의 연계성

국립국어원에서는 용어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 용어 및 전문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중 한 부분으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과정도 함께 진행하여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는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그리고 2018년의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으로 대표할 수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선행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가 선행 연구를 따르는 지점으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연구 방법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통합과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 직접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의 교과를 중심으로 전문용어 통합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가 예체능 교과에 전문용어 통합에도 시도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이를 예체능 교과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2016년에 수행한 체육 교과 전문용어와 이번 연구의 음악, 미술 교과 전문용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려고 한다.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2018년의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어 구축》을 통해 얻은 수확 중 하나는 바로 전문용어 통합 기준의 구축이다. 국제적인 논의와 남북의 특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용어 통합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마련한 통합 기준을 음악, 미술 분야에 확대 적용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년의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2018년의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을 갈무리하는 성격도 갖는다. 이들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살피고, 보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학계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 모으는 작업도 실시하였다. 학위 논문, 단행본을 중심으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결과 단행본 총 35권, 학위 논문 총 19건을 수집할 수 있었다. 여러 학계에서 산발적으로 남북 전문용어 비교집을 마련하였으나, 한계가 적지 않다. 또한 이들의 비교 틀 역시 제각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통합 방향도 함께 언급하였다.

4. 추진 일정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과업의 내용과 방향을 파악하였다. 착수 보고회 이전에 자료 수집 및 전문용어 추출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착수 보고회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월별로 진행된 주요 과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월별 주요 연구 진행 과정

월	주요 진행 과업	비 고
5	연구 자료 수집 남측의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추출	-
6	북측의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추출 및 남측 전문용어와의 비교	-
7	남북 전문용어 통합 지침 마련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착수 보고회
8	1차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작성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 수집	전문가 워크숍
9	2차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작성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 수집	-
10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 수집	-
11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수립	최종 평가회
12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국제 학술 대회

본 연구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팀은 5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용어 정리를 착수 보고회 이전에 일단락 지었다. 남북 전문용어를 추출하기 위해 남측과 북측의 교과서 자료, 북측의 대백과 사전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북측의 교과서, 대백과사전의 확보가 문제였으나 발주기관인 국립국어원과 협조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다.

또한 착수 보고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수집된 북측 전문용어를 남측의 전문용어와 대응시키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음악, 미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추출한 남측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전문용어를 북측의 자료에서 직접 찾았다. 연구진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전문용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자료에서 추출한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언어학적 분석으로 얻은 결과는 각 분야에 적합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행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특징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 외의 전문가와 교감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책임 연구원의 주

도하에 각각의 용어를 세부적으로 판정하였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진 간의 이견 역시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책임 연구원의 주관하에 토론을 거쳐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성과를 전문용어 전문가와 공유하고,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의 각 학계에서 이루어진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 모으는 작업도 실시하였다. 연구 성과는 학위 논문, 단행본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구입할 수 있는 도서는 주문을 통해 확보하고, 학위 논문은 riss(<http://www.riss.kr/index.do>)로 내려 받았다. 다만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 상태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1월에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전문용어 연구 성과에 관한 조언 사항도 확보하였다. 이 결과는 11월 말, 국립국어원의 최종 평가회에서 발표하였다. 최종 평가회에서도 여러 유익한 지적과 조언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

II장에서는 먼저 남북의 음악, 미술 분야 교육과정을 비교한다. 비교하는 과정은 중등 교육과정이며, 교과서 중심의 교과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후에 살펴볼겠지만 북측의 음악, 미술 교육과정은 이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남측의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전문용어를 추출하고 비교하기 위한 자료 출처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을 살펴본다. 음악, 미술 분야의 다양한 용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서적을 망라하여 최대한 많은 용어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제되지 않은 자료는 오히려 용어들 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북측의 자료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확보가 여의치 않다. 따라서 중등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롯한 교과서 편수 자료, 사진 등 타당성과 대표성을 지닌 교재를 바탕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한다.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은 자료의 수집, 남측 전문용어의 선정, 그리고 북측 대응어의 확인으로 진행된다.

1. 남북의 음악 분야 교육과정 비교

남측과 북측은 각각 2015년, 2013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특히 북한의 교육과정 개편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개편으로 특기할 만하다. 북한의 교육적 목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 시기에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육성을 목표로 두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주체형의 새 인간’에 목표를 두었다. 이후 김정은은 201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교육 정책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²⁾

이 장에서는 남북 음악 교과서의 전반적인 구성을 간단히 비교하여 검토한다. 주지하듯이 본 연구는 남북 교과서를 바탕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각 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북한의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명시된 교육 목표는 “백두산절세위인 등(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이론의 위대성, 영도의 위대성, 풍모의 위대성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인간적인 매혹에 기초하여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며……”로 되어 있다.

성한별(2019: v-vi)에서는 남북 음악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남북한 음악 교과서의 영역별 구성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를 따르고 있다.

둘째, 음악 교과서의 학습을 통한 실기 능력의 배양을 추구한다.

셋째, 남북의 음악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다.

넷째, 남북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명칭에 따른 범위와 구성이 다르다.

다섯째, 남북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음악 용어는 현저히 다르게 사용된다.

여섯째, 남북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제재곡은 음악의 종류와 다양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위의 특징들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 특징과 세 번째 특징이다. 즉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다른 방식의 교육과정을 가지지만, 그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중등과정 음악 교과서를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육 목표와 관련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각각 남북의 음악 교육과정의 목표를 엿볼 수 있는 관련 내용이다.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³⁾

“우리들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려는 경해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음악과, 무용, 미술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풍부한 문화적소양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⁴⁾

2015년 개정된 남측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의 목표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고급중학교 『예술 3』 교과서의 머리말에서는 밑줄 친 바와 같이 음악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남측에서는 음악을 통해 개인, 사회, 국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성장을

3)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별책12, 교육부.

4) 교육도서출판사(2015), 《예술(고급중학교 제3학년)》, 교육도서출판사.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북측에서는 정치 사상적인 목표 아래 공산주의의 일꾼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대비적인 특징은 각 교과서의 차례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현하며 소통하기		차례	
1 노래 부르기 01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 우리들 세상 12 봄이 오면 14 새봄 16 스와니 강 17 희망과 영광의 땅 18 그대 있는 곳까지 19 02 시와 음악의 만남 물장미 20 동무 생각 22 별 24 엄마야 누나야 26 03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 작은 세상 28 꿈의 나라 30 장미 31 연대 위의 집 32 라 쿠카라차 33 신디 루치아 34 죽음의 노래 35 04 국악 이야기 사냥꾼의 함성 36 아름다운 밤을 소리 37 I Have a Dream 38 Do You Hear the People Sing 39 조국 설을 맞이하는 대륙 40 05 우리 민요 아리랑 아리랑 43 해운 아리랑 44 전도 아리랑 45 달랑 아리랑 46 강변도 아리랑 47 세계로 나아가는 아리랑 48 06 우리와 친근한 국악 흥영 계타령 50 풍설이 사랑 풍 52 2 악기 연주하기 기타와 우쿨렐레 54 코드로 배우는 반주 60 사물놀이 62 소금 66 산조 가어금 68 가락 합주 70 3 음악 만들기 반주하기 72 합식을 생각하며 악곡 짓기 74 동영산 문집 표고그림 76 자전지정장단에 변형 창단 만들기 78 장단과 트로에 어울리는 가락 짓기 80 음악적 만들기 82		영원한 해님의 노래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2 더 높이 부르자 김정일장군의 노래 5 손동금독주와 경음악감상 손동금독주 《보물찾아(비기)》 7 경음악 《소년단원진곡》 15 해님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불후의 고전적명작 《속곡의 노래》 17 김정원수님 부디 안녕하세요 24 혁명가국노래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저녁》 25 사랑하는 오빠의 우리 삼형제 27 높이 부르자 항일아동혁명가요 동무야 모여라 29 소년군가 31 지덕제자랑 꽃피워가요 우리 학급동무들 38 최우름 5점꽃 47 우리 마음 우리 희망 하나의 마음 49 따르자 김정원수님 56 즐거운 우리 부대 62 부록 63	

[그림 1] 남북 음악 교과서의 차례 예시

위 그림에서 왼쪽은 남측 음악 교과서의 차례이고, 오른쪽은 북측 교과서 차례이다. 북측의 차례를 보면, 〈김정일장군의 노래〉, 〈더 높이 부르자 김정일장군의 노래〉, 〈김정은원수님 부디 안녕하세요〉, 〈소년군가〉, 〈따르자 김정은원수님〉 등과 같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남측과 북측의 음악 교과서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내용 구성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음악 분야의 전문용어를 찾고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노래의 내용인 가사와 주제들은 다루지 않는다. 주로 다루는 부분은 음자리표, 조성 용어, 악보 기호 등이다. 그러므로 음악 교과서의 내용적 측면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남측과 북측의 음악 교과서는 영역별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노래의 제목과 가사 등에서는 서로 다른 교육 목표로 인해 이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남과 북의 음악 용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남북의 미술 분야 교육과정 비교

미술 분야의 교육과정도 음악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남측과 북측 모두 각각 2015년과 2013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남측의 미술 교과 교육 과정의 목표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북한의 미술 교육은 “초급중학교 미술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 미학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해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미술 지식과 기능, 창조적인 실천능력과 초보적인 미술 작품 감상 및 평가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옹호자, 관찰자로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 있다.”라고 2013년 교육 강령에서 밝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남북의 미술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표현 영역’을 비교하여 대비되는 특징을 살펴본다.⁵⁾ 남북의 미술 교과는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등의 표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한 남측의 미래엔의 《중등 미술 1》과 북한의 《미술(초급중학교 1)》의 구성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남북 미술 교과서의 표현 영역 비교 1

표현 영역	남측 미술 1(미래엔)	북측 미술(초급중 1)
회화	II. 평면 표현	1. 기하모형으로 세계를 본다면
	IV. 주제 표현	2. 꽃의 향기를 화면에 담아
	V.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	3. 우리들의 희망찬 생활을
판화	VII. 다양한 매체와 표현	5. 누구의 숨씨가 더 좋은가
조소	III. 공간 표현	6. 입체적으로 본 내 동무
디자인	VI. 생활 속 디자인	4. 정든 우리 학교 길을 따라
공예	V.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	8. 설날을 멋있게 장식해
서예	V.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	7. 《원수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5) 남측의 미술 교과는 체험과 표현 그리고 감상 영역으로 구성된다. 북측 교과서에서는 표현 영역과 감상 영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영역은 표현과 감상 영역인데, 감상 영역의 경우는 작품의 특징, 작가, 시대적 배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념적인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측과 북측은 대동소이한 표현 영역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내용 조직과 배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남측의 교과서는 하나의 단원에서 회화, 공예, 서예 등의 표현 영역을 다루고 있는 반면, 북측의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단원에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남측의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 교과서마다 내용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로 볼 수는 없다. 즉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표현 영역에 기초하여 남과 북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검토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다음의 표는 미래엔의 《중등 미술 2》와 북한의 《미술(초급중학교 2)》의 구성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남북 미술 교과서의 표현 영역 비교 2

표현영역	북측_미술(초급중 2)	남측_미술 2(미래엔)
회화	1. 우리 생활에서의 정든 물건을 보며 2. 창공을 나는 새를 찾아 3. 아름다운 생활은 우리 가까이에	I. 나를 둘러싼 세계 II. 시각 문화와 이미지 III. 미술과 융합 IV. 미술과 직업 V. 미술 작품 읽기 VI. 미술과 문화
판화	-	
조소	6. 우리들의 모습을 립체물로 조화시켜 보자	
디자인	4. 간판을 멋있게 장식하려면 5. 런속그림을 재미있게	
공예	8. 인형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서예	7. 충정의 마음을 서예 《한마음 따르렵니다》에 담아	

북측의 교과서는 2학년의 과정에서도 표현 영역에 따라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남측의 교과서는 다른 학문 또는 분야와의 통섭을 시도하고 있다. ‘미술과 융합, 미술과 직업, 미술과 문화’ 등은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의·융합 능력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구성으로 보인다.⁶⁾ 따라서 남측의 이 단원에서 보이는 ‘키네틱 아트, 적정 기술’ 등의 용어 등은 북측의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으며, 미술 전문용어와 과학 기술 전문용어의 경계에 있는 전문용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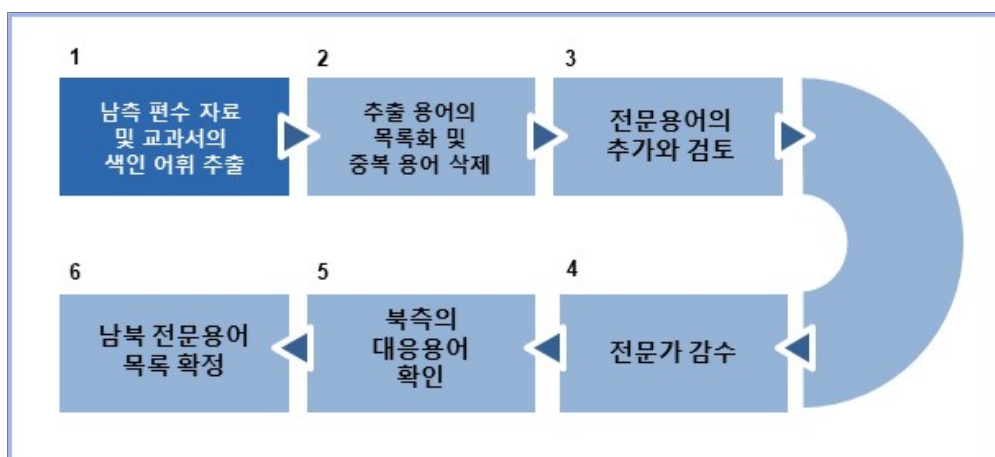
6) 2015년에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등을 교과 역량으로 삼고 있다. 이 중 ‘창의·융합 능력’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측과 북측에서 공통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추출하여 비교한다. 따라서 위에서 간단한 사례로 제시한 전문용어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향후 교과 통합과 통일된 교과서 제작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남북 전문용어 추출 과정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추출은 남측의 전문용어를 우선적으로 추출한 후, 이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총 여섯 단계를 거치는데 아래의 그림은 이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추출의 6단계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추출은 자료의 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측의 교과서와 편수 자료의 어휘들을 추출한다. 주지하듯이 편수 자료는 다양한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교과 전문용어들의 표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한 용어를 목록화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삭제한다. 다양한 교과서에서 용어를 추출하므로 중복되는 용어가 당연히 존재하며, 편수 자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정리된 표제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과서와 편수 자료에서 확보하지 못한 음악, 미술 전문용어를 추가하는 단계이다. 교과서와 편수 자료가 음악, 미술 교과의 모든 전문용어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된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비어 있는 전문용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검토와 감수 단계이다. 1차적으로는 본 연구진이 사전 등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문용어를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가인 공동 연구원이 2차 감수를 실시한다. 네 번째 단계까지 완료되면 남측의 음악, 미술 전문용어 선정은 마무리된다. 이 남측 목록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확인하는 과정이 다섯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측의 교과서와 참고 자료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면서 그 의미를 대조한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대응 용어로 확정하게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남측 용어와 이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정리하고 기타 부수적인 정보를 갖추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3.1. 자료 수집

전문용어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관된 자료에서 균질한 전문용어를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보된 전문용어들은 실제 통일 현장에서 사용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자료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수집한 자료는 남측과 북측의 음악, 미술 교과서이다. 남측의 교과서에서는 ‘미래엔’ 등의 출판사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교육부에서 발간한 편수 자료도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해 확보하였다. 편수 자료는 교과서에서 추출한 용어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통일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본 연구진에서 확보한 남측 자료 목록이다.

<표 4> 음악, 미술 분야 남측 자료

분류	교과	교육과정	자료명	출판사	출판 년도	저자
교과서	음악	중학교	중학교 음악 ①	미 래 엔 등 3중	2015	장기범
			중학교 음악 ②	미 래 엔 등 3중	2015	장기범
		고등학교	고등학교 음악	미 래 엔 등 3중	2015	장기범
	미술	중학교	중학교 미술 ①	미 래 엔 등 3중	2015	연혜경
			중학교 미술 ②	미 래 엔	2015	연혜경

				등 3종 미 래 엔 등 3종		
		고등학교	고등학교 미술		2015	연혜경
	초·중·고		편수 자료 II -인 문·사회 과학/체육· 음악, 미술 편	교육부	2017	교육부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두 산 동 아	2008	국 립 국 어원
			우리말샘	국 립 국 어원	2016	국 립 국 어원
참고 자료			남북 교과서 학술용 어 비교 연구II	국 립 국 어원	2008	국 립 국 어원

교과서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는 ‘음악’과 ‘미술’ 교과서를 말한다. ‘미래엔’ 교재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를 확보하고 그 외 3종의 교과서는 참고용으로 삼았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간된 편수 자료를 확보하여 표준적인 음악, 미술 전문용어 마련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사전류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확보하였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의 ‘자세히 찾기’ 기능으로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문용어들을 다운로드하여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엑셀 목록을 확보하였다. 음악 분야 전문용어는 6,019개를 확보하였고, 미술 분야 전문용어는 1,363개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참고 자료로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Ⅱ》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2008년에 제작한 것으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술용어를 비교한 연구이다. 남측의 음악, 미술 용어와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음악, 미술 용어가 실려 있다. 다음은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추출을 위한 북측의 자료 목록이다.

<표 5> 음악, 미술 분야 북측 자료

분류	교과	교육과정	자료명	출판사	출판 년도	저자
교과서	음악	초급중 1	음악무용	교육 도서 출판사	2013	최 동 옥, 조영필
		초급중 2	음악무용		2014	최 동 옥, 신옥연

		초급중 3	음악무용		2015	최 동 욱 , 신옥연
		초급중 1	음악무용 교수참고서		2013	최 동 욱 , 장명숙
		고급중 1	예술교수참고서 (음악무용)		2013	권 명 숙 , 리선옥
		고급중 1	예술		2013	권 명 숙 외
		고급중 2	예술		2014	권 명 숙 외
		고급중 3	예술		2015	권 명 숙 외
	미술	초급중 1	미술		2013	홍파, 정영수
		초급중 2	미술		2014	홍파, 정영수
		초급중 3	미술		2015	홍파, 정영수
		초급중 1	미술교수참고서		2014	홍파, 리진미
		고급중 1	미술교수참고서		2014	홍파, 리진미
사전			광명백과사전6_문학예술	백과사전출판사	2008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2006	사회과학출판사

북측의 자료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과서이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측의 교과서는 2013년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을 담은 교과서를 확보하였다. 통일부 산하의 《북한자료센터》에서 위의 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몇몇의 최신 자료는 발주처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이후의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전 시기의 자료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음의 그림은 가장 최근의 북측 교과서이다.



[그림 3] 북측의 최근 음악, 미술 분야 교과서

북측의 중등 교과 과정 중 초급중학교 과정에서는 음악 교과와 무용 교과를 같이 배운다. 그리고 고급중학교 과정에서는 음악, 무용, 미술 교과를 ‘예술’이라는 교과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

북측의 사전들은 《조선말대사전》과 《광명백과사전》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의 경우,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진 규범 사전이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명백과사전》은 가장 최근에 북측에서 만들어진 백과사전이다. 이 사전은 ‘북한역사, 정치, 법, 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를 전체 20권으로 나누어 2010년에 완간되었다.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총체로서 표준화된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큰 가치가 있다.

3.2. 남측 전문용어 추출

전문용어의 추출은 남측 전문용어 추출로부터 시작된다. 남측의 음악, 미술 분야 교과서와 편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용어를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에서는 각 교과서에 실려 있는 색인(index) 어휘들을 중심으로 1차적인 용어 수집을 하였다. 색인 어휘는 세부 분야별로 핵심 어휘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작년의 역사 분야 전문용어 추출에서는 교과서에 색인 어휘가 충실하게 실려 있어, 색인 어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올해의 음악, 미술 교과서에서는 색인 어휘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서의 중간 중간에 해설을 통해 전문용어를 설명하는 구성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전문용어를 수집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남측 교과서에서 보이는 전문용어들을 정리한 부분이다.

1. 관으로 찍는 그림

(1) 관학의 뜻
나뭇가, 돌, 금속 등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되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데 사용된다.

(2) 관학의 종류
관을 이용하여 만든 그림을 그려서 나뭇가, 돌, 금속, 종이, 벽화, 공예품 등으로 구분된다.

(3) 관학의 특성
조각과 회화를 결합하여 한 장의 그림으로 많은 그림을 여러 장 찍을 수 있다.

구분	관학의 특징	관학의 종류	관학의 재료	관학의 용도
관학의 특징	관학의 특징은 관학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종류는 관학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재료는 관학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용도는 관학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종류	관학의 종류는 관학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재료는 관학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용도는 관학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특징은 관학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재료	관학의 재료는 관학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용도는 관학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특징은 관학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종류는 관학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용도	관학의 용도는 관학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특징은 관학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종류는 관학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학의 재료는 관학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4) 관학의 재료
관학의 재료는 관학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5) 관학의 용도
관학의 용도는 관학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관으로 찍는 그림

(1) 관학의 뜻
나뭇가, 돌, 금속 등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되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데 사용된다.

(2) 관학의 종류
관을 이용하여 만든 그림을 그려서 나뭇가, 돌, 금속, 종이, 벽화, 공예품 등으로 구분된다.

(3) 관학의 특성
조각과 회화를 결합하여 한 장의 그림으로 많은 그림을 여러 장 찍을 수 있다.

(4) 관학의 재료
관학의 재료는 관학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5) 관학의 용도
관학의 용도는 관학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음악 심화

남북한의 음악 용어 비교

남한은 한자어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말을 대부분 붙여서 사용한다.

남한	간판	잇줄	음자리표	높은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
북한	누른개	가선	음기호표	고음기호	저음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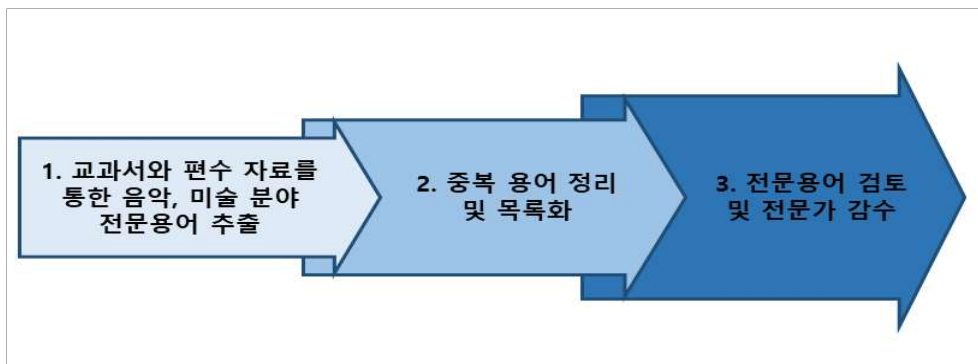
남한	스타카토	트릴	강약	옥타브	장조	단조
북한	끊기	굴림소리	세기바루	둘이	대조	소조

남한	음음표	음표	임시표	당김음	소프라노	테너
북한	음근소리표	소리표	변음기호	이강음	여성고음	남성고음

[그림 4] 음악, 미술 교과서에 정리된 전문용어의 예시

음악 교과서에서 남북의 음악 용어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미술 교과서에서는 각 표현 영역의 용어들을 단위마다 정리해 놓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각 단위(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문용어들을 고르게 확보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남측 전문용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그림 5] 남측 전문용어의 추출 및 선정 과정

1단계는 기본 자료를 통한 전문용어 추출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본 연구진은 음악 전문용어 3,491개, 미술 전문용어 1,095개를 추출하였다. 교과서를 본 연구진의 연구원, 보조 연구원이 직접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교과서를 2명 이상이 살펴봄으로써 전문용어 누락을 방지하였다. 2단계에서는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유의어들을 표준화하여 목록화하였다. 이때 편수 자료가 기준이 되었으며, 누락된 용어들은 편수 자료를 통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음악 전문용어 3,017개, 미술 전문용어 898개를 남측 전문용어로 목록화할 수 있었다. 3단계는 전문용어를 검토하고 감수하는 과정이다. 1차적으로 본 연구진의 음악, 미술 분야 전문가가 전문용어를 검토하였다. 그 후 외부의 전문가에게 목록화된 전문용어를 맡겨 2차 감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측 전문용어 3,712개를 확정하였다.

3.3. 북측 대응용어 확인

이 절에서는 앞서 확인한 남측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북측 용어는 북측의 교과서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광명백과사전 6(문학, 예술)》, 《조선말대사전》,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II》 등 어휘집과 사전을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대응 용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6] 대응 용어 확인에 활용된 참고 자료

북측의 교과서는 학제 개편이 단행된 이후의 교과서, 즉 2013년 이후의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북측의 경우도 교과서 전문용어는 엄선된 용어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자료보다 우선한다.

《광명백과사전》은 북측에서 발간한 가장 최근의 백과사전으로 음악 및 미술 분야의 총론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음악 이론, 음악 창작, 음악사 등의 다양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미술 분야 역시 미술의 본질, 미술 창작, 미술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은 공인된 국가 기관인 ‘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펴낸 것으로 그 안의 내용이 북측 음악, 미술 분야의 표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도 이 자료를 교과서와 더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고, 대응 용어를 찾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은 북측의 대표 기관에서 발간한 규범 사전이다. 따라서 표준성을 가지며 북측의 대표적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에는 수많은 전문용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특히 미시 구조에서 ‘다듬은 말’이라는 표지로 다수의 전문용어를 순화하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사전이 북측 용어에 대한 뜻풀이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전을 통해 용어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2》 또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남과 북의 학술 용어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이를 표로 제시하고 있어 대응어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다만 활용된 자료들이 2000년대 초반의 자료로 현 시점과 1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조적인 자료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북측 대응어의 확인은 남측 전문용어 추출 때와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을 비롯한 음악, 미술 분야 전문가가 직접 북측의 교과서와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남측 용어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가려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600개의 남북 전문용어 쌍을 확보하였다. 남과 북의 형태가 같은 AA형은 1,114개 쌍이 있었으며, 맞춤법 등의 표기법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Aa형은 155개 쌍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331개 쌍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 구체적인 수치는 IV장에서 후술한다.

Ⅲ.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1.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위계 기준 설정

이 장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에서 사용된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에 대해 정리한다. 전문용어는 특수 주제 분야의 지식과 그 체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지식과 체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특수한 맥락과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용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과 그 방안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남과 북이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남측만의 자료 조사와 연구 방법으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진은 전문용어학의 전문용어 형성법을 중심으로 하여 그간 학계에서 다루어진 여러 기준과 조건들을 모아 9개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이 9개의 기준에 위계를 설정하고 정량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정립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위계 기준 설정의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간 수정된 통합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끝으로 이 통합 알고리즘이 음악, 미술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전문용어의 표준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ISO 704: 2009》에서는 용어 형성의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Consistency)’, ‘적절성(Appropriateness)’, ‘언어학적 경제성(Linguistic economy)’, ‘파생성 및 합성성(Derivability and compoundability)’, ‘언어학적 정확성(Linguistic correctness)’, ‘모국어 선호성(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을 들었다.⁷⁾ 이 기준들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문용어 형성의 원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7) 투명성은 용어가 최소한의 형태 부분으로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때, 투명하다고 간주된다. 일관성은 모든 주제 영역의 전문용어가 자의적이거나 무작위의 용어 집합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다. 따라서 개념 체계에 일치하는 통일된 용어 체계여야 한다. 적절성은 용어가 언어 공동체 내에서 잘 알려져야 하고 확립된 의미의 체계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혼동을 일으키는 용어는 피해야 함을 말한다. 언어학적 경제성은 용어가 가능한 한 간결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간결성에 대한 요구는 종종 투명성에 대한 요구 사항과 상충되는데, 용어에 포함된 특성의 수가 많을수록 용어의 투명성은 높아진다. 파생성 및 합성성은 용어 형성에 있어 생산적인 단위들의 사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언어학적 정확성은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국어 선호성은 다른 언어에서 차용한 용어가 그 개별 국가(언어)에서 용인된 양식이라 할지라도 모국어 표현이 그 직접적 차용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기준을 통합의 근거로서 활용하였다. 투명성과 적절성은 본 연구의 ‘투명성’으로 포괄하였고, 일관성과 경제성은 각각 ‘일관성’, ‘경제성’으로 수렴하였다. 언어학적 정확성은 ‘문법성’으로 바꾸었으며, 모국어 선호성은 ‘고유성’으로 치환하여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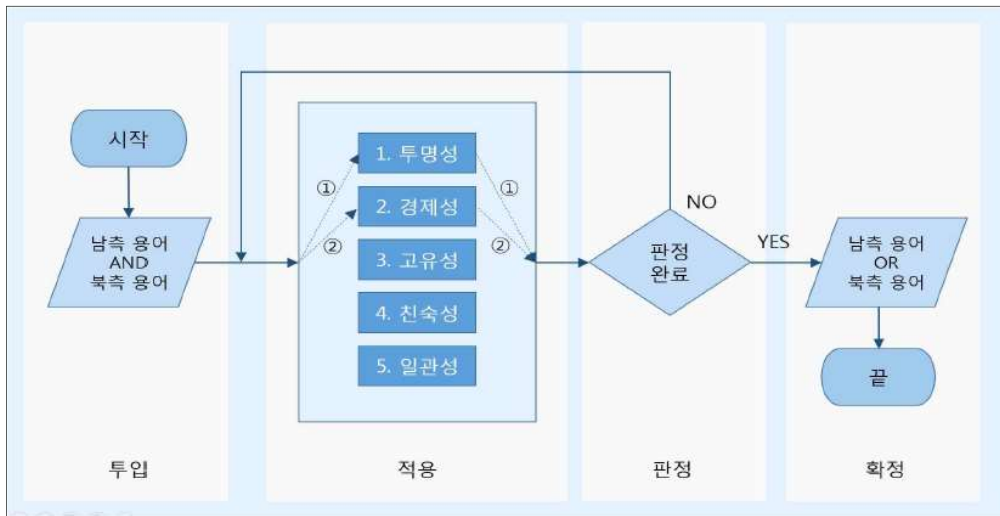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기준 외에도 ‘친숙성’과 ‘국제성’, ‘윤리·미학적’ 등의 기준들이 여러 논의에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을 수용하여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친숙성은 언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국제성은 용어의 국제적 활용성을 고려한 기준이다. 그리고 윤리·미학성은 전문용어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반 언중의 문화 관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상과 같이 첫 해인 2015년의 연구에서는 ‘투명성’, ‘일관성’, ‘경제성’, ‘고유성’, ‘문법성’, ‘윤리·미학적’, ‘친숙성’, ‘국제성’, ‘일의성’ 등 총 9개의 통합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투입-적용-판정-확정’의 단계를 거쳐 AB형의 남북 전문용어를 판정하였다. 그 위계 순서는 ‘(1)투명성 - (2)경제성 - (3)고유성 - (4)친숙성 - (5)일관성 - (6)일의성 - (7)국제성 - (8)문법성 - (9)윤리·미학적’과 같다.⁸⁾ 이 순서는 ‘투명성’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전문용어를 판정하는 특징이 있었다. 전통적인 전문용어학에서는 전문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개념을 담는 형식은 지시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판단 아래, 본 연구에서도 전문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투명성’을 가장 앞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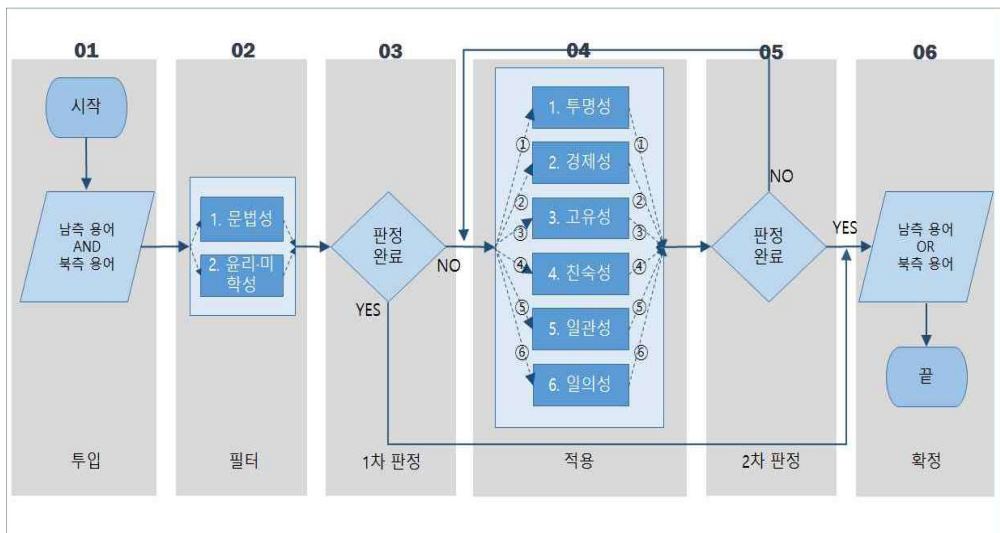
그리고 ‘경제성’과 ‘고유성’을 각각 2, 3순위에 배치하였다.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립이었으므로 이러한 순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위계 기준을 바탕으로 남과 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하여 통합에 유리한 전문용어를 판정하였다.⁹⁾

8) 이 그림에서는 ‘일의성, 국제성, 문법성, 윤리·미학적’ 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 당시에 그림을 간략히 하려는 배경에서 이 기준들을 그림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준들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9) 본 연구에서는 남측의 용어와 북측의 용어를 놓고 형태가 다른, 즉 AB 유형의 용어를 판정 대상으로 삼았다. 즉 남측의 용어와 북측의 용어를 두고 좀 더 표준적인 용어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통합안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된 용어가 반드시 통합 용어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적용을 하여 판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용어가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의견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본고에서는 통합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한 후에 언어학적 분석을 통한 다양한 통합 방법 및 가능성도 모색하였다.



[그림 7] 2015년 1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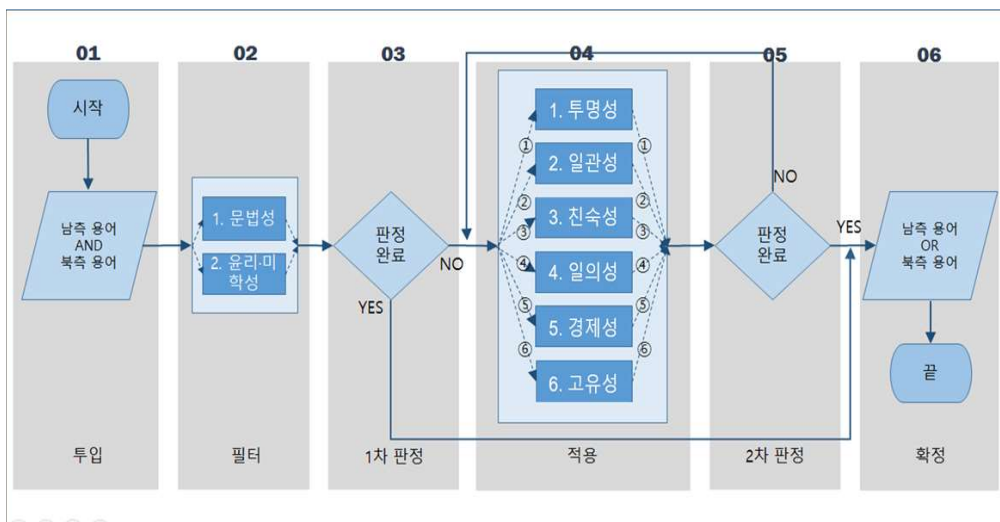


[그림 8] 2016년 2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위의 그림은 1차년도의 알고리즘을 변형한 2차년도의 알고리즘이다. 1차년도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통합에서는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국제성’의 기준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2차년도에서는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을 필터 기준으로 묶고, 국제성은 제외하였다. 교과서에서 활용될 전문용어들은 표준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문법성’, 즉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용어는 첫 단

계에서 걸러질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윤리·미학적’ 역시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첫 단계에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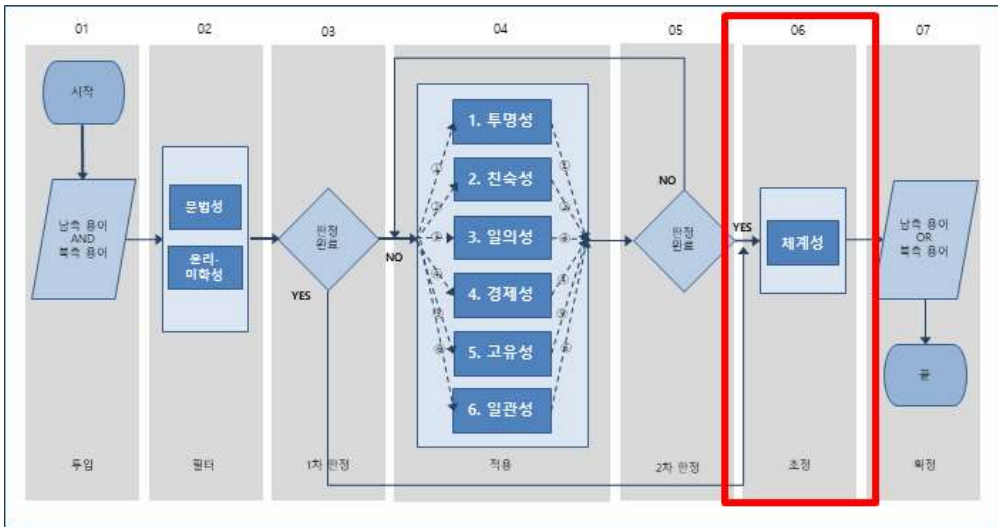
2차년도의 알고리즘은 ‘투입-필터-1차 판정-적용-2차 판정-확정’ 등의 여섯 단계를 거쳐 통합안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필터’ 단계와 ‘1차 판정’ 단계가 추가되었다. ‘문법성’과 ‘윤리·미학적’ 기준에 의해 걸러지는 전문용어는 많지 않았지만, 이 두 기준은 용어로서의 적법성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이 두 기준을 필터 기준으로 삼아 전문용어로서 합당한지 판별한 것이다. 이 기준에 어긋나면 여타의 기준 적용 없이 바로 판정된다.



[그림 9] 2017년 3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3차년도의 알고리즘은 2차년도의 알고리즘과 구조상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적용’ 단계에서의 위계 기준의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 그 위계 순서는 ‘투명성-일관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 순이다. 2차년도의 위계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과 ‘고유성’의 기준이 하순위로 내려갔다. 대신에 ‘일관성’과 ‘친숙성’의 기준이 부각되어 ‘투명성’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어 교과 분야의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위계 기준 조합이었다.

4차년도의 알고리즘은 3차년도의 알고리즘에 조정 단계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체계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의 위계를 조정한다.



[그림 10] 2018(2019)년 4(5)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4차년도 역사 분야의 위계 기준은 ‘투명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일관성’의 순서를 가진다. 국어 교과 영역의 위계 기준과 비교했을 때, 2순위였던 일관성의 기준이 최하위로 내려간 것이 특징이다. 이는 새롭게 추가된 ‘조정’ 단계의 ‘체계성’과 무관하지 않다.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연구 성과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즉 최종 판정된 결과로 나온 용어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문법’ 분야의 용어 대응 쌍 중 ‘청유형 종결어미(남)-추김의 맺음토(북)’와 ‘명령형 종결어미(남)-시킴의 맺음토(북)’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 ‘친숙성’에 의해 ‘청유형 종결어미’가 선택되었고, 후자는 ‘친숙성’은 동일하여 ‘경제성’에 따라 ‘시킴의 맺음토’가 선택되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체계를 이루는 용어가 달리 선택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3차년도의 기준에 조정 기준이 추가되었다. 이 조정 기준은 통합된 전문용어들의 체계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5단계의 ‘2차 판정’ 이후 판정된 용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체계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5차년도의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은 작년의 알고리즘 위계와 같다. 이미 오랜 기간의 검토를 통해 알고리즘을 수정한 바 있다. 특히 4차년도에 설정한 조정 단계의 ‘체계성’은 그간 지적되었던 남북 전문용어의 일관된 판정의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현재의 알고리즘으로 이어졌다. 올해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 판정 위계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판정의 순서

필터 기준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위계 기준	1. 투명성
	2. 친숙성
	3. 일의성
	4. 경제성
	5. 고유성
	6. 일관성
조정 기준	체계성

2.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세부 지침

2.1.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판정의 적용과 실제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판정에는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 조정 기준을 적용한다. 필터 기준은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을 말한다. 이 두 기준에 미달할 경우, 더 이상 다른 위계 기준의 판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판정 대상 용어를 목록에서 배제한다.

위계 기준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을 말한다. 위계 기준의 적용은 나열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어느 단계에서든 판정이 완료되면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조정 기준은 체계성을 말한다. 체계성은 전체 용어 목록에서 통일된 형식으로의 용어 판정을 위한 마지막 점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 필터 기준, 위계 기준, 조정 기준을 적용한 실체는 다음과 같다.

2.1.1. 문법성의 적용

문법성은 위계 기준, 조정 기준보다 우선 적용하는 필터 기준 중 하나이다. 이는 판정 대상 전문용어의 구성 요소 배열 방식이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은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성은 어문 규정과도 연관되는데, 현재 남북의 어문 규정은 같지 않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측과 북측 각각의 어문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선택하지 않는

다. 남북 모두 문법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문법성을 기준으로 판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문법성 동일:

- (1) 가. 기음(남) = 바탕소리(북)
나. 그림문자(남) = 그림글자(북)

※ (1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와 북측어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문법성이 동일하다.

(1나)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와 북측어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문법성이 동일하다.

2) 북측어 우세:

- (2) 불록판화(남) < 돌을판(북)

※ (2)는 남측어가 부사(불록)와 명사(판화)의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2. 윤리·미학성의 적용

윤리·미학성 역시 다른 위계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는 필터 기준이다. 문법성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서 판정이 이루어질 경우, 위계 기준과 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판정 결과에 의해 용어가 선택된다.

윤리·미학성은 비속한 것을 연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 윤리·미학성에 위배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다룬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는 교과서에 수록된 전문용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필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다.

2.1.3. 투명성의 적용

투명성의 기준이란, 개념이 용어에 보다 정확하게 동기화되어 반영되었는지 판

별하는 것이다. 용어만 보고서도 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의 판정은 의미를 적게 담고 있거나 의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범주 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보다 그 범주 내에서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용어를 줄여서 쓴 경우보다 그 본말이 투명성이 우세하다고 판정한다.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대부분 투명성이 동일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투명성 동일은 투명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북 전문용어의 각 요소가 서로 동의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풀어쓴 형태 대 생략된 형태의 대응어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 남측어 우세:

(3) 가. 줄받침(남) > 패(북)

나. 돌림판(남) > 록로기(북)

※ (3가)는 음악 용어로 북측어 ‘패’보다 남측어 ‘줄받침’이 그 뜻인 ‘거문고, 가야금 따위 현악기의 현(絃)을 피는 작은 받침’을 추론해 내기 유리하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3나)는 미술 용어로 북측어 ‘록로기’보다 남측어 ‘돌림판’이 그 뜻인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빚거나 무늬를 넣는 데 사용하는 기구. 축의 아래와 위에 넓고 둥근 널빤지를 대어 만드는데 아래 판을 발로 돌리면 위판도 함께 돌아 그 회전력을 이용하여 작업한다’를 추론해 내기 유리하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투명성 동일:

(4) 가. 단조(남) = 소조(북)

나. 명도대비(남) = 색밝기대비(북)

※ (4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 ‘단조’와 북측어 ‘소조’ 모두 그 뜻인 ‘단음계로 된 곡조’를 추론해 내기 유리하므로 투명성이 동일하다.

※ (4나)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 ‘명도대비’와 북측어 ‘색밝기대비’ 모두 그 뜻인 ‘밝기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색은 더 밝게, 어두운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추론해 내기 유리하므로 투명성이 동일하다.

3) 북측어 우세:

(5) 가. 부(남) < 질장구(북)

나. 삼절(남) < 시서화(북)

※ (5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 ‘부’보다 북측어 ‘질장구’가 그 뜻인 ‘우리나라 타악기의 하나. 진흙으로 구워 화로같이 만든 것으로, 아홉 조각으로 쪼개진 대나무 채로 변죽을 쳐서 소리를 낸다’를 추론해 내기 유리하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5나)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 ‘삼절’보다 북측어 ‘시서화’가 그 뜻인 ‘시와 글씨와 그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추론해 내기 유리하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4. 친숙성의 적용

친숙성은 투명성 다음의 위계 기준이다. 친숙성이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전문용어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전문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친숙성을 판정한다. 즉, 기초 어휘 목록에 포함된 구성 성분을 가진 용어를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기초 어휘 목록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한국어 기초 사전》을 참고한다.¹⁰⁾ 친숙성을 기준으로 판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남측어 우세:

(6) 가. 밑음(남) > 근음(북)

나. 찰흙(남) > 점토(북)

※ (6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의 ‘밑’, ‘음’과 북측어의 ‘음’이 기초 어휘이지만, 용어 내 기초 어휘 비율이 남측어가 더 높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6나)는 미술 용어로 기초 어휘 목록에 남측어 ‘찰흙’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10) 《한국어 기초 사전》 웹사이트: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2) 친숙성 동일:

(7) 가. 겹두도막형식(남) = 복합이부분형식(북)

나. 인장(남) = 인발(북)

※ (7가)는 음악 용어이다. 남측어의 ‘겹’, ‘두’, ‘도막’, ‘형식’과 북측어의 ‘복합’, ‘이’, ‘부분’, ‘형식’이 기초 어휘로, 남측어와 북측어의 용어 내 기초 어휘 구성 비율이 같으므로 친숙성이 동일하다.

※ (7나)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와 북측어에 기초 어휘가 없으므로 친숙성이 동일하다.

3) 북측어 우세:

(8) 가. 알라마르치아(남) < 행진조로(북)

나. 색상환(남) < 색고리(북)

※ (8가)는 북측어에 기초 어휘 ‘행진’이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8나)는 남측어의 ‘색상’, 북측어에 ‘색’, ‘고리’가 기초 어휘이지만 용어 내 기초 어휘 구성 비율이 북측어가 더 높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기초 어휘를 기준으로 하는 친숙성의 기준은 남과 북의 언어 변화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숙성의 기준은 향후 남북의 논의 과정에서 다시 살피고 합의해야 할 것이다.

2.1.5. 일의성의 적용

일의성은 투명성, 친숙성 다음의 기준이다. 일의성 기준이란, 한 용어가 한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언어 형식이 하나의 의미만 가진 것이 여러 의미를 가진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동음어·다의어가 없는 전문용어를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둘 다 동음어나 다의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동일로 처리한다.

남측어의 일의성 판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고, 북측어의 일의성 판정은 《조선말대사전》에 따른다. 남북의 판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남북측 통일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이 발간되면,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남측어 우세:

(9) 가. 낮은음(남) > 저음(북)

나. 고유색(남) > 본색(북)

※ (9가)는 음악 용어로 ‘저음’은 북측에서 ‘낮은 소리’의 뜻도 있지만, ‘베이스’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북측보다 남측이 일의성에서 우세하다고 본다. 따라서 ‘낮은음’(남)을 선택하여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9나)는 미술 용어로 ‘본색’은 북측에서 ‘본디의 빛깔이나 생김새’의 뜻도 있지만, ‘원래 정한 세곡(稅穀)의 종류’라는 뜻도 있으므로, 북측보다 남측이 일의성에서 우세하다고 본다. 따라서 ‘고유색’(남)을 선택하여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일의성 동일:

(10) 가. 붙임줄(남) = 타이(북)

나. 목공예(남) = 나무공예(북)

※ (10가)는 음악 용어로 ‘붙임줄’과 ‘타이’는 남측과 북측에서 ‘악보에서, 높이가 같은 두 음을 끊지 않고 이어서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기호. 호선 ‘^’로 표시한다’는 뜻으로 동음어나 다의어 없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두 용어는 일의성이 동일하다고 판정한다.

※ (10나)는 음악 용어로 ‘목공예’와 ‘나무공예’는 남측과 북측에서 ‘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나 실용적인 물건. 또는 그런 가공 기술’이라는 뜻으로 동음어나 다의어 없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두 용어는 일의성이 동일하다고 판정한다.

3) 북측어 우세:

(11) 가. 발(남) < 바라(북)

나. 롤러(남) < 심봉(북)

※ (11가)의 음악 용어 ‘발’은 남측에서 ‘뾰족로 만든 타악기의 하나. 둥글넓적

하고 배가 불룩하며, 불교 의식에서 많이 쓴다'로서의 뜻도 있지만, '한자의 아랫부분을 이루는 부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일의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바라'(북)을 선택하여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1나)의 미술 용어 '롤러'는 남측에서 '작업대와 침대 사이에 놓아 돌리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둥근 회전판'으로서의 뜻도 있지만, '금속제의 두께를 줄이거나 평평하게 하는 데 쓰는 기구'라는 뜻도 있으므로, 일의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심봉'(북)을 선택하여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6. 경제성의 적용

경제성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다음의 위계 기준이다. 경제성의 기준이란, 음절 수가 짧은 용어를 긴 용어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우리말 자모음이나 아라비아 숫자, 외국 문자 등으로 표기된 것들은 한국어로 읽었을 때의 표기로 대체하여 판단한다.

1음절은 다른 모든 음절 수에 대해 가장 우세하다고 판단한다. 경제성의 기준에서 1음절 용어는 가장 간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음절과 3음절은 음절 수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은 우리말 단어의 음절 수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억 부담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8음절 이상의 전문용어는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용어의 간결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8음절 이상의 전문용어는 판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 남측어 우세:

(12) 가. 부(남) > 질장구(북)

나. 레터링(남) > 장식글씨체(북)

※ (12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가 1음절, 북측어가 3음절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2나)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가 3음절, 북측어가 5음절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경제성 동일:

(13) 가. 패널(남) = 그림판(북)

나. 겹세로줄(남) = 겹가름줄(북)

※ (13가)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가 2음절, 북측어가 3음절로 두 용어가 2-3음절로 동일하다.

※ (13나)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가 4음절, 북측어가 4음절로 두 용어 모두 4음절로 동일하다.

3) 북측어 우세:

(14) 가. 가온음자리표(남) < 중음기호(북)

나. 스테인드글라스(남) < 색유리그림(북)

※ (14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가 6음절, 북측어가 4음절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4나)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가 7음절, 북측어가 5음절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7. 고유성의 적용

고유성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다음의 위계 기준이다. 고유성의 기준이란, 외래어·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보다 고유어나 한자어로 된 전문용어를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용어에서 외래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둘 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이면 고유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한자어와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복합어일 경우는 고유성의 비중에 따라서 판단한다.¹¹⁾

1) 남측어 우세:

(15) 가. 영창(남) > 아리아(북)

나. 아르페지오기법(남) > 아르페지오(북)

※ (15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가 한자어, 북측어가 외래어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11) 복합어의 표기는 구성 순서와 상관없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순으로 적는다.

※ (15나)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가 한자어+외래어, 북측어가 외래어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고유성 동일:

(16) 가. 기음(남) = 바탕소리(북)

나. 물감(남) = 색감(북)

※ (16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가 한자어, 북측어가 고유어로 동일하다.

※ (16나)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가 고유어, 북측어가 고유어+한자어로 동일하다.

3) 북측어 우세:

(17) 가. 테너(남) < 남성고음(북)

나. 포스터물감(남) < 선전화색감(북)

※ (17가)는 음악 용어로 남측어가 외래어, 북측어가 한자어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7나)는 미술 용어로 남측어가 고유어+외래어, 북측어가 고유어+한자어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8. 일관성의 적용

일관성은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다음의 위계 기준이다. 일관성 기준이란,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된 용어가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지칭할 때 동일한 형식을 갖춘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목록에서 1개 이상의 대응 쌍 항목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처럼 일관성은 개념 체계의 동위성, 상하위성 등의 위계를 잘 반영하였는지에 따라 판별된다. 일관성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남측어 우세:

(18) 가. 운명교향곡(남) > 운명(북)

나. 칠보공예(남) > 칠보(북)

※ (18가)에서 음악 용어 ‘운명교향곡(남측 예: 미완성교향곡)’이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18나)에서 미술 용어 ‘칠보공예(남측 예: 금속공예)’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 일관성 동일 :

(19) 가. 등가(남) = 등가악(북)

나. 주형(남) = 형타(북)

※ (19가)에서 음악 용어 ‘등가’는 남측 예에서 ‘교가’가 발견되고, ‘등가악’은 북측 예에서 ‘고취악’이 발견되므로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동일하다고 본다.

※ (19나)에서 미술 용어인 두 용어 모두 다른 용어와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관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북측어 우세:

(20) 가. 덩덕궁이(남) < 덩덕궁장단(북)

나. 분청사기(남) < 분장자기(북)

※ (20가)에서 음악 용어 ‘덩덕궁장단(북측 예: 굿거리장단)’이 일관성이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 (20나)에서 미술 용어 ‘분장자기(북측 예: 청화자기)’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1.9. 체계성의 적용

체계성은 조정 기준이다. 조정 기준은 2018년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판정 기준에 새로이 추가된 기준으로 통합된 전문용어들의 체계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문법성과 윤리·미학성의 필터 기준과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 등의 6단계 위계 기준을 통해 판정된 용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용어들

간의 체계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법성, 윤리·미학성의 필터 기준과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 등의 위계 기준이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형태가 다른 용어(AB형)를 대상으로 판정하였다면, 조정 기준인 체계성은 형태가 같은 것(AA형), 형태가 같은 것(Aa형), 형태가 다른 것(AB형) 등 음악, 미술 분야 전문 용어 1,600개 모두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체계성의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21) 가. 리드오르간(남) - 입풍금(북)

나. 전자오르간(남) - 전기풍금(북)

※ (21)의 음악 용어에서 (21가)의 ‘리드오르간’과 ‘입풍금’은 친숙성의 기준으로 남측어인 ‘리드오르간’이 선택된다. (21나)에서 ‘전자오르간’과 ‘전기풍금’은 경제성의 기준으로 북측어인 ‘전기풍금’이 선택된다. 그러나 판정 용어 목록에는 ‘전기풍금’과 일관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용어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조정 기준인 ‘체계성’을 적용한다. 따라서 (21나)의 최종 판정은 (21가)에서 선택된 ‘리드오르간’과 일관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전자오르간’을 선택하여 남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2) 가. 공업디자인(남) - 공업미술(북)

나. 산업디자인(남) - 산업미술(북)

다. 섬유디자인(남) - 방직미술(북)

라. 의상디자인(남) - 의상미술(북)

마. 포장디자인(남) - 포장도안미술(북)

※ (22)의 미술 용어에서 (22가)의 ‘공업디자인’과 ‘공업미술’은 경제성의 기준으로 북측어인 ‘공업미술’이 선택된다. (22나)의 ‘산업디자인’과 ‘산업미술’은 경제성의 기준으로 북측어인 ‘산업미술’이 선택된다. (22다)의 ‘섬유디자인’과 ‘방직미술’은 경제성의 기준으로 북측어인 ‘방직미술’이 선택된다. (22라)의 ‘의상디자인’과 ‘의상미술’은 경제성의 기준으로 북측어인 ‘의상미술’이 선택된다. 그러나 (22마)의 ‘포장디자인’과 ‘포장도안미술’은 친숙성의 기준으로 남측어인 ‘포장디자인’이 선택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 기준인 체계성을 적용한다. (22가-라)까지 선택된 용어들과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22마)의 최종 판정은 북측어인 ‘포장도안미술’을 선택한다.

위에서 다룬 ‘문법성, 윤리·미학성’의 필터 기준과 ‘투명성, 친숙성, 일의성, 경

제성, 고유성, 일관성'의 위계 기준, '체계성'의 조정 기준 등을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 적용하여 판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7> '전자오르간'과 '전기풍금' 용어 판정표

기준	용어	판정 근거	남	북
			전자오르간	전기풍금
필터 기준	문법성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음.	0	
	윤리·미학적성	비속성 없음, 미학적성 동일	0	
위계 기준	투명성	'전자오르간'과 '전기풍금'의 투명성 무충부	0	
	친숙성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남측어와(전자·오르간) 북측어(전기·풍금)가 동일	0	
	일의성	남측어 0개, 북측어 0개이므로 동일	0	
	경제성	5음절 대 4음절로 북측어 우세	<	
	고유성	한자어+외래어 대 한자어로 북측어 우세	<	
	일관성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음.(남측례: 오르간, 북측례: 손풍금)	0	
조정 기준	체계성		>	
	최종 판정		남	

<표 7>의 판정표에서 남측의 '전자오르간'과 북측의 '전기풍금'은 대응을 이룬다. 필터 기준인 문법성의 기준에서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동일하다. 윤리·미학적성의 기준에서 비속성이 없고 미학적성 면에서 동일하다. 다음으로 위계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보면, 먼저 투명성의 기준에서 동일하다. 친숙성의 기준에서 남측어의 '전자', '오르간', 북측어의 '전기', '풍금'이 모두 기초어휘에 해당되고, 용어 내 구성 비율이 남측어와 북측어가 같으므로 동일하다. 일의성의 기준에서 남측어 0개, 북측어 0개로 동일하다. 경제성의 기준에서 남측어가 5음절, 북측어가 4음절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된다.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만으로는 북측어인 '전기풍금'이 통합 용어로 판정된다. 그러나 남측의 '리드오르간'을 통해 남측 용어가 북측 용어보다 체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종 판정은 남

측어인 ‘전자오르간’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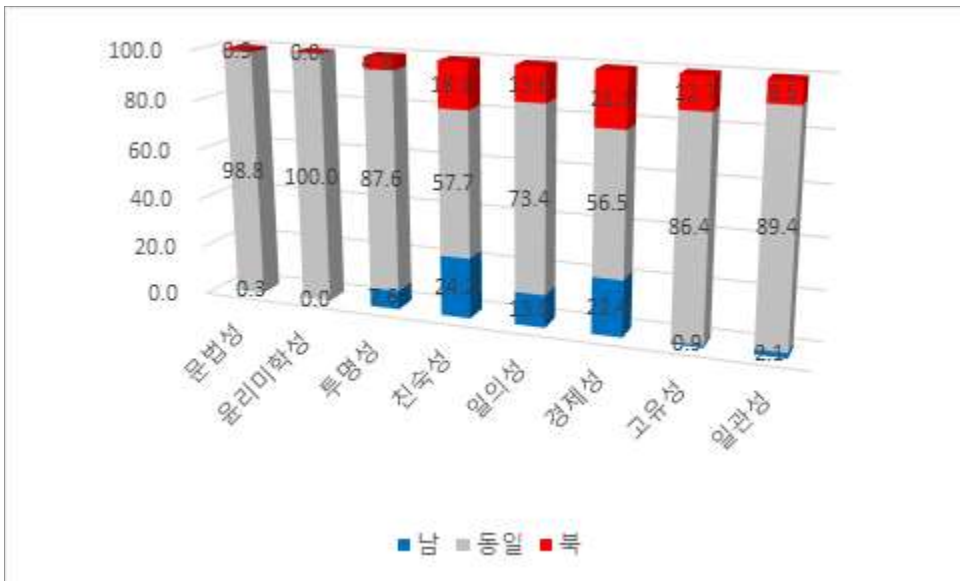
<표 8> ‘포장디자인’과 ‘포장도안미술’ 용어 판정표

기준	용어	판정 근거	남	북
			포장디자인	포장도안미술
필터 기준	문법성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음.	0	
	윤리·미학적성	비속성 없음, 미학적성 동일	0	
위계 기준	투명성	‘포장디자인’과 ‘포장도안미술’의 투명성 무승부	0	
	친숙성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남측어가(포장·디자인) 북측어(포장·미술)보다 높으므로 남측어 우세	>	
	일의성	북측어가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 불가	0	
	경제성	5음절 대 6음절로 남측어 우세	>	
	고유성	‘한자어+외래어’ 대 ‘한자어’로 북측어 우세	<	
	일관성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음.(남측례: 공업디자인, 북측례: 의상미술)	0	
조정 기준	체계성		>	
	최종 판정		북	

<표 8>의 판정표에서 남측의 ‘포장디자인’과 북측의 ‘포장도안미술’은 대응을 이룬다. 필터 기준인 문법성의 기준에서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동일하다. 윤리·미학적성의 기준에서 비속성이 없고 미학적성 면에서 동일하다. 다음으로 위계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보면, 먼저 투명성의 기준에서 동일하다. 친숙성의 기준에서 남측어의 ‘포장’, ‘디자인’, 북측어의 ‘포장’, ‘미술’이 모두 기초어휘에 해당되지만, 용어 내 구성 비율이 남측어가 북측어보다 높으므로 남측어 우세로 판정된다.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만으로는 남측어인 ‘포장디자인’이 통합 용어로 판정된다. 그러나 북측의 ‘공업미술’, ‘산업미술’, ‘방직미술’, ‘의상미술’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측 용어는 모두 ‘미술’을 사용하여 남측보다 체계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종 판정은 북측어인 ‘포장도안미술’을 선택한다.

2.2. 통합 기준의 계량적 특징

이 절에서는 위계 기준에 따른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 판정 결과를 계량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다음의 그림은 각 기준에 대해 판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AB 유형의 전문용어 331개가 그 대상이다.



[그림 11]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위계 기준 판정 결과

위의 그래프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어느 기준에서 우세했는지 보여 주는 그림이다.¹²⁾ 예를 들어, ‘투명성’의 기준에서는 총 331개의 AB형 전문용어 중에서 남측 용어는 25개가 우세하여 7.6%를 차지하고, 북측 용어는 16개가 우세하여 4.8%를 차지하고 있다. 동일 판정은 290개로 87.6%를 차지한다.

위 그림에 나타난 음악, 미술 분야 위계 기준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동일’ 판정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만 ‘친숙성’과 ‘경제성’의 경우, ‘동일’ 판정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즉 친숙성과 경제성이 남과 북의 전문용어

12) 위 그림의 구체적인 수량은 다음과 같다. 문법성은 남측 1개, 동일 327개, 북측 3개이다. 윤리·미학적성은 남측 0개, 동일 331개, 북측 0개이다. 투명성은 남측 25개, 동일 290개, 북측 16개이다. 친숙성은 남측 80개, 동일 191개, 북측 60개이다. 일의성은 남측 43개, 동일 243개, 북측 45개이다. 경제성은 남측 74개, 동일 187개, 북측 70개이다. 고유성은 남측 3개, 동일 286개, 북측 42개이다. 일관성은 남측 7개, 동일 296개, 북측 28개이다.

를 판정하는 데에 큰 요소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친숙성 기준의 경우, 남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이 24.2%이며, 북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은 18.1%이다. 북측 전문용어에 고유어 어종이 상당한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 결과는 의외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 분야의 전문용어가 위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예상과는 달리 남측의 음악 전문용어는 고유어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북측의 전문용어는 한자어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23) 같은으뜸음조-동명조, 같이가기-병진행, 내림나-씨 b, 덧줄-가선, 어울림음정-협화음정, 이끄름-도음, 자리바꿈-전회, 큰북-대고, 조이개-축수 등

일의성 기준의 경우, 남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이 13%이며, 북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이 13.6%이다. 동일 판정은 73.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특성상 하나의 언어 형식이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 판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일 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제성 기준의 경우, 남측 용어가 22.4%의 비율로 우세하다. 그리고 북측 용어는 21.1%의 비율로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경제성 기준의 분포는 남측과 북측 모두 대동소이하며, 전문용어 판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제성의 기준은 음절의 수로 정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준이다. 따라서 비교적 후순위에 두어 전문용어 판정에 적정한 분포를 가지도록 하였다.

반면, 고유성의 기준은 큰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진이 설정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고유성의 기준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는 동일한 위계를 가진다. 그리고 외래어는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낮은 위계를 가진다. 즉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위계를 가지는 것이다.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 중 북측은 전반적으로 외래어의 사용이 적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북측의 고유성 기준이 12.7%의 비율을 보인다. 아래는 남측 외래어에 대한 북측 고유어 또는 한자어의 예이다.

(24) ㄱ. 모노크롬-단색화, 그리드-방안선, 롤러-심봉, 리듬-율동 등
ㄴ. 패널-그림판, 매스-덩어리, 비브라토-떨기, 렌토-느리게 등

일관성의 기준은 남측에서 2.1%를 차지하였고, 북측에서 8.5%를 차지하였다. 동일 판정은 89.4%로 나타났다. 비교적 북측의 용어들이 남측에 비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기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정 기준인 ‘체계성’의 기준이 있다. 다음의 7개의 용어가 체계성에 의해 조정되었다.

(25) 포장디자인-포장도안미술, 리듬-율동, 아코디언-손풍금, 전자오르간-전기풍금, 목조-나무조각, 청자-청자기, 불록관화-돋을판

위의 예에서 전자는 남측의 용어이고, 후자는 북측의 용어이다. 그리고 밑줄 친 용어가 체계성에 의해 조정되었다. 즉, ‘포장디자인’과 ‘포장도안미술’ 중 남측의 용어가 위계 기준에 의해 판정되었지만 다른 용어와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북측의 ‘포장도안미술’로 판정이 바뀐 것이다.

(26) 공업디자인-공업미술, 산업디자인-산업미술, 섬유디자인-방직미술

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남측의 ‘디자인’과 북측의 ‘미술’은 대응 쌍을 이루는 조어 단위이다. 그래서 체계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는데, 다른 용어들의 관계에서는 예외 없이 북측의 전문용어가 선택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포장디자인’만 남측의 전문용어가 선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전문용어를 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로서 ‘디자인-미술’의 용어 대립 체계에서는 ‘미술’이 일괄적으로 선택된다. 나머지의 예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331개의 AB 유형 전문용어 중 남측의 용어는 161(48.6%)개가 선택되었고, 북측의 용어는 117(35.3%)개가 선택되었다. 판정되지 않은 53(16%)개의 전문용어들은 복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적용 단계의 위계 기준을 변형하여 남북의 AB형 전문용어를 판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¹³⁾

<표 9> 변형한 기준 순서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판정

기준	위계 기준 순서	남 (%)	북 (%)	동일 (%)
1. 기본 기준	투명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일관성	156 (47.1)	122 (36.9)	53 (16)

13) 체계성의 기준은 조정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 표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판정 결과의 수치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체계성의 기준은 각 기준에 따라 판정된 1차 결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정된 전문용어의 결과에 따른 조정이므로 변형 기준에 따라 그 내용과 수치가 달라진다.

2. 변형 1	친숙성-경제성-일의성-투명성-고유성-일관성	152 (45.9)	126 (38.1)	53 (16)
3. 변형 2	투명성-경제성-고유성-친숙성-일관성-일의성	149 (45.0)	129 (39.0)	53 (16)

먼저 <변형 1>의 위계 순서는 ‘친숙성-경제성-일의성-투명성-고유성-일관성’ 순이다. 이 순서는 위 [그림 11]에서 제시한 비율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판정률을 가진 기준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그 결과 ‘친숙성’과 ‘경제성’의 기준이 가장 높은 위계를 차지하였다. 친숙성의 기준은 남측의 전문용어를 24.2%의 비율로 선택하였고, 북측의 전문용어를 18.1%의 비율로 선택하였다. 또한 경제성의 기준은 남측의 용어를 22.4%, 북측의 용어를 21.1%의 비율로 선택했다. 이 순서에 따른 각 기준의 결과를 보면, 남측의 용어는 152(45.9%)개가 판정되었다. 그리고 북측의 용어는 126개가 선택되어 38.1%의 비율을 보였으며, 동일 판정은 53개로 16%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의 <변형 2>의 위계 순서는 ‘투명성-경제성-고유성-친숙성-일관성-일의성’ 순이다. 투명성과 경제성, 그리고 고유성의 기준이 비교적 상위 위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ISO 704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형성 방식의 기준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ISO 704에서는 ‘transparency(투명성)’, ‘consistency(일관성)’, ‘appropriateness(적합성)’, ‘linguistic economy(언어적 경제성)’, ‘derivability and compoundability(파생성과 합성성)’, ‘linguistic correctness(언어적 정확성)’, ‘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모국어 우선성)’ 등의 기준들을 용어 형성의 원칙으로 삼았다.¹⁴⁾ 이 순서에 따른 결과로, 남측의 용어는 149개가 선택되어 45%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북측의 용어는 129개가 선택되어 39%의 비율을 보였으며, 동일한 판정은 53개였다.

각각의 변형 이유를 바탕으로 위계 기준을 변형하여 보았다. 그 결과, 기본 기준과 변형 기준에 따른 남과 북의 전문용어 판정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위계 기준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판정 현황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연구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기준들이 적절하게 안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타 분야의 전문용어 통합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3.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

14) 본 연구에서의 ‘투명성’ 기준과 ISO 704에서의 ‘투명성’은 그 외연이 조금 다르다. 본 연구의 투명성은 ‘transparency(투명성)’과 ‘appropriateness(적합성)’을 포괄한다.

이 장에서는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목록을 살펴보고, 남측어와 북측어에서 동일 범주 내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용어들끼리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의 음악, 미술 분야의 세부 영역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교과서에 수록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수집했던 본 연구의 성격에 따라, 남측과 북측의 음악, 미술 분야의 교육 내용과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통일 시대에 음악, 미술 분야의 조절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2.3.1.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는 음(音), 장르, 음악 등의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정된 용어 목록은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들이다.

2.3.1.1. 음(音)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에서 음(音)에 관련된 용어는 모두 52개이다. 이들을 다시 화음, 높이, 길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0> 남북 음악 분야 ‘음(音)’ 관련 용어

남	북	화음	높이	길이
가온음	중음		√	
감삼화음	감삼화음	√		
감칠화음	감칠화음	√		
겹앞꾸밈음	겹앞장식음			√
경과음	경과음			√
고른음	가락소리			
구화음	9화음	√		
기음	바탕소리			
꾸밈음	장식음			√
낮은음	저음		√	
높은음	고음		√	
단삼화음	소3화음	√		
도움음	보조음			√
뒤꾸밈음	뒤결소리			√
딸림음	속음			√

딸림칠화음	부칠화음	✓		
딸림화음	속화음	✓		
미분음	미분음			
밑음	근음			
반음	반음		✓	
버금삼화음	부삼화음	✓		
버금가온음	하중음		✓	
버금딸림음	하속음			✓
버금딸림화음	하속화음	✓		
변화화음	변화화음	✓		
불협화음	불협화음	✓		
삼화음	삼화음	✓		
성음	성음			
순음	순음			
안어울림화음	불협화화음	✓		
앞꾸밈음	앞장식음			✓
앞선음	앞선음			✓
어울림화음	협화화음	✓		
연음	련음		✓	✓
온음	전음			
으뜸음	주음			
으뜸화음	주화음	✓		
음	음			
이끌음	도움		✓	
자리바꿈화음	전회화음	✓		
장삼화음	대3화음	✓		
장식음	장식음			✓
장칠화음	대소7화음	✓		
조음	조음			✓
주요삼화음	주요삼화음	✓		
중화음	중화음	✓		
지남음	지남음			✓
지연음	지연음			✓
청음	청음			
칠화음	7화음	✓		
팔음	팔음			
화성음	화성음			

‘음’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화음과 관련된 용어는 ‘감삼화음-감삼화음, 딸림칠화음-부칠화음, 변화화음-변화화음, 어울림화음-협화화음, 장칠화음-장7화음’ 등 모두 20개의 예가 나타난다. 남측어의 아라비아숫자는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여 적었는데, 북측어에서는 남측어와 동일하게 한글로 표기된 예들도 있으나

‘단삼화음-소3화음, 칠화음-7화음’ 등의 아라비아숫자와의 조합도 나타난다.

음 높이와 관련된 용어는 ‘가온음-중음, 낮은음-저음, 높은음-고음, 반음-반음, 버금가온음-하중음, 연음-련음, 이끓음-도움’ 등 모두 7개의 예가 나타난다. 높이는 음의 영역을 수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온음’은 ‘음계의 제3음. 으뜸음과 딸림음 사이에 있으므로 이렇게 부른다.’로 정의된다. ‘이끓음’은 ‘ 으뜸음에서 반음(半音) 아래의 음. 선율을 안정된 음으로 옮기는 성질을 가진 음으로 보통 장음계, 단음계의 제7음을 가리킨다.’로 정의된다.

음 길이와 관련된 용어는 ‘경과음-경과음, 도움음-보조음, 연음-련음, 지남음-지남음, 지연음-지연음’ 등 모두 14개의 예가 나타난다. 길이는 음의 영역을 수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도움음’은 ‘화음을 이루는 한 음이 화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화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꾸밈음의 하나’로 정의된다. ‘지연음’은 ‘악박에 있는 화성음이 다음 강박에 지속되어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이루는 비화성음. 다음 순간에 화성음으로 옮겨 가면서 해결된다.’로 정의된다.

2.3.1.2. 장르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에서 장르와 관련된 용어는 모두 33개이다. 이들을 다시 용도, 악기, 목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1> 남북 음악 분야 ‘장르’ 관련 용어

남	북	용도	악기	목적
가곡	가곡			
간주곡	간주곡			√
관현악곡	관현악곡	√		
교향곡	교향곡			
기상곡	기상곡			
기악곡	기악곡	√		
단조곡	소조곡			
단조교향곡	소조교향곡			
독주곡	독주곡	√		
독창곡	독창곡	√		
미사곡	미사곡	√		
바이올린협주곡	바이올린협주곡		√	
변주곡	변주곡			
서곡	서곡	√		√
악곡	악곡			
야상곡	야상곡			
엄격변주곡	련습곡			

연습곡	연습곡			
자유변주곡	자유변주곡			
전주곡	전주곡			✓
주제곡	주제곡			✓
즉흥곡	즉흥곡			
진혼곡	진혼곡	✓		
클라리넷협주곡	클라리네트협주곡		✓	
파연곡	파연곡			✓
편곡	편곡			
피아노협주곡	피아노협주곡		✓	
피아노곡	피아노곡		✓	
합주곡	합주곡	✓		
행진곡	행진곡	✓		
협주곡	협주곡	✓		
환상곡	환상곡			
회심곡	회심곡			

‘장르’ 관련 용어 중에서 용도와 관련된 용어는 ‘관현악곡-관현악곡, 독주곡-독주곡, 합주곡-합주곡, 행진곡-행진곡, 협주곡-협주곡’ 등 모두 9개의 예가 나타난다. 이는 곡(曲)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른 분류이다.

‘장르’ 관련 용어 중에서 악기가 드러난 용어는 ‘바이올린협주곡-바이올린협주곡, 클라리넷협주곡-클라리네트협주곡, 피아노협주곡-피아노협주곡, 피아노곡-피아노곡’ 등 모두 4개의 예가 나타난다. 이들 용어에는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장르’ 관련 용어 중에서 목적이 드러난 용어는 ‘간주곡-간주곡, 서곡-서곡, 전주곡-전주곡, 주제곡-주제곡, 파연곡-파연곡’ 등 모두 5개의 예가 나타난다. 이는 곡의 사용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곡들과 관련된다. ‘전주곡’은 ‘19세기 이후의 오페라에서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하는 곡’을 뜻한다. ‘파연곡’은 ‘잔치를 끝낼 때에 부르는 노래나 연주하는 음악’을 뜻한다. 특히, ‘서곡’은 ‘가극, 성극(聖劇), 모음곡 따위의 ㉠ 막을 열기 전이나 주요한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 기악곡’을 뜻한다. ㉠을 통해 목적의 범주에, ㉡을 통해 용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3.1.3. 음악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 중에서 음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용어는 모두 22개이다. 이들을 다시 시기, 목적, 형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2> 남북 음악 분야 ‘음악’ 표현 용어

남	북	시기	목적	형식
고려시대음악	고려시기음악	✓		
고전파음악	고전주의음악	✓		
교회음악	교회음악		✓	
궁중음악	궁중음악		✓	
극음악	극음악			✓
근대음악	근대음악	✓		
낭만주의음악	랑만시대음악	✓		
낭만파음악	랑만파음악	✓		
다성음악	다성음악			
대중음악	대중음악		✓	
무조음악	무조음악			
민족주의음악	민족주의음악	✓		
반주음악	반주음악			✓
삼국시대음악	삼국시기음악	✓		
서양음악	서양음악		✓	
세속음악	세속음악		✓	
음악	음악			
전자음악	전자음악			✓
중세음악	중세음악	✓		
표제음악	표제음악			✓
현대음악	현대음악	✓		
경음악	경음악			✓

음악이라고 명명한 용어 중에서 시기와 관련된 용어는 ‘고려시대음악-고려시기음악, 낭만주의음악-랑만시대음악, 삼국시대음악-삼국시기음악, 중세음악-중세음악’ 등 모두 9개의 예가 나타난다.

목적과 관련된 음악 용어는 ‘교회음악-교회음악, 궁중음악-궁중음악, 대중음악-대중음악, 세속음악-세속음악, 서양음악-서양음악’ 등 모두 5개의 예가 나타난다. 이를 다시 ‘교회음악, 궁중음악/대중음악, 세속음악’으로 나누어 음악 사용의 목적을 세분할 수 있다.

형식과 관련된 음악 용어는 ‘극음악-극음악, 반주음악-반주음악, 전자음악-전자음악, 표제음악-표제음악, 경음악-경음악’ 등 모두 5개의 예가 나타난다.

2.3.2.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회화, 판화, 예술 양식 등의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선정 용어 목록은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비교적 체계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들이다.

2.3.2.1. 회화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 회화에 관련된 용어는 37개이다. 이들을 다시 범위, 목적, 방법에 따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3> 남북 미술 분야 ‘회화’ 관련 용어

남	북	범위	목적	방법
공상화	상상화		✓	
군상화	군상	회화, 조각		
기록화	기록화		✓	
단색화	단색화			✓
단순화	단순화			
도안화	양식화		✓	
두상화	머리상	회화, 조각		
만화	만화		✓	
문인화	문인화		✓	
벽화	벽화		✓	
산수화	산수화		✓	
삽화	삽화		✓	
세밀화	세밀화		✓	
수묵담채화	수묵담채화			✓
수묵화	수묵화			✓
수채화	수채화			✓
양화	양화		✓	
역사화	력사화		✓	
원화	원화		✓	
인물화	인물화		✓	
임화	림화		✓	
입상화	입상	회화, 조각		
전신상화	전신상	회화, 조각		
정물화	정물화		✓	
종교화	종교화		✓	
좌상화	좌상	회화, 조각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		✓	
채색화	채색화			✓
초상화	초상화		✓	
추상화	추상화		✓	
포스터	선전화		✓	

풍경화	풍경화		✓	
풍속화	풍속화		✓	
한국화	조선화		✓	
화조화	화조화		✓	
회화	회화			
흉상화	흉상	회화, 조각		

회화 중에서 범위와 관련된 용어는 ‘군상화-군상, 두상화-머리상, 입상화-립상, 전신상화-전신상, 좌상화-좌상, 흉상화-흉상’ 등 모두 6개의 예가 나타난다. 남측어에서는 그림의 대상인 ‘군상, 두상, 좌상’ 등을 제시하고 뒤에 ‘화(畵)’를 붙여 회화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에 반해, 북측어는 이들 6개 용어들을 회화와 조각 분야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회화 중에서 목적과 관련된 용어는 ‘공상화-상상화, 기록화-기록화, 도안화-양식화, 문인화-문인화’ 등 모두 24개이다. 이 범주 안에서 상-하위어 관계도 나타나기도 한다. ‘수묵화’ 안에는 ‘수묵담채화’가 포함될 수 있고, ‘채색화’ 안에는 ‘화조화, 정물화, 포스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화 중에서 채색 방법과 관련된 용어는 채색에 대해 명명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단색화-단색화, 수묵담채화-수묵담채화, 수묵화-수묵화, 수채화-수채화, 채색화-채색화’ 등 5개가 나타났다.

2.3.2.2. 판화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 판화에 관련된 용어는 11개이다. 이들을 다시 방법, 재료, 색깔에 따라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4> 남북 미술 분야 ‘판화’ 관련 용어

남	북	방법	재료	색깔
고무판화	고무판화		✓	
공판화	공판화	✓		
다색판화	여러색판화			✓
단색판화	단색판화			✓
동판화	금속판화		✓	
리놀륨판화	비닐판화		✓	
목판화	나무판화		✓	
볼록판화	돌을판	✓		
석판화	돌판화		✓	
오목판화	오목판	✓		

평판화	평판화	√		
-----	-----	---	--	--

판화 중에서 방법과 관련된 용어는 ‘공판화-공판, 볼록판화-돋을판, 오목판화-오목판, 평판화-평판’ 등 모두 4개의 예가 나타난다. ‘공판화-공판’은 ‘구멍을 뚫은 판에 물감을 통과시켜 그 반대편에 놓인 종이에 원하는 문양을 새겨서 만드는 판화’를 말하고, ‘볼록판화-돋을판’은 ‘인쇄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볼록하게 나온 판으로 찍어 낸 판화’를 말한다. ‘오목판화-오목판’은 ‘인쇄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간 판으로 찍어 낸 판화’이고, ‘평판화-평판’은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하여 평평한 면에 잉크를 묻혀 찍어 내는 판화의 한 종류’를 말한다. 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 4개의 용어는 ‘공판화-공판, 평판화-평판’으로, ‘볼록판화-돋을판, 오목판화-오목판’으로 나누어도 좋을 것이다.

판화 중에서 재료와 관련된 용어는 ‘고무판화-고무판화, 동판화-금속판화, 리놀륨판화-비닐판화, 목판화-나무판화, 석판화-돌판화’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리놀륨판화’는 ‘리놀륨 판을 조각도와 각종 끌로 깎아 내는 볼록판 형식의 판화’를 말한다. ‘석판화’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여 석판에 그림을 그려 찍어 내는 평판화’를 말한다. 이와 같이 판화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고무, 금속, 리놀륨, 나무, 돌’ 등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판화 중에서 색깔에 관련된 용어는 ‘다색판화-여러색판화, 단색판화-단색판화’로 나눌 수 있다. 판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색을 입혀 표현하는지, 하나의 색만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나눈 것이다.

2.3.2.3. 예술 양식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 예술 양식에 관련된 용어는 남측은 23개이다. 이들 용어는 남측과 북측에서 ‘-주의, -미술’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주의’로 나타나는 용어들이다.

<표 15> 남북 미술 분야 ‘예술 양식’ 관련 용어

남	북	어문규정 차이(두음법칙)	동일 표기
고전주의	고전주의		√
낭만주의	랑만주의	√	
미래주의	미래주의		√
복고주의	복고주의		√
야수주의	야수주의		√

입체주의	립체주의	✓	
자연주의	자연주의		✓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
추상주의	추상주의		✓
표현주의	표현주의		✓
형식주의	형식주의		✓

예술 양식은 어문 규정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였다. 남북의 어문 규정의 차이에 따라 표기의 차이를 보이는 Aa 유형은 모두 2개이다. ‘낭만주의-랑만주의, 입체주의-립체주의’ 등이다. Aa 유형은 서로 다른 규정의 차이로 발생하는 표기의 차이이므로, 통일된 규범을 적용하게 될 경우 AA 유형으로 포함될 용어들이다. 이외에 ‘고전주의-고전주의, 야수주의-야수주의, 추상주의-추상주의’ 등은 남과 북에서 동일한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 양식에 대한 용어는 ‘-미술’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딕미술-고시크미술, 로마네스크미술-로마네스끄미술, 로코코미술-로꼬꼬미술’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미술’은 ‘공업미술, 산업미술, 방직미술’ 등과 같은 예를 통해 북측어에서 보다 일관된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다이즘-다다이즘, 모던아트-모던아트’ 등 남과 북에서 외래어 표기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예들도 존재했다.

IV.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1.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1.1. 어종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예술적인 함양은 한 사람의 수양과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된다. 세계 여러 학교에서 음악, 미술 관련 전공이 잇달아 신설되고 음악이나 미술 전문학교까지 설립될 만큼 예술 교육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음악, 미술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음악, 미술 교육의 목적과 내용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는 남측 교육의 실태와 달리 북측은 내용 면에서 사회주의 사상, 충성심, 애국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나 실질적인 학습이 부족하다. 이혜수·현경실(2017), 이경언 외(2018), 승윤희(2017) 등을 비롯한 여러 기존 연구에서 북측의 음악 교육은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김진아·노용(2012), 이수경(2003) 등의 기존 연구에서는 남측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며 자율적인 작품 창작을 발현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놓이는 반면 북측은 사회·정치적 주체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미술을 창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남북 음악, 미술 분야의 통일은 이왕의 여타 교과 분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남북 전문용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학적 기초 연구가 먼저 수행되어야만 내용의 통일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예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는 음악, 미술 교육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겨 두고 본고는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구축과 통합을 위한 언어학적 기초 연구인 어종 분석을 하려고 한다. 어종 분석은 남북 전문용어를 구축함에 있어서 단순히 남북 대응 용어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어종을 분석해야만 어원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남측과 북측의 음악,

미술 교과서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어종이 선호되는지, 어떤 용어들이 기원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과 분야별 어종 특징과 전반적인 남북 전문용어의 흐름과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악, 미술 분야는 보통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서구 이론을 대량으로 받아들인 학문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면 음악 전문용어인 이탈리아어 ‘소나타’, 프랑스어 ‘발레’, 미술 전문용어인 영어 ‘스케치’, 프랑스어 ‘데생’ 등과 같은 용어가 언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핏 보아 외래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단모리장단’, ‘밑그림’과 같은 고유어도 있고 ‘삼부합창’, ‘공기원근법’과 같은 한자어도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으면 음악, 미술 분야에서 어떤 어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또 남측과 북측은 어떤 면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남측과 북측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편수 자료와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용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검수를 받아 목록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음악 전문용어는 총 1,124개이고, 미술 전문용어는 476개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남북 음악 전문용어와 미술 전문용어를 각각 형태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형태가 같은 것과 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형태가 같은 경우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AA형과 부분적으로 동일한 Aa형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고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는 AB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남북 음악, 미술 분야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수학 분야, 과학 분야, 체육 분야, 문법 분야, 문학 분야, 역사 분야의 어종 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남북 교과별 전문용어의 어종 특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2. 남북 음악, 미술 전문용어 유형

형태 동일 여부에 따라 남북 음악, 미술 전문용어를 분류하면 크게 형태가 같은 것과 형태가 다른 것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에 형태가 같은 것은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AA형과 어문 규범에 따른 차이가 있는 Aa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음악과 미술을 분야별로 나누어 유형을 통계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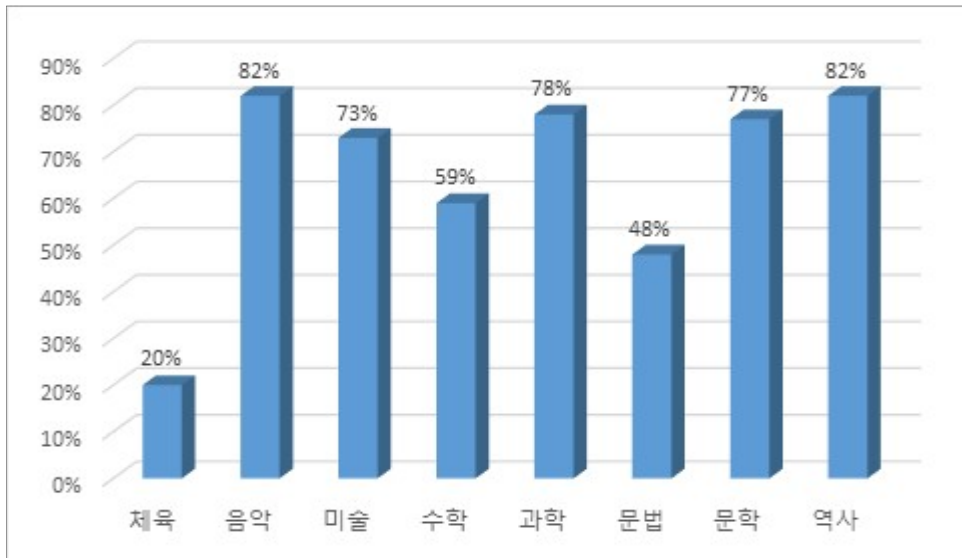
<표 16>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 유형

유형		수량(개)	비율	예시	
				남	북
형태가 같은 것	AA형	802	71%	관현악합주	관현악합주
	Aa형	122	11%	메조피아노	메조피아노
형태가 다른 것	AB형	200	18%	가장조	라대조

<표 17>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 유형

유형		수량(개)	비율	예시	
				남	북
형태가 같은 것	AA형	312	66%	구름법	구름법
	Aa형	33	7%	고딕	고시크
형태가 다른 것	AB형	131	27%	채도대비	색맑기대비

위에서 통계한 바와 같이 음악 전문용어는 총 1,124개 중에 남북 형태가 같은 것이 82%를 차지하고 형태가 다른 것이 18%를 차지한다. 미술 전문용어는 총 476개 중에 남북 형태가 같은 것이 73%, 다른 것이 27%로 나타났다. 다행히 체육 분야와 달리 음악, 미술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남북 분단 이후 음악, 미술 분야는 적어도 용어적인 면에서는 이질적인 변화보다 동질성을 더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동질성은 2015년부터 구축해 온 기타 분야에서도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분야별 전문용어의 AA형 비율

문법과 체육 분야를 제외한 역사, 음악, 과학, 문학, 미술, 수학 등 6개의 분야에서 모두 형태가 같은 용어의 비율이 형태가 다른 용어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통합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문법 분야도 절반에 가까운 용어가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오직 체육 분야에서 남북의 전문용어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남측은 외래어를 북측은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용어의 판정 위계 기준의 고유성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 분야 전문용어도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는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분단의 결과로 인한 이질성도 가지고 있다. 아래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어종을 각각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어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3. 어종 분석의 실제

1.3.1. AA(Aa)형

1.3.1.1. 음악

음악 분야에서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AA형과 형태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Aa형의 어종 유형은 모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등 5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18> 형태가 같은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

유형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AA형	84	553	103	50	10
Aa형	1	42	72	3	4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A형과 Aa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유형은 동일하지만 각 어종별 출현 빈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A형 및 Aa형 음악 전문용어를 각각의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AA형 음악 전문용어

AA형 음악 전문용어는 총 802개로 전체 음악 전문용어의 71%를 차지한다.¹⁵⁾ 각 어종별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 고유어

거문고, 광대, 굿거리, 너름새, 단모리장단, 마디, 모가비, 벼꾸, 술대¹⁷⁾

(2) 한자어

이중창, 삼화음, 각, 계면조, 교방가요, 남려, 농악, 당비파, 범패, 좌창, 회무

(3) 외래어

15) ‘겹술’과 ‘대풍류’는 남측과 북측의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800개의 전문 용어를 대상으로 어종을 살펴보았다. ‘겹술’은 남측에서 순수한 고유어로 처리하고 북측은 고유어+한자어 ‘겹술(-術)’로 처리하였다. ‘대풍류’는 남측에서 고유어+한자어 ‘대-풍류(大風流)’로 처리하고 북측은 한자어로 처리하였다. 어종 정보는 남측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하고 북측은 <<조선말대사전>>에 근거하였다.

16) 본고는 혼종어의 어종 결합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혼종어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순서로 결합하여 표기하였다.

17) 본고의 모든 전문용어 예시는 띄어쓰기를 생략하였으며, AA형은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하나의 용어로 제시하고 Aa형, AB형은 ‘남측어-북측 대응어’ 순서로 제시하였다.

가보트, 레, 론도, 바리톤, 벨칸토, 아카펠라, 아다지오, 옥타브, 튜닝, 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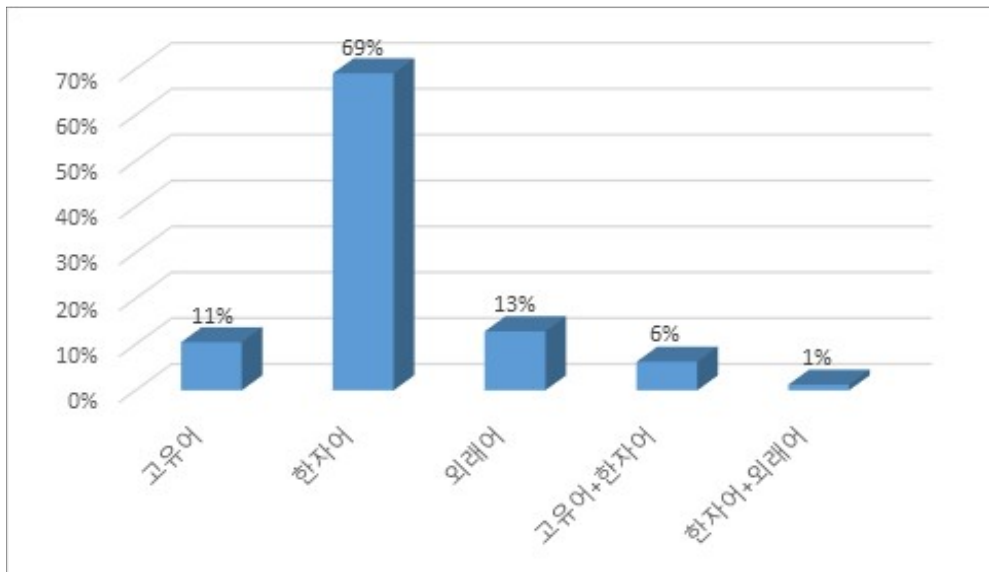
(4) 고유어+한자어

남사당, 내림표, 당피리, 변죽, 사분셈표, 상쇠, 앞선음, 조옮김

(5) 한자어+외래어

리듬악기, 미사곡, 제일바이올린, 피아노삼중주

어종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한자어가 553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외래어 103개, 고유어 84개, 고유어+한자어 50개, 한자어+외래어 10개 순으로 나타난다. 그래프로 출현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AA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한자어가 69%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외래어가 13%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고유어가 11%를 차지하고 고유어+한자어가 6%를 차지하며 한자어+외래어는 1% 미만이다. 대부분의 교과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자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타 교과 분야에서 AA형 한자어의 출현 빈도는 수학 86%, 과학 83%, 체육 46%, 문법 78%, 문학 95%, 역사 95%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음악 분야도 외래어보다 한자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외래어의 출현 빈도가 기타 교과 분야

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기타 교과 분야 AA형 외래어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수학은 1.2%, 과학은 6.6%, 체육은 6.0%, 문법은 0.6%, 문학은 1.0%, 역사는 0.27%로 나타나는데 음악 분야는 외래어가 13%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2) Aa형 음악 전문용어

Aa형은 외래어 표기법,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 남북의 어문 규범 차이로 인해 형태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데 음악 분야에서 총 122개, 11%로 나타났다. 어종별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고유어

뱃노래-배노래

(7) 한자어

고정선율-고정선률, 농현-롱현, 십이율-십이률, 여악-녀악, 육려-륙려, 입창-립창

(8) 외래어

가부키-가부끼, 달세뇨-달쎄니오, 메조포르테-메쵸포르테, 소나타-쏘나타, 색소폰-쌩스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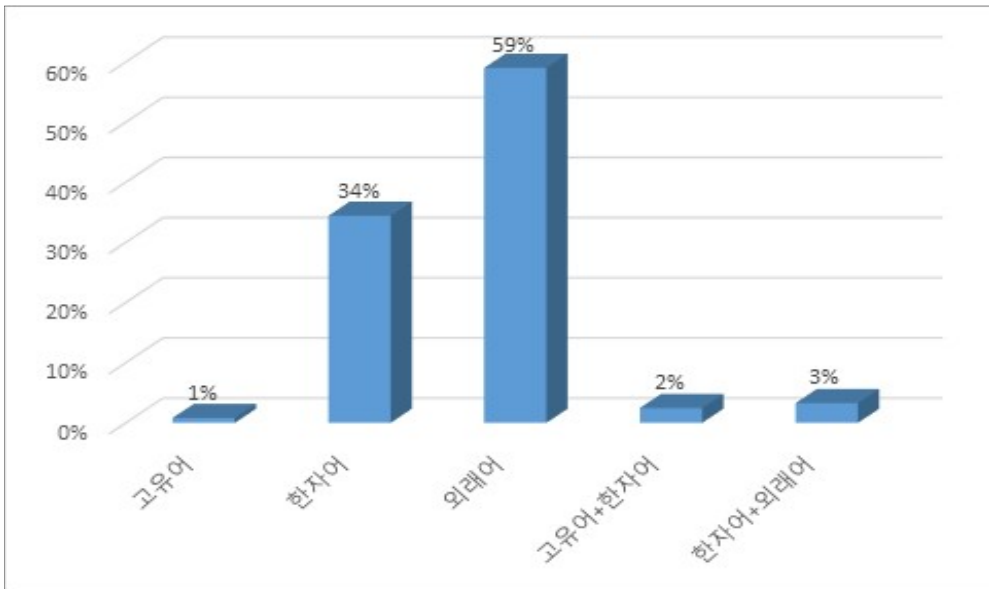
(9) 고유어+한자어

상엿소리-상여소리, 아랫성부-아래성부, 육자배기-륙자배기

(10) 한자어+외래어

낭만주의오페라-랑만주의오페라, 소나타형식-쏘나타형식, 클라리넷협주곡-클라리네트협주곡

Aa형 음악 전문용어를 어종별로 살펴보면 외래어가 72개로 가장 많고 한자어가 42개이며 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는 각각 1개, 3개, 4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4] Aa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외래어가 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자어가 34%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어종은 각각 고유어 1%, 고유어+한자어 2%, 한자어+외래어 3%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Aa형의 유형 특징상 외래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남북 외래어의 수량 차이가 큰 이례적인 체육 분야를 제외하면 음악 분야에서 Aa형 외래어의 비율은 여전히 기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3.1.2. 미술

미술 분야에서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AA형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등 5가지로 어종으로 나타나고 있고 형태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Aa형은 고유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어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9> 형태가 같은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

유형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AA형	9	257	30	10	6
Aa형	0	14	12/13 ¹⁸⁾	6/5	1

1) AA형 미술 전문용어

AA형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등 5개의 어종이 나타난다. 어종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11) 고유어

노리개, 먹빛, 밑그림, 벼루, 붓, 찰흙

(12) 한자어

구도, 금속공예, 단구법, 원근감, 점이, 투시, 판각

(13) 외래어

다다이즘, 라오콘, 모자이크, 스케치, 파스텔, 헬레니즘

(14) 고유어+한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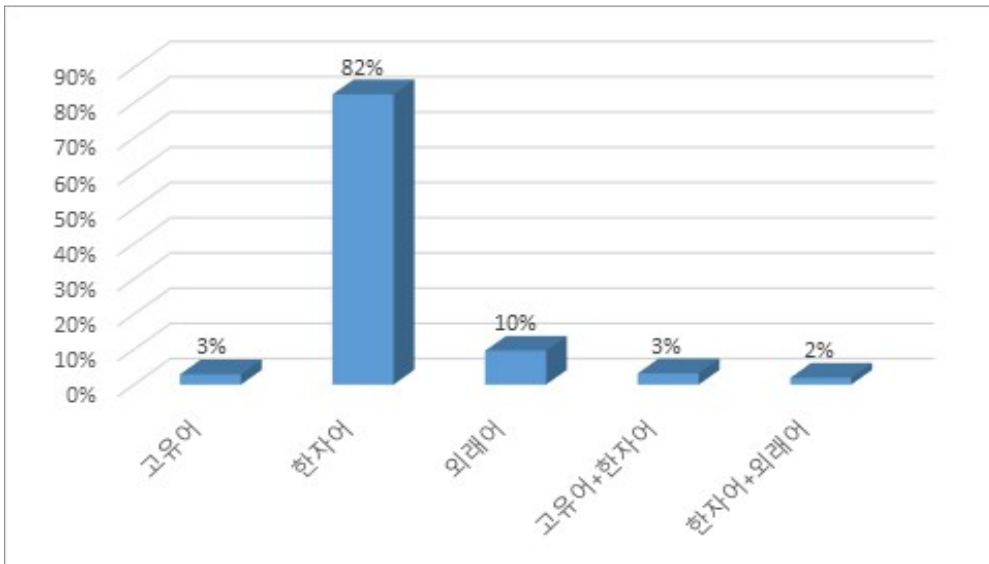
격자무늬, 고무판화, 덧칠, 조각칼, 종이공예, 재벌구이

(15) 한자어+외래어

간다라미술, 바로크미술, 카르나크신전, 파스테논신전, 힌두교미술

남북 미술 전문용어 AA형의 어종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한자어가 25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다음으로는 외래어가 30개, 고유어+한자어가 10개, 고유어가 9개, 한자어+외래어가 6개 순이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남북 전문용어의 어종이 서로 다를 경우 전자는 남측, 후자는 북측으로 표시한다.



[그림 15] AA형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음악 분야 AA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술 분야도 한자어가 가장 높은 비율인 82%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외래어가 10% 가까이 되고 고유어, 고유어+한자어가 3%를 차지하며 한자어+외래어는 2%밖에 안 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같다. 김유진·신중진(2019)에서 남북 분야별 어종 특징을 다루면서 체육 분야를 제외한 수학, 과학, 국어, 역사 분야에서 남북 모두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¹⁹⁾

2) Aa형 미술 전문용어

남북 미술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Aa형은 33개, 7.0%로 나타난다. Aa형에서는 한자어, 외래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등 4개의 어종이 나타난다. 이들의 남북 출현 빈도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한자어

낙관-략관, 낭만주의-랑만주의, 영모도-령모도, 입방체-립방체, 임화-림화

19) 김유진·신중진(2019: 23)에서는 남북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 어종 분석을 다루었다. 그 결과 각 교과 분야에서 ‘한자어’의 어종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체육 분야에서는 남측과 북측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측은 ‘외래어’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고, 북측은 ‘고유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7) 외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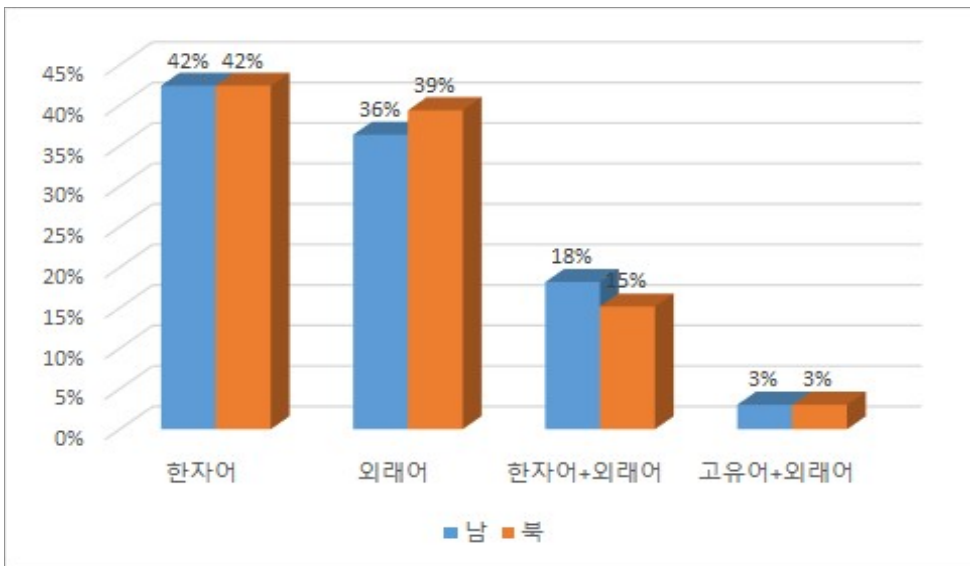
고딕-고시크, 로마네스크-로마네스끄, 모티브-모찌브, 에스키스-에스끼스

(18) 한자어+외래어

고딕미술-고시크미술, 로코코미술-로꼬꼬미술, 아시리아미술-아씨리아미술

(19) 고유어+외래어

밀로의비너스의-미로의비나스



[그림 16] Aa형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남북 미술 전문용어 Aa형의 어종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남북 모두 한자어, 외래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남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14개, 42%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그다음으로는 외래어가 12개, 36%이고 한자어+외래어가 6개, 18%, 고유어+외래어가 1개, 3% 순이다.²⁰⁾ 북측 역시 한자어가 14개, 42%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그다음으로는 외래어가 13개, 39%이고 한자어+외래어가 5개, 15%, 고유어+외래어가 1개, 3% 순이다. 남북 모두 고유어, 고유어+한자어, 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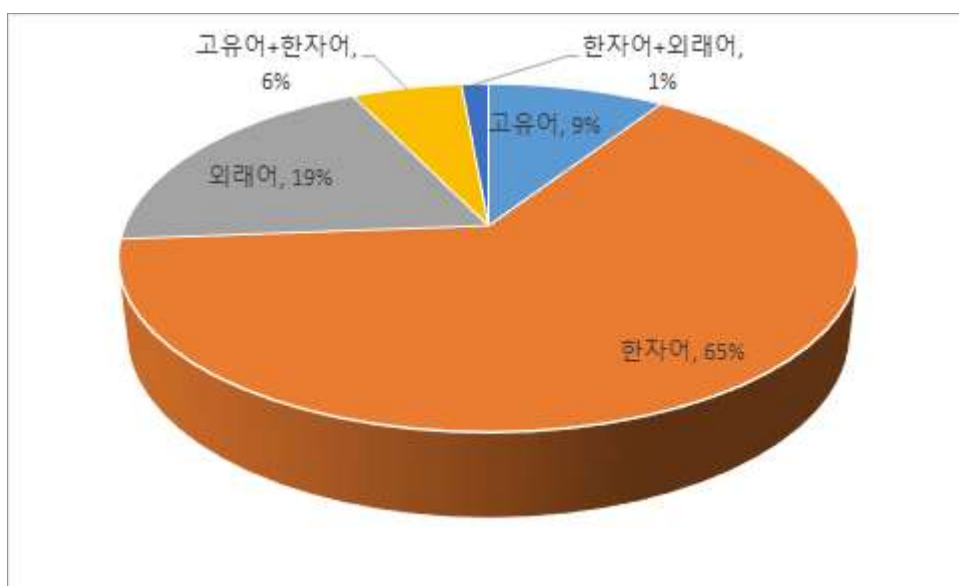
20) 남북 Aa형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은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룽먼석굴-룽문석굴’은 남측은 ‘한자어+외래어’의 혼종어이고, 북측은 ‘한자어’이다.

어+한자어+외래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1.3. 형태가 같은 것의 특징

이제 AA형과 Aa형을 통합하여 남북 형태가 같은 음악,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통합된 음악 전문용어는 전체의 83%를, 미술 전문용어는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 교과 분야와 비교해 보면 음악이나 미술 분야는 남북이 형태가 동일한 용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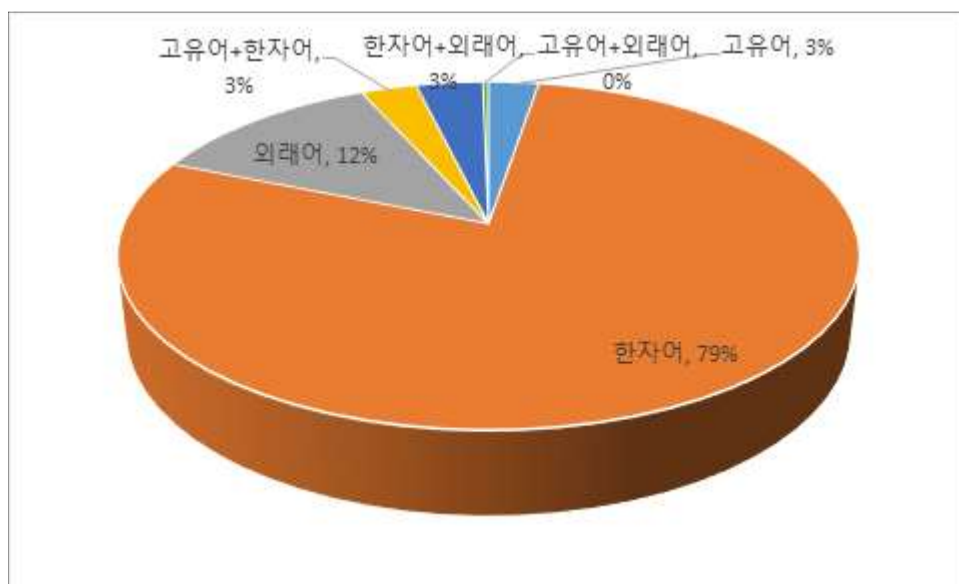
우선 형태가 같은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부터 살펴보면 5가지 어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자어가 595개로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외래어 176개, 고유어 85개, 고유어+한자어 53개, 한자어+외래어 13개 순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7] 형태가 같은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한자어가 65%로 가장 많고 외래어가 19%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며 고유어 9%, 고유어+한자어 6%, 한자어+외래어 1% 순으로 집계되어 수학, 과학, 문법, 문학, 역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자어가 1순위이다. 다만 비율이 70% 미만으로 기존에 연구된 기타 교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외래어의 비중이 기타 분야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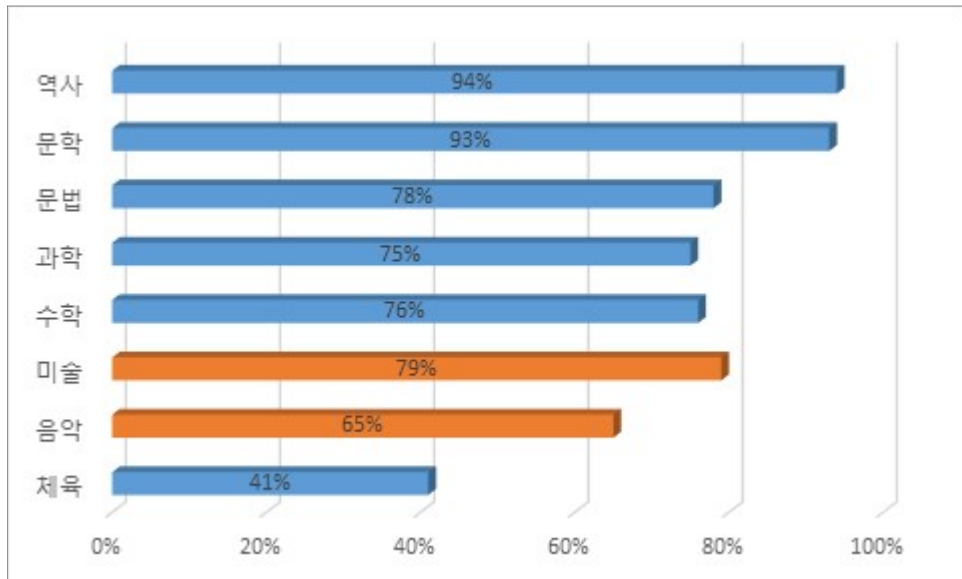
다음 형태가 같은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를 살펴보면 총 6가지 어종 유형으로 음악 분야보다 고유어+외래어의 혼종어가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한자어가 271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외래어가 42개, 한자어+외래어가 12개, 고유어+한자어가 10개, 고유어가 9개, 고유어+외래어가 1개로 나타났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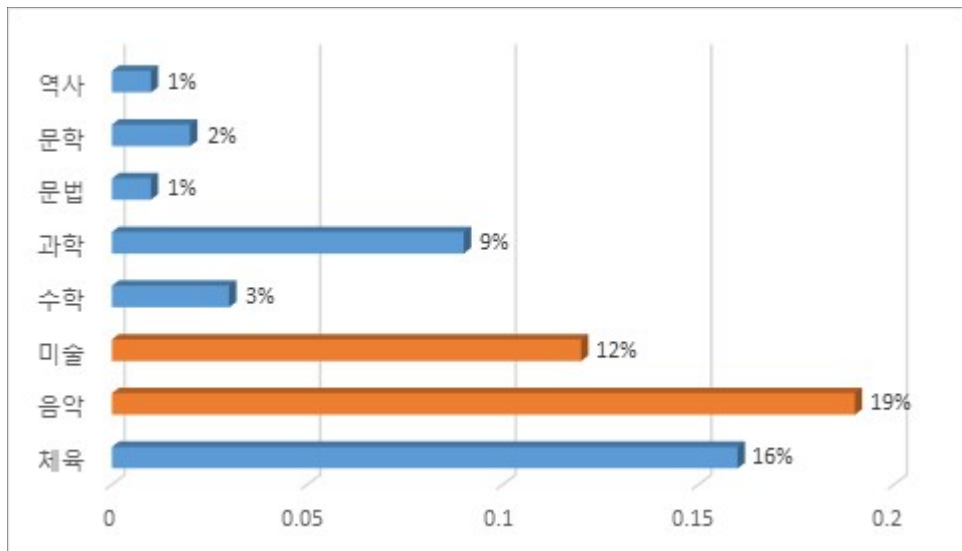
[그림 18] 형태가 같은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미술 분야도 음악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자어가 79%로 가장 많고 외래어가 12%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가 모두 3%에 가까우며 고유어+외래어는 1개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0%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음악이나 미술 분야 역시 체육 분야를 제외한 기타 교과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자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분야 모두 외래어가 2순위로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기타 교과 분야의 한자어 및 외래어와 각각 비교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9] 형태가 같은 남북 전문용어의 분야별 한자어 비율



[그림 20] 형태가 같은 남북 전문용어의 분야별 외래어 비율

그래프를 통해 남북 형태가 동일한 전문용어 중에 한자어의 경우 역사나 문학 분야가 9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체육 분야가 50%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음악 분야는 체육 분야 다음으로 한자어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술, 문법, 수학, 과학은 모두 75%~79% 사이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외래어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그 수량이 전체 어종에 비해 20% 미만으로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음악 분야가 19%로 가장 높고 체육 분야가 16%로 두 번째로 높으며 미술 분야가 12%, 과학 분야가 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학이 3%, 문학이 2%이고 문법과 역사 분야는 1%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¹⁾

1.3.2. AB형

1.3.2.1. 음악

남북 형태가 다른 음악 전문용어는 총 200개로 전체 음악 전문용어의 18%를 차지한다. 우선 남측과 북측의 어종을 각각 살펴본 다음 남북 양측의 어종을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남측 음악 전문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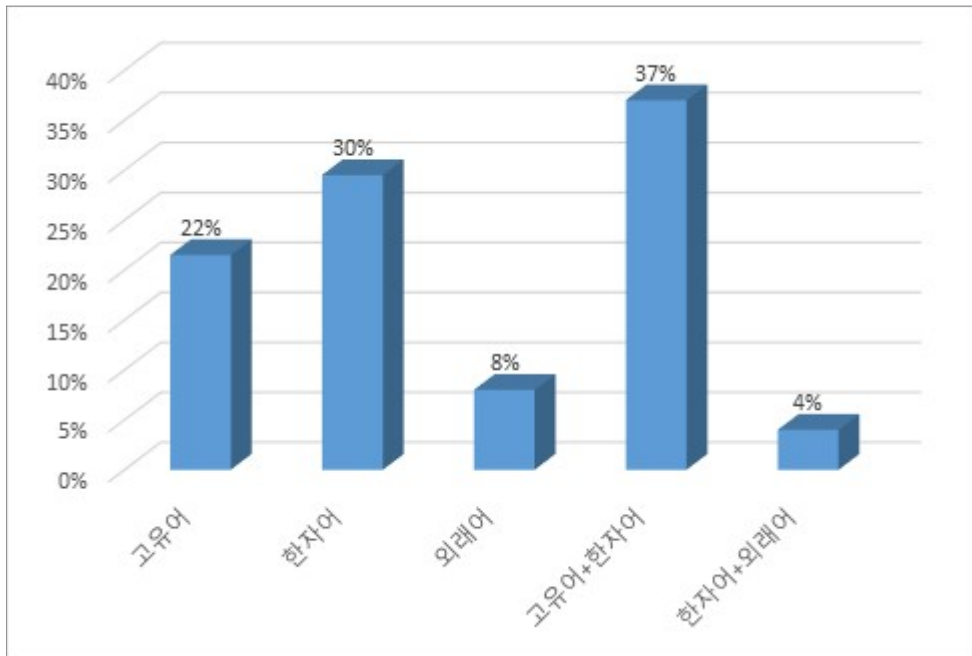
남측 음악 전문용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5가지 어종이 나타나며 고유어+외래어나 고유어+한자어+외래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어종별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AB형 남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비율	예시
AB형 (남)	고유어	43	22%	갈려가기, 여린내기
	한자어	59	30%	단조곡, 연음표
	외래어	16	8%	더블바순, 비브라토
	고유어+한자어	74	37%	꾸밈음, 낮은음자리표
	한자어+외래어	8	4%	빈악파, 전자오르간

21) 여기서 체육 분야가 아닌 음악 분야 외래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연구된, 외래어가 특징적인 체육 전문용어의 어종 특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남북 동일 형태 전문용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분야와 체육 분야는 모두 외래어가 많다는 특징이 있지만 전자는 남북의 동질적인 면에서 외래어를 논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질적인 부분으로 외래어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남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는 특징적이다. 순수 어종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각각 43개, 59개, 16개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혼종어인 고유어+한자어가 74개로 가장 많았다. 한자어+외래어는 8개이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AB형 남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AB형 남측 음악 전문용어는 고유어+한자어가 3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한자어가 30%, 고유어가 22%, 외래어가 8%, 한자어+외래어가 4%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타 교과 분야에서 고유어+한자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외래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체육 분야를 제외한 기타 교과 분야 남측 전문용어는 모두 한자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비율로 따져 보면 음악 분야의 고유어+한자어의 출현 빈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타 교과 분야에서 남측 용어 중에 고유어+한자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역사 분야인데 11%로 음악 분야보다 27%나 낮다. 한편 고유어도 2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고유어+한자어 및 고유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AB형 남측 음악 전문용어에 고유어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남측에서 음악

전문용어의 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계명’을 ‘게이름’으로, ‘장식음’을 ‘꾸밈음’으로, ‘평행조’를 ‘나란한조’로, ‘고음기호’를 ‘높은 음자리표’로 순화한 것처럼 대부분의 고유어+한자어의 예시에서 순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계명’, ‘장식음’, ‘평행조’, ‘고음기호’ 등의 용어가 남측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순화가 완전히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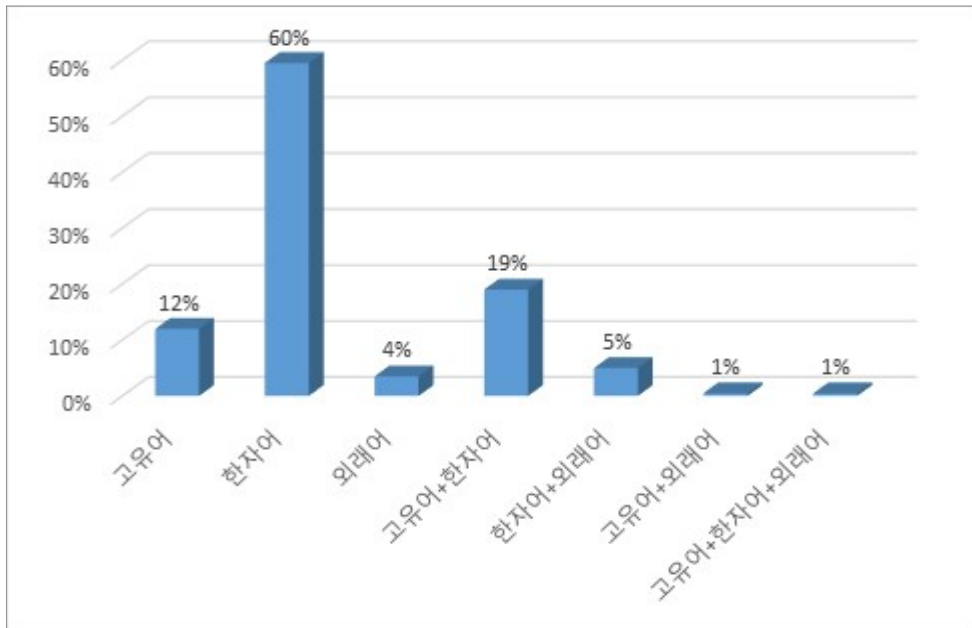
2) 북측 음악 전문용어

북측 음악 전문용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7가지 어종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각 어종별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AB형 북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비율	예시
AB형 (북)	고유어	24	12%	엇가기, 북망치
	한자어	119	60%	소조, 강강수월래
	외래어	7	4%	아리아, 콘트라화고트
	고유어+한자어	38	19%	입풍금, 연소리표
	한자어+외래어	10	5%	라소조, 레대조
	고유어+외래어	1	1%	내림씨
	고유어+한자어+외래어	1	1%	내림미대조

북측 음악 전문용어는 한자어가 119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고유어+한자어 38개, 고유어 24개, 한자어+외래어 10개, 외래어 7개, 고유어+외래어 1개, 고유어+한자어+외래어 1개 순으로 나타난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AB형 북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북측 음악 전문용어는 남측의 경우와 다르게 한자어가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고유어+한자어, 고유어가 각각 19%, 12%로 2위, 3위를 차지하였고 한자어+외래어가 5%, 외래어가 4%, 고유어+외래어와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각각 1%를 차지하였다. 기타 교과 분야와 비교했을 때 북측도 남측과 마찬가지로 고유어+한자어와 고유어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해당되는 예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무리선’, ‘겹내림기호’, ‘잡은중모리’, ‘입풍금’, ‘떨기’ 등의 용어와 같은 순화된 용어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북측에서도 음악 전문용어의 순화 작업을 진행해 왔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단 남북이 서로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순화 대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형태도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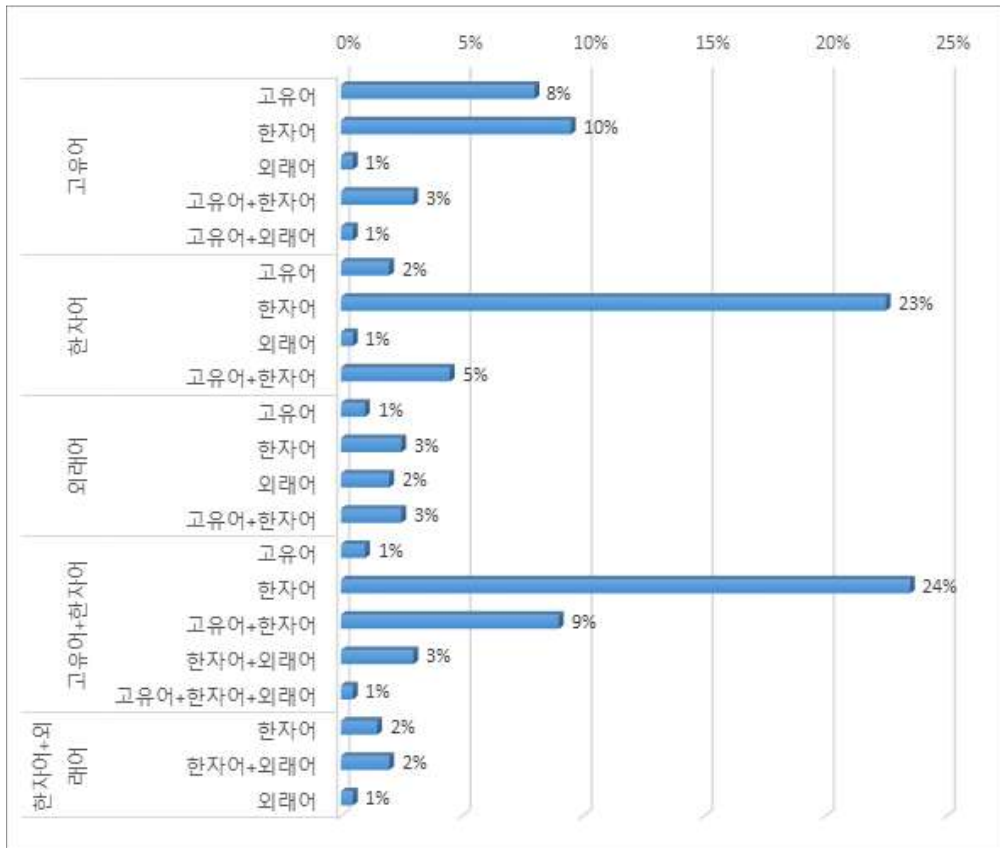
3) AB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 비교 분석

남측과 북측 전문용어를 어종별로 대응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남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을 기준으로 북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20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표 22> AB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유형

남측 어종	북측 어종	빈도(개)	예시
고유어	고유어	16	북채-북망치
	한자어	19	같이가기-병진행
	외래어	1	붙임줄-타이
	고유어+한자어	6	덧줄-덧선
	고유어+외래어	1	내림나-내림씨
한자어	고유어	4	음색-소리빛갈
	한자어	45	단조-소조
	외래어	1	영창-아리아
	고유어+한자어	9	음표-소리표
외래어	고유어	2	비브라토-떨기
	한자어	5	레퀴엠-진혼곡
	외래어	4	바순-화고트
	고유어+한자어	5	리드오르간-입풍금
고유어+한자어	고유어	2	고른음-가락소리
	한자어	47	가온음-중음
	고유어+한자어	18	가락단음계-가락소조계
	한자어+외래어	6	가단조-라소조
	고유어+한자어+외래어	1	내림마장조-내림미대조
한자어+외래어	한자어	3	소나타형식-제일악장형식
	한자어+외래어	4	빈고전파-빈고전주의
	외래어	1	아르페지오기법-아르페지오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남북 어종별 대응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한자어↔한자어와 고유어+한자어↔한자어로 각각 45개, 47개가 나타난다. 그다음 고유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고유어↔고유어가 각각 19개, 18개, 16개로 나타나며 기타 대응 유형은 10개 미만이다. 각 대응 유형의 출현 빈도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AB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빈도

그래프를 통해 고유어+한자어↔한자어가 24%, 한자어↔한자어가 23%로 기타 어종 대응 유형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어종의 대응은 남측과 북측의 특징적인 용어에 의한 것도 있고, 남측과 북측의 순화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남측어 ‘음색(한자어)’와 북측어 ‘소리빛갈(고유어)’의 대응, 남측어 ‘음표(한자어)’와 북측어 ‘소리표(고유어+한자어)’의 대응 그리고 남측 교과서만 나타나는 고유어로 된 음이름과 북측 교과서만 나타나는 라틴어로 된 계이름 등에 기인할 수 있다.

1.3.2.2. 미술

AB형 남북 미술 전문용어는 131개로 전체 용어의 27.5%를 차지한다. 남측과 북측의 어종을 각각 살펴본 다음 남북 양측의 어종을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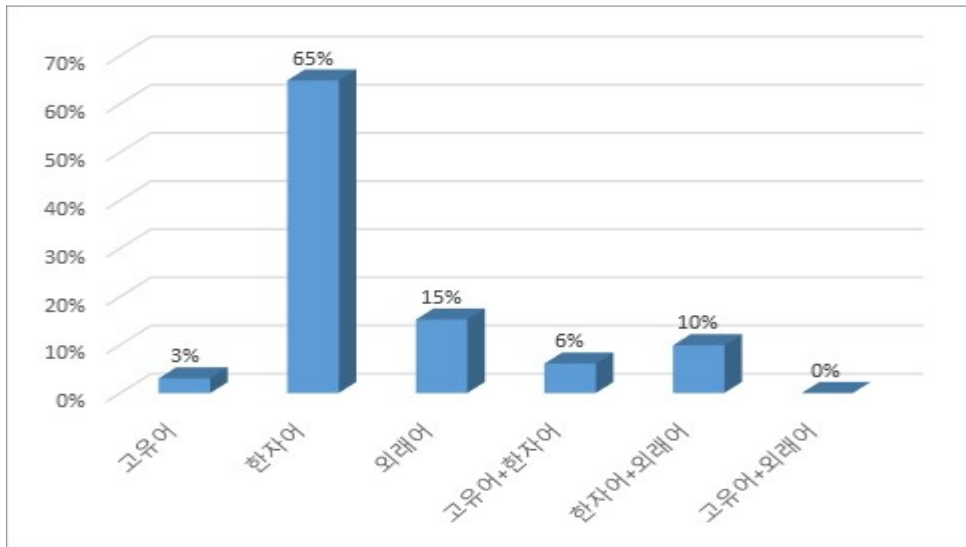
1) 남측 미술 전문용어

AB형 남측 미술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남측 어종 유형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등 모두 6개의 어종이다. 이들의 빈도와 비율,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AB형 남측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비율	예시
AB형 (남)	고유어	4	3.1%	물감, 찰흙
	한자어	85	64.9%	색상환, 진경산수화
	외래어	20	15.3%	매스, 팔레트
	고유어+한자어	8	6.1%	돌림판, 블록판화
	한자어+외래어	13	9.9%	랭스대성당, 리놀륨판화
	고유어+외래어	1	0.7%	포스터물감

남측 미술 전문용어도 한자어가 85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형태가 동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래어가 20개로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유어+외래어 13개, 고유어+한자어 8개, 고유어 4개, 고유어+외래어 1개의 순이다.



[그림 24] AB형 남측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남북 미술 전문용어 AB형에 나타나는 남측 어종 유형은 한자어가 65%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외래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 고유어+외래어가 각각 15%, 10%, 6%, 3%, 0% 순이다. 한자어를 제외하면 외래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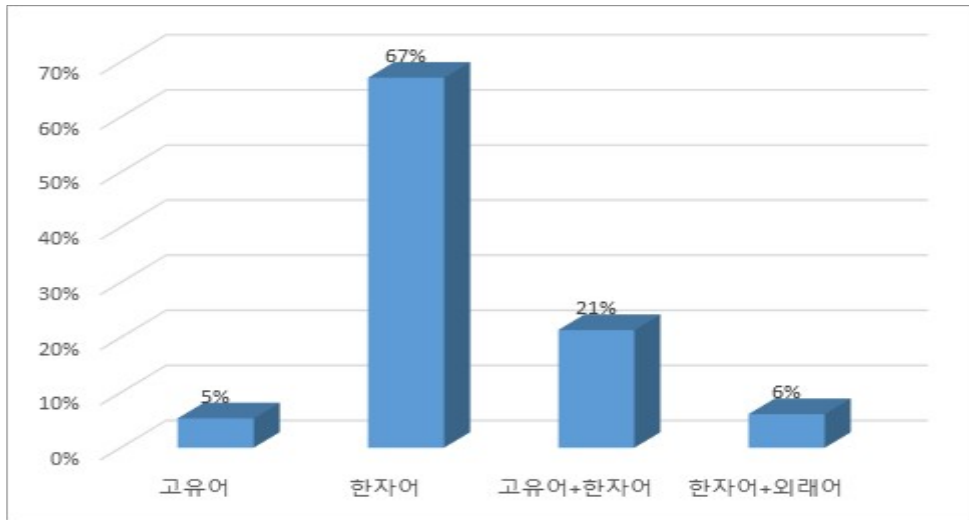
2) 북측 미술 전문용어

AB형 남북 미술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북측 어종 유형은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등 모두 4개의 어종이다. 이들의 빈도와 비율,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AB형 북측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비율	예시
AB형 (북)	고유어	7	5.3%	붓발, 덩어리
	한자어	88	67.2%	상상화, 실경산수
	고유어+한자어	28	21.4%	머리상, 나무공예
	한자어+외래어	8	6.1%	란스사원, 비닐판화

AB형 북측 미술 전문용어는 상술한 4가지 어종이 고유어 7개, 한자어 88개, 고유어+한자어 28개, 한자어+외래어 8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래어나 외래어를 결합한 혼종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AB형 북측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출현 빈도

남북 미술 전문용어 AB형에 나타나는 북측 어종 유형은 남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자어가 67%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가 각각 21%, 6%, 5% 순이다. 한자어를 제외하면 고유어+한자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남측에서는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외래어가 북측에서는 단독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AB형 남북 미술 전문용어 비교 분석

남북 미술 전문용어 AB형의 대응 유형은 모두 14개로 나타난다. 그중 남북의 대응 어종이 동일한 것은 4개이고, 다른 어종과 대응 유형을 이루는 것은 10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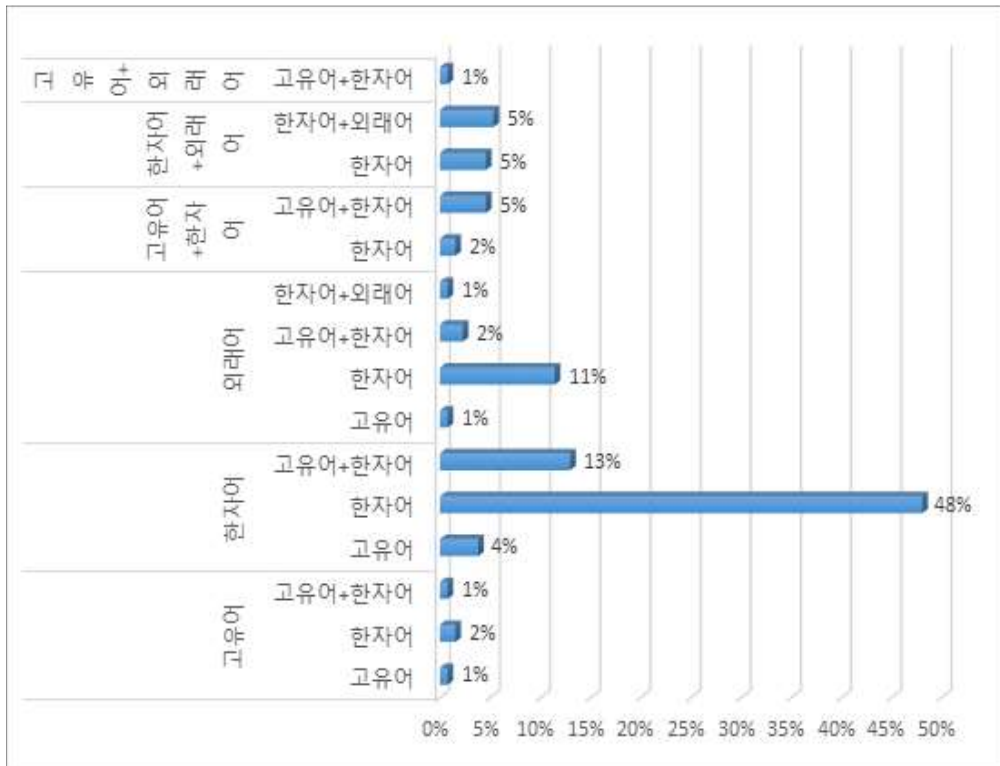
같은 어종 대응 유형은 고유어↔고유어, 한자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한자어+외래어 등 4개이다. 다른 어종 대응 유형은 고유어↔한자어, 고유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외래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 외래어↔고유어+한자어, 외래어↔한자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한자어 등 10개이다.

각각의 대응 유형과 빈도,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AB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유형

남측 어종	북측 어종	빈도(개)	예시
고유어	고유어	1	붓말이개-붓발
	한자어	2	찰흙-점토
	고유어+한자어	1	물감-색감
한자어	고유어	5	도화지-그림종이
	한자어	63	한국화-조선화
	고유어+한자어	17	석판화-돌판화
외래어	고유어	1	매스-덩어리
	한자어	15	그리드-방안선
	고유어+한자어	3	팔레트-겉판
	한자어+외래어	1	루브르-루브르미술박물관
고유어+한자어	한자어	2	돌림판-록로기
	고유어+한자어	6	블록판화-돌을판
한자어+외래어	한자어	6	리듬감-룰동
	한자어+외래어	7	아미앵대서당-아미안성당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	1	포스터물감-선전화색감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대응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한자어 ↔한자어 대응 유형으로 63개이다. 그다음으로는 한자어↔고유어+한자어가 17개, 외래어↔한자어가 15개 등의 순이다. 위의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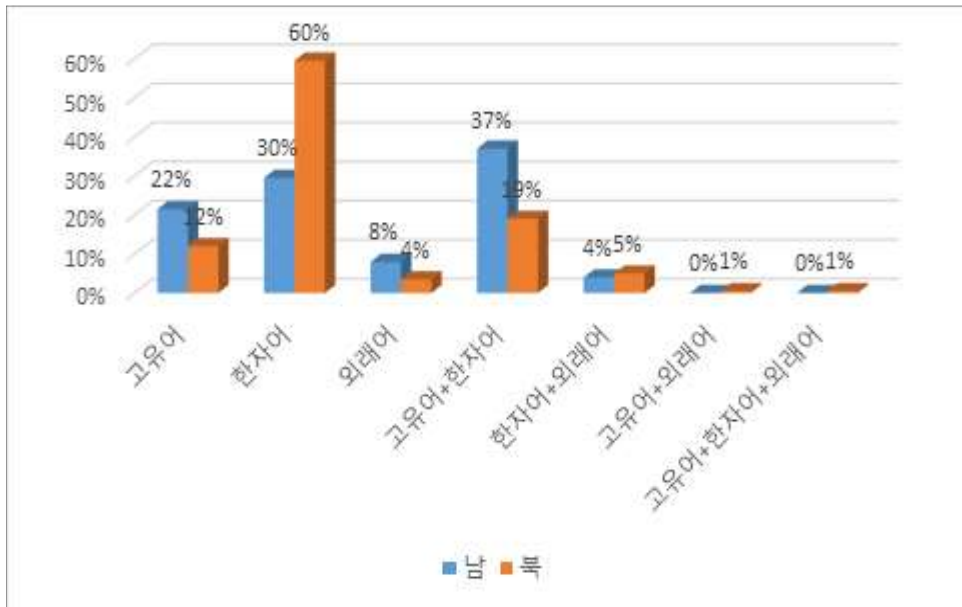


[그림 26] AB형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대응 빈도

한자어↔한자어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한자어↔고유어+한자어가 13%, 외래어↔한자어가 11%로 그 뒤를 이었다. 한자어+외래어↔한자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가 각각 5%를 차지하고 한자어↔고유어가 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어종 대응 유형은 모두 2% 이하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타 어종 대응 유형과 비교하면 한자어↔한자어의 대응이 상당히 많고, 다음 한자어↔고유어+한자어나 외래어↔한자어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2.3. 형태가 다른 것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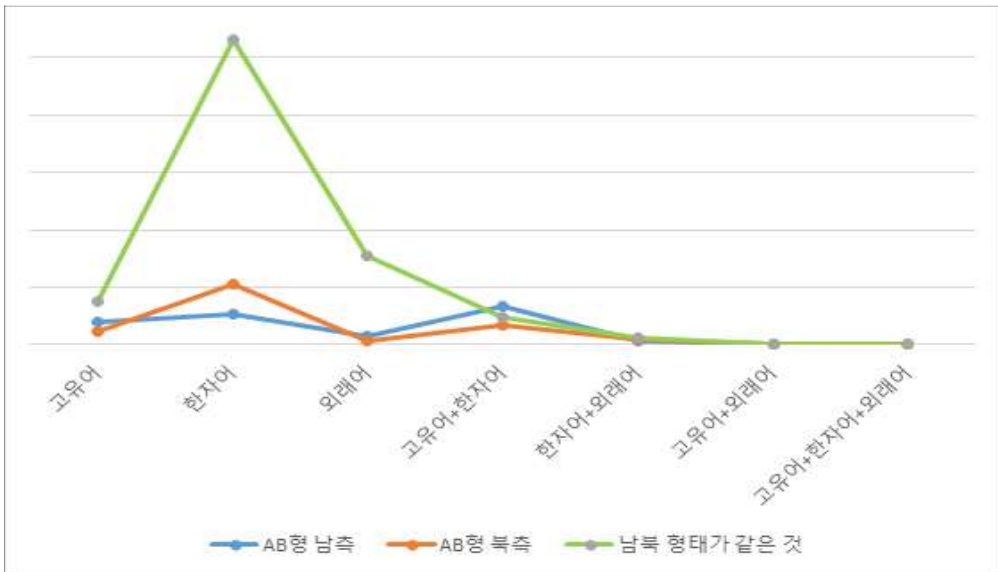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남북 어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어휘 기원의 측면에서 남북 음악, 미술 전문용어가 이질성이 나타난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림 27] AB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위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 음악 전문용어에서 어종 차이가 가장 뚜렷한 것은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로 각각 30%, 18%, 10%씩 차이가 난다. 빈도수를 따지고 봐도 남북이 다르게 사용하는 음악 전문용어 중에 한자어가 가장 많고, 다음 고유어+한자어, 고유어가 기타 어종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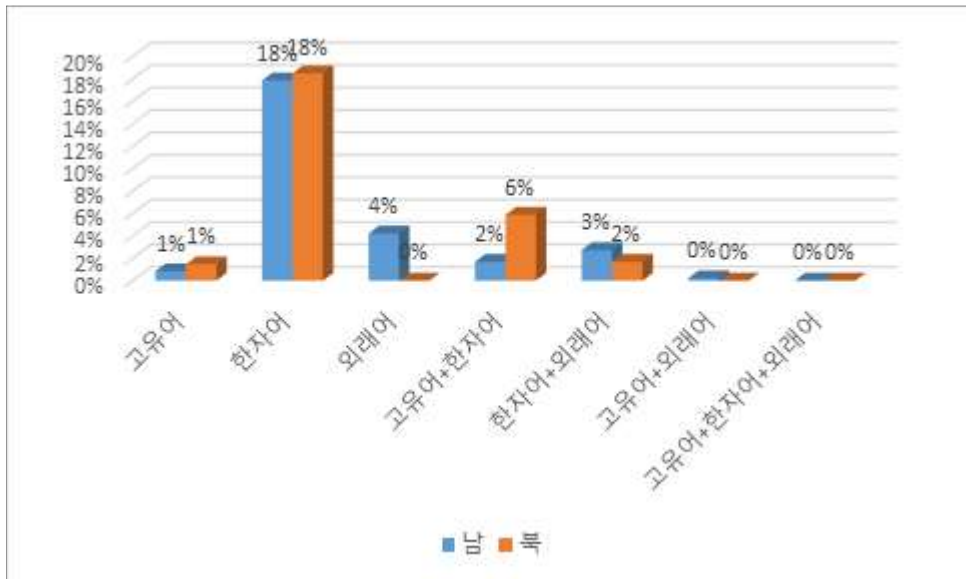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 음악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형태가 다른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남측 및 북측 각각의 어종과 형태가 같은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을 함께 비교하기로 한다. 즉 분석 대상을 전체 음악 전문용어로 하고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전체 어종 분포

음악 분야에서 남북이 모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한자어이며, 특히 북측이 남측보다 한자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남북은 모두 외래어를 한자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한자어의 경우와 달리 외래어의 비율은 남북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어의 경우도 남북이 동일한 형태의 용어를 외래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남측이 북측보다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유어+한자어도 남측이 전반적으로 북측보다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어든 외래어든 고유어든 남북이 형태가 같은 경우가 형태가 다른 경우보다 많으며 상대적으로 북측은 한자어를 더 선호하는 반면 남측은 고유어와 고유어+한자어를 더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상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남측과 북측에서 형태가 다른 경우의 어종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AB형 미술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AB형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경우, 외래어나 고유어+한자어에서 남북이 상대적으로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기타 어종은 모두 차이가 미미하다. 남측은 외래어가 4%인 반면 북측은 0%이고, 남측은 고유어+한자어가 2%인 반면 북측은 6%로 각각 4%씩 차이가 난다.

다음 전체 미술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어종을 비교하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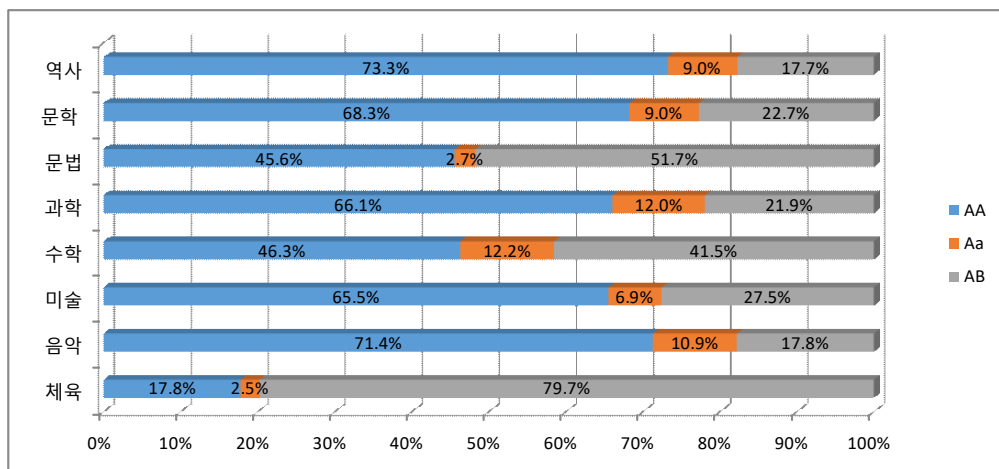
[그림 30] 남북 미술 전문용어의 전체 어종 분포

남북 미술 전문용어도 음악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모두 한자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술 분야는 음악 분야와 달리 남북의 한자어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외래어의 경우는 남북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남북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기타 어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으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측이 북측보다 외래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전체 고유어+한자어의 비율은 북측이 남측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술 분야에서 남북은 모두 한자어를 선호하되 상대적으로 남측은 외래어를, 북측은 고유어+한자어를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4. 종합적 어종 분석

1.4.1.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 유형 특징

국립국어원과 한양대학교는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5년은 수학과 과학, 2016년은 체육, 2017은 문법과 문학, 2018년은 역사, 2019년은 음악과 미술 용어를 수집하고 목록을 구축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31] 남북 교과별 전문용어 유형 빈도

체육 용어에서는 AB형이 79.7%로 AA형에 비해 압도적인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AA형은 17.8%, Aa는 2.5%로 나타났다. 반면, 음악과 미술 용어는 모두 형태가 같은 AA형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음악 용어는 AA형이 71.4%, 미술 용어는 AA형이 65.5%로 나타났다. 음악 용어의 AA형이 미술 용어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수학 용어 역시 AA형이 46.3%로 AB형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과학의 경우 AA형이 66.1%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어 용어에서 문법 용어는 남과 북에서 차이를 보이는 AB형이 51.7%로 AA형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문학 용어는 남과 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AA형이 68.3%로 나타났다. 역사 전문용어에서는 남과 북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AA형이 73.3%로 AB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교과 분야에서 남과 북의 전문용어는 형태가 같은 AA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학과 역사 등의 자생적 학문 분야에서 그 빈도가 높은 것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외국에서 들어온 내용이 많은 체육 분야에서 남과 북의 형태적 이질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2.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 어종 특징

남북 교과 분야별 어종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육 분야에서는 남측과 북측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측은 외래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나, 북측에서는 한자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남측은 고유어+외래어와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어종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북측은 7개의 어종이 모두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음악 분야 전문용어 역시 남북 모두 한자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남측에서는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북측에서는 7개 어종이 모두 나타났다. 미술 분야 전문용어에서도 남북 모두 한자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남측어에서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어종만 나타나지 않았으나, 북측어에서는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어종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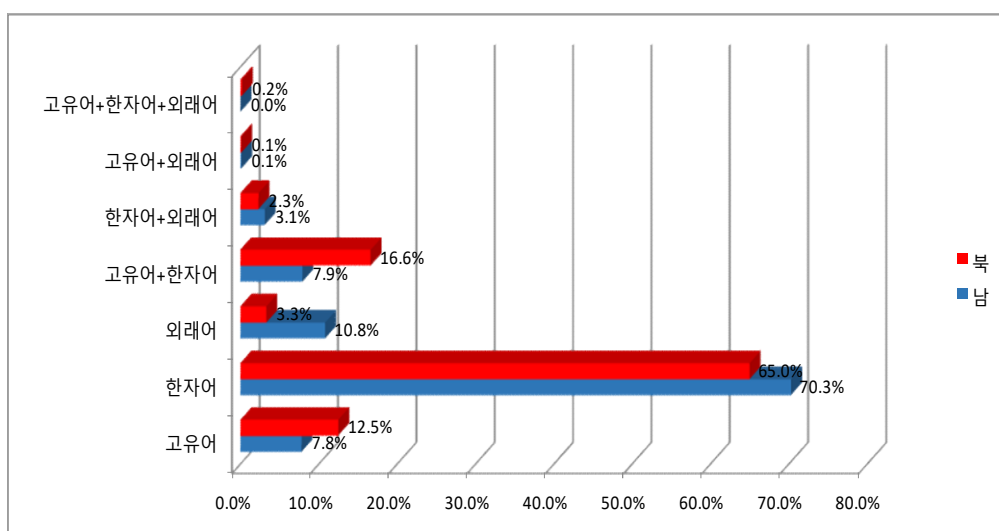
수학 분야를 살펴보면, 남북 모두 한자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또한, 고유어+외래어와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어종은 남북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 분야 역시 남북 모두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북 모두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어종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어 전문용어의 문법 분야에서는 남북 모두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측에서는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어종이 나타나지 않았

다. 북측에서는 고유어+외래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학 분야에서도 남북 모두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측에서는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북측에서는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역사 분야 전문용어 역시 남북 모두 한자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남측에서는 고유어+외래어와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고유어+외래어의 어종만 나타나지 않았다.²²⁾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교과별 어종 출현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남북 교과별 전문용어 어종 출현 빈도

남북 교과별 어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에서 남북 모두 한자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문법,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등 7개 분야를 모두 살펴본 결과이다. 남과 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종이 일치한다는 점은 향후 전문용어의 통합 과정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²³⁾

22) 김유진·신중진(2019: 23-25)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남북 전문용어 어종에 대해 교과 분야별, 어종별, 빈도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3) 김유진·신중진(2016: 155)에서 남과 북의 어종 차이에 대해 남한은 대체적으로 전문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다면,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한자어’ 또는 ‘고유어’의 모습으로 바꾸어 우리나라식 전문용어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남북의 통합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과 논의되어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남북의 외래어 출현 빈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측은 체육 용어와 과학 용어에서 외래어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 북측은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의 개방성과 폐쇄성에도 연결된다. 체육 분야는 다른 교과 분야와 달리 종목명을 비롯하여 규칙 등 외래어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대부분의 체육 종목이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점, 별도의 순화 작업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남측 체육 분야의 외래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과학 분야 역시 자생적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에서의 외래어 사용 빈도가 높았다. 남측 과학 분야에서는 한자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다음 순서는 외래어와 한자어+외래어가 동일한 빈도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측의 경우 최대한 고유어 또는 한자어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세계적 공통 용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 전문용어의 해석 방법 차이 또는 오류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남북 모두 혼종어의 출현 빈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어+한자어를 제외한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등의 출현 빈도는 전체 어종에서 미미한 빈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간결성의 특징을 갖는 전문용어의 특징과 여러 어종이 함께 나타나는 혼종어의 특징이 상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⁴⁾ 또한, 남북 어종 출현 양상에서 편향성이 보이기도 한다. 남측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등의 고빈도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어종의 출현 비율은 낮다. 반면 북측어는 비율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체육과 음악 분야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등 7개 어종이 모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조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먼저 밝히고

24) 김유진·신중진(2016): 68-69)에서는 남북 심화 전문용어의 공통된 특징으로 유사성, 간결성, 평이성을 다룬 바 있다. 유사성은 남북의 AA형과 AB형에서 동일 구조, 동일 어종, 동일 어종 결합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간결성은 남북 모두 전문용어의 투명한 전달에 있어 간결한 형태를 선호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이성에서 보면, 심화 전문용어의 구성은 기초 전문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의미와 범주를 파악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들었다.

조어 분석 단위를 설정한 후에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1.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전문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개념적 단위를 이루는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들이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문용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의 형태 구조,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우리말과 외래어가 결합한 어휘 체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전문용어 구성 요소들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현상들에 접근하고,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에 대한 조어 분석이 필요하다.

조어 분석이란 전문용어의 형태 분석을 의미한다. 언어학에서 ‘단어’ 단위에 대한 형태 분석은 대체로 형태소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문용어에서의 형태 분석은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형태소를 기본 단위로 삼아 분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어의 형태를 분석할 때에는 먼저 전문용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태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은경(2001)에서는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연구하면서, 전문용어를 조어 분석하면 ‘전문용어는 일반 어휘와 달리 어떤 어휘·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는 어떤 어휘적 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지’, ‘특정 용어가 쓰이는 분야와 인접 분야의 용어들 간에는 어떠한 어휘·형태적 특성이 공유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조은경 2001: 2).

배선미·시정곤(2004)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한국어 핵심 용어의 조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분야에서 쓰이는 핵심 용어의 조어 단위 유형을 파악하고 각 조어 단위의 조어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전문용어 추출, 전문용어 교차 정렬 및 검색, 자동 음차 표기, 전문용어의 기계 번역, 전문용어의 용어 구성 정보를 이용한 전문성 측정, 온톨로지 구축, 전문용어의 정의문 추출 등 여러 전문용어 응용 시스템 및 자동 조어 분석기를 개발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였다(배선미·시정곤 2004: 192). 이처럼 조어 분석은 전문용어 목록을 자동 구축하고 응용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어 분석을 통해 전문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이현주 외(2007)에서는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용어 조어의 특성과 번역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복합 용어를 살펴보면 그 구성 요소 중에 여러 분야의 전문용어 조어에 많이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렇게 용어 형성에 관여하는 어휘 요소들을 전문용어 형성소라 부를 수 있으며,

형성소의 목록을 구축하는 것은 전문용어 번역과 조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현주 외(2007)에서는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을 통해 용어 형성에 관여하는 요소들의 목록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전문용어 번역과 표준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이현주 외 2007: 20).

이처럼 조어 분석은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밝히고, 전문용어를 과학 기술적으로 정보화하며, 번역의 형식화와 조어의 표준화 작업에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목적과 더불어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서 조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때문에 국내 전문용어 연구의 흐름은 용어 표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도 궁극적으로는 용어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용어를 조어 분석하는 일은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되는 구성 요소를 비교함으로써 통합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엄태경(2015)에서는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에 대한 조어 분석을 실시하여 접사 조어 단위 및 고빈도 조어 단위를 통한 통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신중진 외(2015, 2016, 2017, 2018)에서도 남북의 자연과학, 체육, 국어, 역사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조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은 용어 형성 방식과 유형을 제공하므로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조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조어 분석의 실제

2.2.1. 조어 분석의 단위

전문용어를 형태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조은경(2001: 18)에서는 “하나의 전문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말을 만드는 최소 형식인 형태소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된 어휘 모두를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용어 분석에서는, 전문용어의 형성에 이용되는 기초적인 요소이자 서로 다른 용어들 간에 공유되는 생산적인 요소이며, 형태소보다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단위이자 전문용어를 형성하는 단위로서 ‘조어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조은경 2001: 20).

일반 단어의 형태 분석에서는 기본적인 분석 단위를 형태소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끄럼틀’을 분석하면, ‘미끄러(<미끄럼)’, ‘-口’, ‘틀’과 같이 세 개의 형태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는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미끄

럼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미끄러-’에 ‘-ㄱ’이 결합하여 ‘미끄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틀’이 결합하여 ‘미끄럼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분석의 단위와 형성의 단위가 항상 같지만은 않다. 하지만 조은경(2001: 20)에서는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단위와 형성하는 단위를 동일시하고 있다. 즉 용어 형성의 관점에서 용어 분석 단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조은경(2001)이 설정한 ‘조어 단위’의 개념과 설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²⁵⁾

<표 26> 조은경(2001: 22-28)에서의 조어 분석 방법

방법	설명	예시
1. 일반 어휘로 형성된 것	· 전문용어의 특수한 조어 양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일반어로 일차적 형성이 된 어휘를 분석하지 않는다.	· 펼친-그림 → 펴/ㄷ/치 /ㄴ/그리/ㄱ ⇒ 펼친/그림 · 나란히-각 → 나란/히/각 ⇒ 나란히/각
2. 한자어 조어력으로 형성된 것	· 1음절 한자어에 한자어 접사가 결합한 형태로 쓰이는 것은 국어 어휘로서 2음절 구성이 보다 안정적이므로, 여기는 2음절이 기본이 되도록 분석한다.	· 공적독점 → 공적/독점 · 사적독점 → 사적/독점
3. 한자어 접사	· 한자어 접사는 하나의 용어를 형성함에 있어 그 용어의 개념 형성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립적 단어와 분리성을 갖는 하나의 조어 단위가 된다.	· 가/처분, 가/지급, 원자/력, 원심/력 등
4. 어근적 형태소	· 전문용어의 개념 형성 요소로 기능하는 고유어의 어근을 하나의 조어 단위로 인정하여 분석한다.	· 움직/씨, 둥글/수 등
5. 의미적 투명성이 없는 형태소 결합	· 형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라도 용어의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분석의 의의가 낮다.	· 삼일오/정부통령/선거 · 삼에스/정책(三S政策)

25) 이전의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정비 사업에서 실시한 조어 분석은 조은경(2001)의 방법론에 따라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검토를 위해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6. 약어나 복합 단위의 준말	· 약어나 복합 단위의 준말은 또 다른 용어의 어기로 이용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복원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 정통령부통령>정부통령 → 정부통령/선거
7. 용언의 활용형, 명사 파생접사, 파·사동 접사	·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되는 어휘의 활용형은 대체로 제한된 쓰임을 보인다.	· 고른/값, 고른/수, 꺾은/금, 꺾은/선, 기울기, 기울기/표, 기울기/자
8. 외래어, 고유어·한자어의 경계	· 외래어와 우리말(한자어 포함)의 결합은 그 경계에서 분석한다. · 외래어끼리 결합된 것은 대응하는 우리말로 대치되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우리말 속에서의 어휘적 가치를 띠고 있을 경우에 분석한다.	· 데이터베이스/화 · 데이터/파일 · 마이크로/파

이 연구에서는 조은경(2001: 1-28), 신중진 외(2017: 58-60)의 조어 분석 단위와 조어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어 분석 단위를 설정한다.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에 사용된 품사 표지는 다음과 같다. 원어는 ‘고유어: ko(korean), 한자어: ch(chinese), 한자어(고유어)+고유어(한자어): sk(sino-korean), 인도유럽외래어: ie(indo-european), 몽골어: mo(mongol)’ 등으로 설정하였다.

<표 27>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품사 표지

형태·품사		표지	형태·품사		표지
기호, 숫자		sy	용언	기본형	vb
표지 보류		tt		명사형, 명사파생접미사 결합형	vn
명사 류	보통명사	nc		관형형	va
	대명사	np		연결형	vc
	고유명사	npp	조사		pa
	의존명사	nb	체언 이외의 외래어	형용사, 부사	af
	수사	nu		동사	vf
	아라비아숫자 포함 명사	nu-cc		전치사	pf
관형사		an		접속사	cf
부사		av		접사	xf
접사	접두사	xp	단일 단위 준말		표지-c
	접미사	xs	복합 단위 준말		표지-cc
어근적 형태소		mm	약어		acn

조어 분석 이후 각각의 조어 단위는 형태·품사 표지와 원어 표지를 달게 된다. 예를 들어 ‘겹^세^도막^형식’이라는 용어는 분석을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얻는다.

<표 28> ‘겹^세^도막^형식’의 분석 예시

조어 단위 1	분석 표지 1	조어 단위 2	분석 표지 2	조어 단위 3	분석 표지 3	조어 단위 4	분석 표지 4
겹	xp/ko	세	an/ko	도막	nc/ko	형식	nc/ch

분석 표지 중 빗금 앞의 것은 형태·품사를 표시하고, 뒤의 것은 원어를 표시한 것이다. 즉, ‘xp/ko’는 ‘고유어인 접두사’를 의미하며, ‘nc/ch’는 ‘한자어인 보통명사’를 나타낸다.

2.2.2. 조어 분석의 결과

2.2.2.1. 음악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1) 형태 유형별 분포

남북 음악 분야 전문용어는 남북 용어의 일치도에 따라 ‘AA형’, ‘Aa형’, ‘AB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일 개념에 대해 양측이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AA형, 맞춤법과 관련한 부분만 다르고 동일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a형,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B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Aa형은 AA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남측과 북측이 대응되는 용어는 총 1,124개가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각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29> 음악 분야 전문용어 유형

유형		예(남-북)	개수 (백분율)
AA	AA	가락-가락, 마디-마디, 실내악-실내악 등	802개 (71.4%)
	Aa	낭만파-랑만파, 모차르트-모짜르트, 테너-테노르 등	122개 (10.9%)
AB		가단조-라소조, 어울림화음-협화화음, 임시표-림시기호 등	200개 (17.8%)

AA형과 Aa형은 남북의 전문용어가 동일 개념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가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음악 분야의 전문용어에는 이러한 유형이 924개에 달한다. 그리고 동일 개념에 대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AB형은 200개가 출현하였다. 즉, 남북 역사 용어는 82%가 넘는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의 음악 전문용어를 모두 더하면 1,324개이다.²⁷⁾ 이를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라 유형화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

26) Aa형에 포함되는 용어들은 ‘외래어 표기, 두음 법칙, 음 표기’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외래어 표기 방식이 달라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글리산도-글리싼도, 달세뇨-달쎄니오, 리스트-리스뜨’ 등이 있으며, 두음 법칙으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낭만파-랑만파, 선율-선률, 농음-롱음’ 등이 있다. 그 밖에 음의 표기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용어로는 ‘벃노래-베노래’ 등이 있다.

를 보였다. 아래 표는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른 전문용어의 개수와 그 예이다.

<표 30> 음악 분야 조어 단위 길이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	개수	백분율	예
1개	619	46.8%	득음, 라르고, 호른, 리듬, 뜯기, 목탁, 무대 등
2개	543	41.0%	섬^표, 세^피리, 도움^음, 건반^악기, 발전^부 등
3개	133	10.0%	한^도막^형식, 단^삼^화음, 낭만^주의^음악 등
4개	29	2.2%	같은^으뜸^음^조, 복합^이^부분^형식 등
합계	1,324	100%	조어 길이 1.68

위와 같이, 음악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1개의 조어 단위부터 4개의 조어 단위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전문용어 하나당 결합된 조어 단위의 길이는 1.68이다.²⁸⁾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가 길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 분야의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1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개로 구성된 용어가 전체 분포의 46.8%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2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41%를 차지했다. 이 둘의 합이 88%가량 되는데 악기 이름, 음악 기호 등의 전문용어가 많아 전문용어가 대체적으로 길지 않다. 조어 길이에 대한 분야별 분석은 장을 달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 형태 유형별 특징

가. AA(Aa)형

AA(Aa)형은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한 용어를 나타내므로 AA(Aa)형을 통해 공통적인 조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유형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AA(Aa)형에서 사용

27) AA(Aa)형 924개, 남측 AB형 200개, 북측 AB형 200개

28) 즉, 음악 전문용어 하나에 평균적으로 1.68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된 형태 및 원어는 다음과 같다.

<표 31> 음악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형태	빈도	형태	빈도
보통명사(nc)	1,077	의존명사(nb)	3
접미사(xs)	84	부사(av)	3
어근적 형태소(mm)	77	관형사(an)	1
고유명사(npp)	44	합계	1,375
접두사(xp)	30	원어	빈도
용언의 명사형(vn)	27	한자어(ch)	954
수사(nu)	20	외래어(ie)	216
용언의 관형형(va)	6	고유어(ko)	205
조사(pa)	3	합계	1,375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보통명사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다. 또한 원어 사용에서는 한자어의 빈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한자어로 된 보통명사’의 사용이 ‘작곡(nc/ch), 주제선율(nc/ch^nc/ch), 민족주의음악(nc/ch^nc/ch^nc/ch)’ 등처럼 다양한 단위에서 고루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휘나 품사와도 결합하여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접미사와 어근적 형태소가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어근적 형태소에 포함된 조어 단위는 사전에 어근으로 등재된 것 이외에도 사전에 미등재되어 있지만 조어 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 형태들을 추가한 것이다. ‘감(減), 겸(兼), 계(階), 기(伎), 남(藍), 세(細), 성(聲), 수(樹), 악(樂), 주(奏), 증(增), 타(打)’ 등처럼 1음절의 형태가 많았고, ‘모리, 사당’ 등의 고유어들도 나타났다.

다음은 AA(Aa)형 전문용어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주는 아래 표에서는 상위 5위까지의 유형만을 제시한다.

<표 32> 음악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남	예
형태 결합 (50개 유형)	nc	494	기타, 리듬, 박자, 비브라토, 합창, 호른
	nc^nc	165	가락^악기, 극^음악, 지휘^봉, 현대^음악
	nc^xs	65	간주^곡, 관악^기, 기보^법, 발전^부
	npp	35	마호, 브람스, 비발디, 슈베르트, 우륵
	mm^nc	20	증^음정, 후타^음, 세^피리, 선^소리
원어 결합 (21개 유형)	ch	347	간주, 건반, 고, 곡, 음률, 음역, 작곡, 현
	ch^ch	223	건반^악기, 경^음악, 기악^곡, 혼성^합창
	ie	152	기타, 론도, 마라카스, 멜로디, 코다
	ko^ko	45	겹^궁, 북^채, 술^대, 말^장단, 탈^춤
	ko	35	가락, 광대, 노래, 북, 소리, 줄, 피리, 활
형태/원 어 결합 (84개 유형)	nc/ch	335	가곡, 가사, 가성, 강약, 고수, 기보, 변주
	nc/ie	131	랄렌탄도, 마림바, 모데라토, 소나타
	nc/ch^nc/ch	104	관악^합주, 궁중^음악, 저음^성부
	nc/ch^xs/ch	59	기보^법, 독주^곡, 성악^가, 독창^회
	nc/ko	28	노래, 마디, 북, 징, 춤, 통소, 피리

먼저 형태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명사’ 유형이 주를 이룬다. AA(Aa)형에서는 ‘보통명사’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사^접미사’, ‘고유명사’, ‘어근적 형태소^보통명사’ 유형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원어 결합 관계에서는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한자어’, ‘한자어^한자어’ 다음으로 ‘외래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한자어 보통명사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명사’와 ‘접미사’의 사용도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보통 명사’와 ‘접미사’ 결합 유형으로는 접미사 ‘-곡’이 결합한 ‘간주곡, 교향곡, 기상곡, 기악곡, 독주곡, 독창곡, 미사곡, 변주곡, 야상곡, 연습곡, 전주곡, 주제곡, 즉흥곡, 합주곡, 행진곡, 협주곡’ 등, ‘-법’이 결합한 ‘기보법, 발성법, 운지법’ 등, ‘-부’가 결합한 ‘발전부, 서주부, 전개부, 제시부, 종결부, 내성부, 재현부’

등, ‘-회’가 결합한 ‘독주회, 독창회, 연주회, 음악회’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그 밖에도 ‘연주단, 합창단’의 ‘-단’, ‘관악기, 아악기, 박자기, 약음기’의 ‘-기’, ‘성악가, 음악가’의 ‘-가’ 등도 생산성 있게 나타났다.

Aa형은 AA형의 형태·원어 결합 관계와 거의 일치하고, 두음법칙과 외래어 표기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음법칙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용어로는 ‘여성고음-녀성고음, 연음-련음, 조율-조률, 낭만파-랑만파’ 등이 있고, 사잇소리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용어로는 ‘벃노래-배노래, 상엿소리-상여소리, 아랫성부-아래성부’가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용어로는 ‘모차르트-모짜르트, 소나타-쏘나타, 클라리넷-클라리네트, 재즈-쟈즈, 베이스-바스, 캐스터네츠-까스파넬띠, 무소륵스키-무쑤르스끼’ 등이 있다.

나. AB형

남북 음악 분야의 전문용어 중에서 AB형은 200개로 나타났다. AB형은 남측과 북측이 전문용어를 통합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B형은 AA(Aa)형에서 드러나지 않던 남과 북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남북의 전문용어가 다를 때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방법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의 전문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남북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용어를 생산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용어를 선택할지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 용어에 차이를 보이는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음악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형태				원어			
남측 형태	빈도	북측 형태	빈도	남측 원어	빈도	북측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291	보통명사(nc)	302	한자어(ch)	224	한자어(ch)	291
용언의명사형(vn)	43	어근적형태소(mm)	34	고유어(ko)	181	고유어(ko)	100
어근적형태소(mm)	30	접두사(xp)	19	외래어(ie)	30	외래어(ie)	18
접두사(xp)	20	수사(nu)	15	합계	435	합계	409
용언의관형형(va)	16	용언의명사형(vn)	15				
수사(nu)	12	접미사(xs)	12				
접미사(xs)	11	용언의관형형(va)	4				
관형사(an)	6	관형사(an)	4				
용언의연결형(vc)	4	용언의연결형(vc)	2				
부사(av)	2	조사(pa)	2				

위 표에 제시된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AA(Aa)형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즉 보통명사와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형태에서 보면, 남측은 북측보다 ‘마침, 씌, 가기, 가름, 꾸밈, 바꿈, 어울림’ 등의 명사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여러 분야에서 남북의 원어 사용을 비교해 보면, 보통은 북측이 용어를 고유어로 순화하려는 경향이 강해 고유어 사용은 북측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음악 분야에서는 남측의 고유어 사용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리름-계명, 딸림화음-속화음, 밀음-근음, 여린박-약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남측의 음악 용어는 한자어를 고유어 계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남측에서도 ‘계명, 약박’ 등의 용어가 흔히 사용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최근 중등과정 교과서에는 쉬운 우리말 표기의 전문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 및 원어가 어떠한 결합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음악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41개 유형)	nc^nc	47	중음^기호, 바탕^소리, 보조^음 등
	nc	29	비브라토, 등가, 영창, 장구, 단조 등
	vn^nc	15	돌림^노래, 도움^음, 마침^줄, 내림^나 등
	mm^nc	13	단^음정, 가온^음, 양장^고, 수^공후 등
	nc^nc^nc	8	낭만^주의^음악, 종합^무대^예술 등
원어 결합 (21개 유형)	ko^ch	31	도돌이^표, 가-단조, 낮은-음 등
	ko^ko	29	같이-가기, 세로-줄, 바른-마침 등
	ch^ch	28	전상-악, 점-음표, 임시-표 등
	ko^ko^ch	20	두^도막^형식, 버금^팔림^화음 등
	ch	16	조표, 단조, 영창, 적, 부, 기음 등
형태/원어 결합 (66개 유형)	nc/ch^nc/ch	16	연음^표, 순차^진행, 민속^악기 등
	nc/ch	16	경제, 금라, 음려, 적, 청황, 현침 등
	nc/ko^nc/ch	10	으뜸^화음, 밑^음, 다^장조, 사^장조 등
	nc/ie	10	렌토, 레퀴엠, 아코디언, 테너, 바순 등
	vn/ko^nc/ko	8	꾸밈-음, 내림^활, 조임^중 등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남측이 ‘가장조, 가온음, 줄임표, 홀박자’ 등의 ‘고유어^한자어(ko^ch)’, ‘덧줄, 바깥소리, 북채, 세로줄’ 등의 ‘고유어^고유어(ko^ko)’ 사용이 많고, 북측은 ‘임시표, 전상악, 삼부분형식, 전기종합악기’ 등의 한자어 사용이 많다는 점이다. 형태 및 원어 정보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결합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원어 결합 양상을 보면, 고유어가 전문용어를 구성하는 단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래의 북측 예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보자.

<표 35> 음악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38개 유형)	nc^nc	56	바탕^소리, 민족^악기, 경사^굿 등
	nc	47	장고, 저음, 시탕, 가선, 화고트 등
	nc^mm	15	등가^악, 라^소조, 쏘^대조, 오음^계
	nc^nc^nc	11	점^소리^표, 앞^장식^음, 원^고전^주의 등
	xp^nc	5	소^음정, 반^중지, 겹^혀, 소^피리 등
원어 결합 (22개 유형)	ch^ch	58	병^진행, 속^화음, 전음^계, 관계^대조 등
	ch	38	소조, 룩려, 바라, 주음, 축전 등
	ch^ch^ch	18	소조^교향^곡, 소^삼^화음, 불^협화^화음 등
	ko^ko	16	북^망치, 토끼^타령, 가락^소리 등
	ko^ch	10	튀김^밥, 소리^표, 입^풍금, 마무리^선 등
형태/원어 결합 (49개 유형)	nc/ch^nc/ch	40	교체^박자, 조^기호, 지탄^악기 등
	nc/ch	38	악기, 총보, 도움, 수고, 전회, 철금 등
	nc/ko^nc/ch	7	손^풍금, 바깥^성부, 가락^소리 등
	nc/ie^mm/ch	7	라^소조, 도^대조, 화^대조, 쏘^대조 등
	nc/ie	6	아리아, 화고트, 콘트라바스, 아르페지오 등

북측 전문용어의 형태 결합 양상을 보면, 큰 틀에서 ‘보통명사’ 또는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 관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측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른 차이도 발견되는데, 어근적 형태소의 쓰임이 그렇다. 특히 남측의 ‘장조’와 ‘단조’에 대응하는 ‘대조’와 ‘소조’의 쓰임이 많다. 이 용어들은 남측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은 단어로 북측의 관점에서는 보통명사로 볼 수 있으나, 남측 사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어근적 형태소로 본다. 즉,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예로 볼 수 있다.

북측 전문용어의 원어 결합 양상은 앞에서 제시한 남측의 결과와 사뭇 다르다. 고유어가 많이 쓰인 남측에 비해 북측의 한자어의 결합이 대다수이다. ‘병진행

(북)-같이가기(남), 속화음(북)-팔림화음(남), 전음계(북)-온음계(남)’ 등의 대응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측의 용어들은 특정 한자어를 특정 고유어 조어 단위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²⁹⁾ 이러한 예들로 미루어 보건대 남측의 순화 작업과 북측의 말다듬기 사업이 동일한 주제 영역을 두고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통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2.2.2.2. 미술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1) 형태 유형별 분포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 또한 용어의 일치도에 따라 ‘AA형’, ‘Aa형’, ‘AB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남측과 북측이 대응되는 용어는 총 1,124개가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각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36> 미술 분야 전문용어 유형

유형		예(남-북)	개수 (백분율)
AA	AA	공간-공간, 모더니즘-모더니즘, 산수화-산수화, 원경-원경 등	312개 (65.5%)
	Aa	고딕-고딕, 룬문석굴-룬문석굴, 입체-입체, 콘테-콩테 등	33개 (6.9%)
AB		도안화-양식화, 도화지-그림종이, 색상환-색고리, 팔레트-젤판	131개 (27.5%)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 중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은 345개로 72.5%이다. 그리고 동일 개념에 대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AB형은 131개가 출현하였는데, 27.5%의 비율을 보인다. 음악 분야와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형식의 유형이 조금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는 ‘한자어-고유어’의 대립, ‘외래어-한자어’의 대립 등 어종적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남측의 ‘도화지’, ‘압정’은 북측의 ‘그림종이’, ‘납작못’에 대응하고, ‘스테인드글라스’, ‘포스터’ 등은 ‘색유리그림’, ‘선전화’ 등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이유로는 형식을 줄여서 쓰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 남측의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 등을 북측에서

29) 팔림(남)-속(북): 팔림화음-속화음, 팔림음조-속음조, 버금팔림음-하속음 등

는 ‘해서, 행서, 초서’ 등으로 표현한다. 즉 동일한 표현 형식이 사용되지만 접미사의 결합 여부가 AB형으로 나누게 한다.

다음으로 조어 길이에 대해 살펴보자. 위에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의 미술 전문용어를 모두 더하면 607개이다. 이를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라 유형화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아래 표는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른 전문용어의 개수와 그 예이다.

<표 37> 미술 분야 조어 단위 길이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	개수	백분율	예
1개	270	44.5%	다다이즘, 동세, 무늬, 북, 스케치 등
2개	290	47.8%	구름^법, 예술^성, 정밀^묘사, 불교^미술 등
3개	36	5.9%	붓^말이^개, 옷^칠^공예, 색^유리^그림 등
4개	11	1.8%	루브르^미술^박물관, 신^사실^주의^미술 등
합계	607	100%	조어 길이 1.65

위와 같이, 미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1개의 조어 단위부터 4개의 조어 단위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전문용어 하나당 결합된 조어 단위의 길이는 1.65이다. 음악 용어의 조어 길이가 1.68이었던 것을 상기할 때,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엄태경(2019: 120)을 참조할 때,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가 다단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어 단위가 3개 이상 결합한 전문용어의 비율이 채 10%가 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미술 도구 이름이나 그리기 방법 등의 용어들이 보통 1개의 조어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술 분야의 형태적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조어 단위를 다음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형태 유형별 특징

가. AA(Aa)형

<표 38> 미술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형태	빈도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405	한자어(ch)	431
접미사(xs)	75	외래어(ie)	56
고유명사(npp)	22	고유어(ko)	25
접두사(xp)	5	혼종어(sk)	2
어근적 형태소(mm)	3	합계	514
관형사(an)	2		
용언의 관형형(va)	1		
조사(pa)	1		
합계	514		

미술 분야 AA(Aa)형 전문용어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접미사가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앞서 확인한 음악 분야의 경우 보통명사가 총수의 78% 가량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접미사는 6%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미술 분야에서는 보통명사가 78.8%, 접미사가 14.6%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명사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접미사의 비율이 2배 이상이다. 즉, 접미사의 결합으로 파생된 전문용어가 많이 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고유명사가 세 번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예들을 확인해 보면, ‘비너스, 스톤헨지, 스펡크스, 앙코르와트,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판테온’과 같이 건축물, 미술품, 유적지 등이 대다수이다. 미술 분야의 특성상 이러한 대상들을 미적인 부분에서 평가하여 전문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용어 대부분은 역사 분야 전문용어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 즉 미술과 역사 분야 간 전문용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원어적 특징을 살펴보면, 한자어가 80%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외래어가 많이 쓰이는데 앞에서 살펴본 고유명사와 더불어 미술 도구라든지 미술 기법 등의 용어가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표는 AA(Aa)형 전문용어들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인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는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형들만 제시하였다.

<표 39> 미술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남	예
형태 결합 (35개 유형)	nc	257	갈필, 농담, 비너스, 프레스, 먹, 붓 등
	nc^nc	148	다원^주의, 부각^장식, 고무^판화, 밑^그림 등
	nc^xs	107	건축^물, 단순^화, 물질^성, 미술^가 등
	npp	13	간다라, 굽타, 다비드, 모나리자, 알타미라 등
	nc^nc^xs	12	공기^원근^법, 수목^담채^화 등
원어 결합 (26개 유형)	ch^ch	215	건축^물, 광택^지, 단구^법, 마분^지 등
	ch	206	건축, 강조, 근경, 속사, 습작, 시각 등
	ie	58	모더니즘, 잉크, 스케치, 크레용, 템페라 등
	ie^ch	22	바로크^미술, 파르테논^신전, 로마네스크^양식 등
	ko^ch	21	고무^판화, 옷^칠, 이야기^판, 종이^공예 등
형태/원 어 결합 (62개 유형)	nc/ch	205	구상, 균형, 색, 서예, 인상, 자수, 추상 등
	nc/ch^xs/ch	106	경제^성, 기록^화, 도화^원, 산수^도 등
	nc/ch^nc/ch	98	절대^주의, 합성^수지, 입체^조형 등
	nc/ie	46	프레스, 모자이크, 모스크, 헬레니즘 등
	nc/ko^nc/ch	14	고무^판화, 옷^칠, 이야기^판, 종이^공예 등

미술 분야의 AA(Aa)형 전문용어들의 형태 결합 정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통명사’와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특히 보통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전문용어가 많이 있는데,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등 다양한 어종이 확인된다. 그리고 미술 재료부터 미술 기법 등의 용어도 하나의 조어 단위 형태로 되어 있다. 보통명사끼리 결합한 경우도 많다. 이는 음악 분야의 전문용어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결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접미사가 결합한 전문용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法, -畫, -圖, -性’ 등 한자어 접미사가 많이 보이는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나, 그림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들이 많다.

원어의 결합에서는 한자어 조어 단위의 결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 또한 다양한 접미사를 활용하여 파생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어근끼리 결합하여

합성 용어가 되기도 한다. 외래어가 사용되어 만들어진 용어 중 유적지나 건축물을 나타내는 예들도 눈에 띈다.

나. AB형

남북 미술 분야 전문용어 중에서 AB형은 131개로 확인되었다. 이 유형의 전문용어들은 남측과 북측의 대립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이고 있어,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형태 및 원어 정보를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0> 미술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형태				원어			
남측 형태	빈도	북측 형태	빈도	남측 원어	빈도	북측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182	보통명사(nc)	199	한자어(ch)	179	한자어(ch)	206
접미사(xs)	32	접미사(xs)	31	고유어(ko)	36	고유어(ko)	38
고유명사(npp)	6	고유명사(npp)	10	외래어(ie)	18	외래어(ie)	9
접두사(xp)	5	용언의명사형(vn)	6			혼종어(sk)	1
어근적형태소(mm)	3	부사(av)	3	합계	435	합계	409
부사(av)	2	접두사(xp)	1				
용언의명사형(vn)	1	용언의연결형(vc)	1				
조사(pa)	1	용언의관형형(va)	1				
수사(nu)	1	조사(pa)	1				
		수사(nu)	1				

먼저 형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자. 미술 분야 전문용어 AB형은 AA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통명사와 접미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측과 북측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고유명사까지도 동일한 분포로 나타난다. 다른 분야에서 북측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설명되는 ‘용언의 활용형’이 북측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그 빈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비교는 다른 장에서 확인한다.

다음으로 원어의 내용을 보자. AA형에서 외래어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반면, AB형에서는 고유어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A형과 AB형에서 모두 고유명사가 많이 확인되는데, 외래어 고유명사가 대부분이다. 이 외래어 고유명사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Aa형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로 남은 외래어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계는 아래의 결합 관계에서 확인된다.

아래의 표는 미술 분야 전문용어 중 AB형에 속하는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의 형태 및 원어의 결합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를 확인하면 미술 분야의 조어적 특성을 알 수 있다.

<표 41> 미술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14개 유형)	nc	43	단청, 동세, 발상, 배색, 안료 등
	nc^nc	42	고유^색, 미술^표현, 정밀^묘사 등
	nc^xs	25	도안^화, 생동^감, 궁서^체, 도화^지 등
	npp^xp^nc	4	랭스^대^성당, 아미앵^대^성당 등
	nc^nc^xs	4	색채^원근^법, 진경^산수^화 등
원어 결합 (14개 유형)	ch^ch	53	두상^화, 색상^대비, 재질^감, 화조^도 등
	ch	27	양각, 압정, 주조, 혼색, 환조 등
	ie	17	리얼리즘, 르네상스, 팔레트, 포스터 등
	ie^ch	6	리놀륨^판, 밀라노^성당, 르네상스^미술 등
	ko^ch	5	볼록^판화, 오목^판화, 거리^미술 등
형태/원어 결합 (21개 유형)	nc/ch	27	도자, 부조, 삼절, 서진, 수묵, 주형 등
	nc/ch^nc/ch	25	다색^판화, 분청^사기, 칠^공예 등
	nc/ch^xs/ch	24	군상^화, 부감^법, 생동^감, 도화^지 등
	nc/ie	16	그리드, 테생, 매스, 크로키, 톤 등
	nc/ie^nc/ch	5	마투라^불상, 밀라노^성당, 르네상스^미술

<표 42> 미술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23개 유형)	nc^nc	38	나무^공예, 색^감, 먼^구성, 색^대비 등
	nc	38	공판, 연채, 환각, 형태. 서체, 도안 등
	nc^xs	18	운동^성, 시서^화, 양각^법, 청자^기 등
	nc^nc^nc	6	인상^주의^미술, 색^유리^그림 등
	npp^nc	5	란스^사원, 샤르뜨르^사원 등
원어 결합 (19개 유형)	ch^ch	41	도자^기, 주제^화, 투시^법, 선전^화 등
	ch	36	구상, 석채, 본색, 인발, 칠보, 군상 등
	ko^ch	10	그림^판, 나무^조각, 나오는^색 등
	ie^ch	7	비닐^판화, 아미안^성당, 란스^사원 등
	ch^ch^ch	7	실경^산수^화, 미술^적^표현, 문예^부흥^기 등
형태/원어 결합 (36개 유형)	nc/ch	36	지도, 본색, 궁체, 예서, 속사, 룰동 등
	nc/ch^nc/ch	22	청화^자기, 공업^미술, 야수^주의 등
	nc/ch^xs/ch	18	주조^법, 상상^화, 룩로^기, 과묵^법 등
	nc/ko^nc/ch	7	그림^판, 나무^공예, 머리^상 등
	npp/ie^nc/ch	5	아미안^성당, 란스^사원, 샤르뜨르^사원 등

위쪽의 남측 결과와 아래쪽의 북측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자. 먼저 형태 결합 관계이다. AA형과 마찬가지로 ‘보통명사’,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미술 분야의 조어 길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는 한두 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결합 관계에 의해 증명된다. 접미사의 쓰임이 활발하다는 특징도 있는데 AA형에서 살펴본 접미사들이 AB형에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남과 북의 대응 관계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0) 군상화, 궁서체, 도안화, 생동감, 예서체, 입상화, 좌상화, 초서체, 평판화

(21) 군상, 궁체, 도안, 생동, 예서, 입상, 좌상, 초서, 평판

(20)은 남측의 전문용어이고 (21)는 북측의 전문용어이다. 각각 대응하는 전문용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20)과 (21)을 비교했을 때, 남측의 용어는 보통 접사를 활용하여 파생접사를 만든다. 반면 북측의 전문용어들은 1개의 조어 단위만으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용어에 장단점이 있다. 북측의 용어는 짧은 음절 수로 발음적 경제성이 있다. 그러나 개념이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남측의 용어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그것보다 음절 수가 길다. 그러나 2음절과 3음절은 큰 차이가 아니며,³⁰⁾ 오히려 접미사의 결합으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때문에 투명성의 측면에서 남측의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원어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자. 한자어의 결합이 남측과 북측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인다. AA형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북측어에 비해 남측어가 외래어를 활용한 전문용어의 경향이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22) 공업디자인, 산업디자인, 섬유디자인; 르네상스; 스테인드글라스; 모노크롬
(23) 공업미술, 산업미술, 방직미술; 문예부흥기; 색유리그림; 단색화

(22)의 예는 남측의 예이고, (23)의 예는 북측의 예이다. (22)와 (23)을 비교하면, 남측에서 외래어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북측에서는 한자어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립이 아닌 ‘외래어’와 ‘한자어’의 대립이 확인된다. 유의미할 정도로 많은 예는 아니지만, 하나의 경향성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 보인다.

2.2.3. 핵심 조어 단위

핵심 조어 단위들은 전문용어 형성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생산성을 가진 조어 단위들이다.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은 이 핵심 조어 단위들의 우선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 미술 분야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고빈도 조어 단위를 50순위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고빈도 조어 단위(상위 50위)

순위	음악 전문용어	빈도	미술 전문용어	빈도
----	---------	----	---------	----

30)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2-3음절의 전문용어가 경제성에 동일하다고 본다.

1	음nc/ch	42	_화15xs/ch	48
2	곡xs/ch	34	미술nc/ch	28
3	표nc/ch	33	색3nc/ch	23
4	음악nc/ch	33	_법3xs/ch	21
5	화음nc/ch	32	주의nc/ch	20
6	소리nc/ko	22	공예nc/ch	13
7	악기nc/ch	19	판화nc/ch	12
8	장단nc/ko	18	_도19xs/ch	11
9	형식nc/ch	17	감3nc/ko	9
10	겹xp/ko	17	_체8xs/ch	9
11	조nc/ch	16	청자nc/ch	7
12	박자nc/ch	16	조각nc/ch	7
13	음정nc/ch	15	원근nc/ch	7
14	법xs/ch	15	성당nc/ch	7
15	기호nc/ch	15	산수nc/ch	7
16	삼nu/ch	14	대비nc/ch	7
17	줄nc/ko	13	그림nc/ko	7
18	악mm/ch	12	표현nc/ch	6
19	합창nc/ch	11	투시nc/ch	6
20	음표nc/ch	11	상22nc/ch	6
21	주의nc/ch	10	_성13xs/ch	6
22	자리nc/ko	10	_감18xs/ch	6
23	가락nc/ko	10	조형nc/ch	5
24	가xs/ch	10	입체nc/ch	5
25	피아노nc/ie	9	예술nc/ch	5
26	피리nc/ko	9	수묵nc/ch	5
27	음계nc/ch	9	디자인nc/ie	5
28	선율nc/ch	9	도안nc/ch	5
29	부xs/ch	9	대18-xp/ch	5
30	장조nc/ch	8	화법nc/ch	4

31	분nc/ch	8	판8nc/ch	4
32	북nc/ko	8	추상nc/ch	4
33	모리mm/ko	8	장식nc/ch	4
34	굿nc/ko	8	인상nc/ch	4
35	활nc/ko	7	상감nc/ch	4
36	타령nc/ko	7	사원nc/ch	4
37	채nc/ko	7	사실nc/ch	4
38	종지nc/ch	7	무늬nc/ko	4
39	점nc/ch	7	나무nc/ko	4
40	쉽vn/ko	7	_지27xs/ch	4
41	마침vn/ko	7	_적16xs/ch	4
42	대조mm/ch	7	_기41xs/ch	4
43	낭만nc/ch	7	홍상nc/ch	3
44	기xs/ch	7	화조nc/ch	3
45	합주nc/ch	6	행서nc/ch	3
46	칠nu/ch	6	해서nc/ch	3
47	이nu/ch	6	칠2nc/ch	3
48	연주nc/ch	6	초서nc/ch	3
49	부분nc/ch	6	질감nc/ch	3
50	도nc/ie	6	종이nc/ko	3

위의 표는 음악 분야와 미술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조어 단위들을 각각 50개씩 보인 것이다. 먼저 음악 용어의 조어 단위를 보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위부터 차례로 보이면, ‘음, -곡, 표, 음악, 화음, 소리, 악기, 장단, 형식’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용어들은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높은 빈도로 전문용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용어들을 중심으로 남북의 용어를 비교하고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미술의 고빈도 조어 단위를 확인하여 보자. 가장 높은 조어 단위부터 보면 ‘-화, 미술, 색, 주의, -법, 공예, 판화, -도’ 등의 순서를 보인다. 미술 용어의 고빈도 조어 단위에는 접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10위 안에만 ‘-화, -법, -도’ 3개의 접미사가 있다. 그 외에도 ‘-체, -성, -감, -지, -적, -기’ 등의 접미사가 고빈도를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 용어에 파생 용어가 많이 존재함을

드리내는 동시에 일반적인 조어 방식을 많이 따른다고도 볼 수 있다.

접사 외에도 ‘미술, 주의, 공예, 판화’ 등의 조어 단위가 많이 사용된다. 이들 용어는 전문용어에서 후행하는 핵으로서 활용되어 합성 용어들을 만들어 낸다.

(24) 간다라미술, 거리미술, 고딕미술, 바로크미술, 불교미술

(25) 고전주의, 낭만주의, 다원주의, 복고주의, 사실주의, 상징주의

(26) 나무공예, 도자공예, 염색공예, 유리공예, 종이공예, 칠공예

(27) 고무판화, 다색판화, 블록판화, 비닐판화, 단색판화, 금속판화

(24, 25, 26, 27)의 예들은 고빈도 조어 단위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용어의 예들이다. (24)의 예에서는 ‘간다라, 고딕, 바로크, 불교’ 등의 용어들이 선행 성분으로 쓰여 미술 양식을 나타낸다. (25)에서는 미술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6)과 (27)은 ‘나무, 유리, 고무, 비닐, 금속’ 등의 재료가 선행 요소로 쓰여 재료적 속성을 가지는 미술 표현을 드러낸다. 이처럼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들은 언어의 일반적인 단어 형성법을 많이 따르고 있다.

2.3 종합적 조어 분석

이 절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된 이전 사업의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남북 전문용어 구축’이라는 이름 아래 교과 전문용어들을 자료로 하여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5년 동안 기본적인 연구 방법론은 유지한 채 새로운 시도들을 추구하였다. 그중에 조어 분석은 2016년 사업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동일한 방법론으로 연구를 해 오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이 절에서는 2017년의 문법, 문학, 2018년의 역사 그리고 올해의 음악, 미술을 대상으로 삼아 비교를 진행한다. 2015년에 진행한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용어는 조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6년에는 체육 분야에 대한 어종 분석만 실시하고 조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 엄태경(2015), 엄태경·신중진(2017)을 참고하여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용어도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³¹⁾ 주요 논의 대상은 ‘조어 길이’, ‘형태 및 원어 정보’, ‘결합 양상’이다.

31) 이 절에서 사용된 과학 전문용어는 엄태경·신중진(2017)에서 밝힌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 전문용어를 의미한다.

2.3.1. 조어 길이의 비교

전문용어의 조어 길이는 전문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조어 단위들의 총합을 전문용어의 수로 나눈 것이다. 즉 전문용어 1개당 평균 조어 단위의 수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수학, 과학, 문법,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의 조어 길이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4> 분야별 전문용어의 조어 길이

조어 단위 의 수	음악	미술	수학 ³²⁾	과학 ³³⁾	문법	문학	역사
1개	619 (46.8%)	270 (44.5%)	168 (33.7%)	147 (29.5%)	330 (18.7%)	348 (39.1%)	1,161 (48.1%)
2개	543 (41%)	290 (47.8%)	259 (52%)	267 (53.6%)	1,039 (58.9%)	442 (49.6%)	860 (35.7%)
3개	133 (10%)	36 (5.9%)	58 (11.6%)	70 (14.1%)	275 (15.6%)	74 (8.3%)	285 (11.8%)
4개	29 (2.2%)	11 (1.8%)	12 (2.4%)	12 (2.4%)	94 (5.3%)	23 (2.6%)	69 (2.9%)
5개	-	-	1 (0.2%)	2 (0.4%)	20 (1.1%)	2 (0.2%)	27 (1.1%)
6개 이상	-	-	-	-	5 (0.3%)	2 (0.2%)	10 (0.4%)
합계	1,324	607	498	498	1,763	891	2,412
조어 길이	1.68	1.65	1.83	1.91	2.12	1.76	1.74

이 조어 길이는 분야에 따라 1.65부터 2.12에 이른다. 가장 작은 길이를 보이는 분야는 음악과 미술 분야이다. 그리고 가장 긴 길이를 보이는 분야는 문법 분야로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의 조어 단위가 전문용어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학문적으로 과학적인 분야에 속하는 수학, 과학, 문법 분야의 조어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그리고 인문·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다. 엄태경(2019: 132)에서는 문법, 수학 분야 전문용어의 조어 길이를 언급하면서 이

32) 엄태경·신중진(2017: 162)을 참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물과 수치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야별 분포의 경향을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33) 엄태경·신중진(2017: 1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들 분야의 전문용어가 다단어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근거로 명사의 기능 부담량을 수량화하여 밝혔다. 이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건대 과학적 특성을 가진 분야의 전문용어는 다단어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의 그림은 조어 길이에 따른 백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조어 단위가 2인 붉은 색에 주목하여 그래프를 확인하여 보자.



[그림 33] 각 분야 조어 단위 수의 분포

전문용어를 구성하는 조어 단위는 보통 한 개이거나 두 개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수학, 과학, 문법 분야의 붉은색 그래프를 파란색 그래프와 비교하여 보자. 다른 분야에 비해 그 격차가 크다. 반면 역사와 음악 분야는 파란색 그래프가 오히려 더 높다. 즉 1개의 조어 단위가 전문용어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다음 절에서 형태 및 원어 정보를 확인한 후 그 결합 양상을 확인하여 보자.

2.3.2. 형태 및 원어 정보의 비교

이 절에서는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 및 원어 정보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앞과 동일하게 수학, 과학, 문법,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를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남북 전문용어의 대응 쌍 중 AB형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다. 남북의 전문용어는 AB형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각 분야의

형태(품사) 정보를 모아 다음의 표를 만들었다.

<표 45> 수학, 과학, 문법 분야의 형태 정보

순 위	수학_남 (빈도)	수학_북 (빈도)	과학_남 (빈도)	과학_북 (빈도)	문법_남 (빈도)	문법_북 (빈도)
1	보통명사 (217)	보통명사 (225)	보통명사 (111)	보통명사 (121)	보통명사 (941)	보통명사 (930)
2	접두사 (14)	용언의 관형형 (23)	접미사 (9)	접두사 (13)	접미사 (198)	접미사 (157)
3	접미사 (10)	용언의 명사형 (17)	접두사 (6)	용언의 명사형 (8)	어근적 형태소 (62)	용언의 명사형 (126)
4	어근적 형태소 (8)	접미사 (15)	용언의 명사형 (2)	용언의 관형형 (7)	접두사 (39)	용언의 관형형 (61)
5	숫자, 기호 (2)	부사 (12)	숫자, 기호 (2)	접두사 (3)	용언의 명사형 (17)	조사 (38)
6	용언의 관형형 (1)	조사 (3)	용언의 관형형 (1)	고유명사 (1)	용언의 관형형 (16)	접두사 (33)
7	조사 (1)	관형사 (3)	고유명사 (1)	어근적 형태소 (1)	표지 보류 (15)	표지 보류 (24)
8	관형사 (1)	접두사 (2)	어근적 형태소 (1)		고유명사 (10)	어근적 형태소 (18)
9		어근적 형태소 (2)			조사 (6)	고유명사 (16)
10		숫자, 기호 (2)			부사 (4)	관형사 (12)

위 표는 수학, 과학, 문법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각 분야 전문용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량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특히 분야별로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를 비교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먼저, 수학 분야를 살펴보자. 남북 모두 ‘보통명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모습이다. 따라서 ‘보통명사’ 이외의 형태 정보를 확인하여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측 수학 전문용어는 접사가 2, 3순위에 있다. 반면 북측 수학 전문용어는 ‘용언의 활용형’이 2, 3순위를 차지했다. 이 전 사업에서도 밝혔듯이 북측의 전문용어는 ‘말다듬기 사업’을 통해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였는데, 수학 분야의 전문용어에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물론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도 수학 분야의 결과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문법 분야의 전문용어를 비교하여 보자. 여전히 북측의 전문용어는 ‘용언의 활용형’이 전문용어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접미사의 빈도가 2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특징도 있다. 이는 문법 분야에서 활용되는 접미사가 남과 북 모두에서 활발한 생산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대어, 파생법, 명령문’ 등의 ‘-어, -법, -문’ 등의 접미사는 남북을 가리지 않고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북측의 형태 정보 중 눈에 띄는 조어 단위는 ‘조사’이다. 5순위에 올라 있는데 남측과의 빈도 차이가 꽤 크다.

(28) 구개음화(남)-지치로 되기(북), 다의어(남)-한 단어의 여러 뜻(북). 명령형 어미-시킴의 맺음도, 연음규칙(남)-발음의 이어내기(북)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측의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북측의 전문용어가 구 단위로 풀어서 사용되고 있다. 이때 ‘로, 의’ 등의 조사가 부사격 혹은 관형격으로 사용되어 조사의 빈도가 높다.

다음은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 정보를 나타낸 표이다.

<표 46>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의 형태 정보

순 위	문학_남 (빈도)	문학_북 (빈도)	역사_남 (빈도)	역사_북 (빈도)	음악_남 (빈도)	음악_북 (빈도)	미술_남 (빈도)	미술_북 (빈도)
1	보통명 사(266)	보통명 사(288)	보통명 사(498)	보통명 사(583)	보통명 사(291)	보통명 사(302)	보통명 사(182)	보통명 사(189)
2	접미사 (52)	접미사 (59)	고유명 사(224)	고유명 사(186)	용언의 명사형 (43)	어근적 형태소 (34)	접미사 (32)	접미사 (31)
3	고유명 사(6)	고유명 사(6)	접미사 (42)	접미사 (38)	어근적 형태소 (30)	접두사 (19)	고유명 사(6)	고유명 사(10)
4	조사(5)	접두사 (4)	어근적 형태소 (25)	관형사 (24)	접두사 (20)	수사 (15)	접두사 (5)	용언의 명사형 (6)
5	관형사 (2)	명사형 (4)	관형사 (20)	접두사 (15)	용언의 관형형 (16)	용언의 명사형 (15)	어근적 형태소 (3)	부사(3)
6	관형형 (2)	관형형 (4)	조사 (19)	조사 (15)	수사 (12)	접미사 (12)	부사(2)	접두사 (1)
7	어근적형 태소(1)	조사(2)	숫자, 기호(9)	어근적 형태소	접미사 (11)	용언의 관형형	용언의 명사형	용언의 연결형

				(15)		(4)	(1)	(1)
8	접두사 (1)	관형사 (2)	접두사 (7)	용언의 관형형 (5)	관형사 (6)	관형사 (4)	조사(1)	용언의 관형형 (1)
9	의존명 사(1)	어근적형 태소(2)	용언의 관형형 (6)	숫자, 기호(5)	용언의 연결형 (4)	용언의 연결형 (2)	수사(1)	조사(1)
10		의존명 사(1)	단일고 유명사- 준말(4)	단일고 유명사- 준말(4)	부사(2)	조사(2)		수사(1)

위 표에서 역사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 정보를 확인하여 보자. 다른 분야에 비해 고유명사의 분포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는 AA형에서도 고유명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된다. 이는 역사 분야의 범위와 상관이 있다. 역사 영역은 ‘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그리고 여기에 ‘유적, 유물’ 등의 분야를 포괄하기도 하는데, 이 분야의 전문용어들은 고유명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에 고유명사가 다수 포함된 것이다.

음악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 정보에서는 ‘어근적 형태소’가 눈에 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9) 손^ㅅ공후, 변^ㅂ박자, 양장^ㅇ고, 세^ㅅ피리, 가온^ㅇ음, 계^ㅇ이름, 단^ㅇ음정

(30) 물^ㅇ금척, 뽕^ㅇ진행, 솔^ㅇ화음, 분^ㅇ삼^ㅇ화음, 너름^ㅇ새

위의 (29)는 남측의 음악 전문용어이고, (30)은 북측의 전문용어이다. 그리고 밑줄을 그은 부분이 ‘어근적 형태소’이다. 이 형태소들은 다른 형태소에 선행하여 의존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고루 보이는데, 고유어는 ‘가온, 너름’ 등이 있다. 끝으로 문학,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 정보를 확인하여 보자. 두 분야 모두 접미사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남북측 모두 동일한 양상이다.

아래의 두 표는 각 분야 전문용어의 원어 정보를 나타낸 표이다. 크게 보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어종으로 구분된다.

<표 47> 수학, 과학, 문법 분야의 원어 정보

순	수학_남	수학_북	과학_남	과학_북	문법_남	문법_북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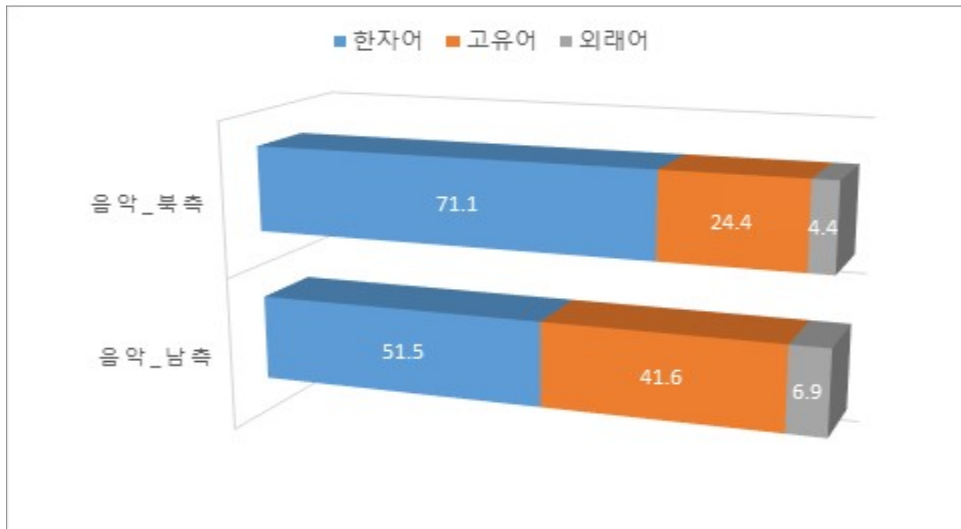
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1	한자어(216)	한자어(163)	한자어(107)	한자어(100)	한자어(1,099)	한자어(748)
2	고유어(33)	고유어(122)	외래어(15)	고유어(47)	고유어(200)	고유어(655)
3	외래어(5)	혼종어(14)	고유어(11)	외래어(6)	외래어(16)	혼종어(22)
4		외래어(5)		혼종어(1)		외래어(8)

<표 48>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의 원어 정보

순 위	문학_남 (빈도)	문학_북 (빈도)	역사_남 (빈도)	역사_북 (빈도)	음악_남 (빈도)	음악_북 (빈도)	미술_남 (빈도)	미술_북 (빈도)
1	한자어 (302)	한자어 (333)	한자어 (770)	한자어 (728)	한자어 (224)	한자어 (291)	한자어 (179)	한자어 (206)
2	고유어 (18)	고유어 (38)	고유어 (75)	고유어 (153)	고유어 (181)	고유어 (100)	고유어 (36)	고유어 (38)
3	외래어 (16)	외래어 (2)	외래어 (14)	외래어 (13)	외래어 (30)	외래어 (18)	외래어 (18)	외래어 (9)
4			일본어 (3)	혼종어 (7)				혼종어 (1)
5			혼종어 (1)	일본어 (4)				
6			몽골어 (1)	몽골어 (1)				

각 분야 전문용어의 원어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각 분야에서 한자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과 북측의 비율을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 남측의 수학, 과학, 문법, 문학,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는 모두 80% 이상의 분포를 가진다. 즉 절대적으로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반면 북측의 전문용어는 수학 40%, 과학 30%, 문법 45%, 음악 24% 정도의 비율로 고유어가 사용된다. 남측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전문 분야에 걸쳐 ‘말다듬기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음악 분야의 전문용어는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그림 34]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분포

다른 분야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측에 비해 북측의 전문용어에서 고유어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음악 분야에서는 남측의 고유어 비율이 북측의 그것보다 높다. 즉 남측의 전문용어에서 고유어 조어 단위가 활발하게 사용된 것이다.

(31) 딸림화음(남)-속화음(북), 가온음-중음, 밑음-근음, 으뜸음-주음, 센박-강박, 어린박-약박, 모음악보-총보, 이끄음-도음, 도움음-보조음, 어울림음정-협화음정, 겹박자-복합박자, 홀박자-단순박자 등

위의 예문을 보면 북측의 조어 단위에 해당하는 남측의 조어 단위가 대부분 고유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측에도 북측 전문용어와 동일한 형식의 용어가 사전 등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중등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위에 제시한 형식만이 확인된다. 즉, 남측의 음악 전문용어가 순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만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3.3. 결합 양상의 비교

이 절에서는 각 분야 전문용어의 결합 양상을 확인한다. 앞선 절에서 확인하였던 각 분야의 형태적·원어적 특징이 그 결합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확인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합 관계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AB형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49> 수학, 과학, 문법 분야의 형태 결합 관계

순 위	수학_남 (빈도)	수학_북 (빈도)	과학_남 (빈도)	과학_북 (빈도)	문법_남 (빈도)	문법_북 (빈도)
1	nc (57)	nc^nc (50)	nc^nc (24)	nc^nc (26)	nc^nc (183)	nc^nc (161)
2	nc^nc (53)	nc (28)	nc (21)	nc^nc^nc (8)	nc^xs (101)	nc^xs (57)
3	mm^nc (4)	va^nc (12)	nc^nc^nc (5)	nc (7)	nc (84)	nc (46)
4	xp^nc^xs (4)	nc^xs (7)	xp^nc (4)	nc^xs (5)	nc^nc^xs (30)	vn^nc (30)
5	xp^nc (4)	vn^nc (6)	nc^xs (4)	vn^nc (4)	nc^nc^nc (19)	nc^nc^nc (27)
	16개 유형	29개 유형	15개 유형	19개 유형	62개 유형	78개 유형

<표 50> 문학, 역사, 음악, 미술 분야의 형태 결합 관계

순 위	문학_남 (빈도)	문학_북 (빈도)	역사_남 (빈도)	역사_북 (빈도)	음악_남 (빈도)	음악_북 (빈도)	미술_남 (빈도)	미술_북 (빈도)
1	nc^nc (59)	nc^nc (60)	nc^nc (55)	nc^nc (73)	nc^nc (47)	nc^nc (56)	nc (43)	nc^nc (38)
2	nc (37)	nc (24)	npp^nc (55)	npp^nc (47)	nc (29)	nc (47)	nc^nc (42)	nc (38)
3	nc^xs (26)	nc^xs (23)	npp (31)	npp (36)	vn^nc (15)	nc^mm (15)	nc^xs (25)	nc^xs (18)
4	nc^xs^nc (18)	nc^xs^nc (12)	nc (27)	nc^nc^nc (34)	mm^nc (13)	nc^nc^nc (11)	npp^xp^nc (4)	nc^nc^nc (6)
5	nc^nc^nc (5)	nc^nc^nc (8)	nc^nc^nc (21)	npp^nc^nc (23)	nc^nc^nc (8)	xp^nc (5)	nc^nc^xs (4)	npp^nc (5)
	18개 유형	29개 유형	73개 유형	73개 유형	41개 유형	38개 유형	14개 유형	23개 유형

위의 두 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보통명사^보통명사(nc^nc)’ 구성이 전문용어 구성에서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학, 미술 분야에서는 ‘보통명사(nc)’ 하나로 구성된 경우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통명사^접미사(nc^xs)’ 구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상위 5개의 유형 안에 속

해 있다. 즉 전문용어도 일반어와 마찬가지로 합성법에 의한 합성 용어, 파생법에 의한 파생 용어가 일반적인 전문용어 형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분야의 형태·원어적 특징이 어떻게 결합 관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자. 먼저 ‘용언의 활용형’과 결합하는 양상이다. 북측의 전문용어에서 ‘용언의 관형형’과 ‘용언의 명사형’은 선행 성분으로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 (32) 주는함수, 모르는수, 순환소리, 합친말, 바른말, 굳은모음
- (33) 바꿈법칙, 사권각, 갇기식, 시킴문, 바꿈토, 맺음토, 터침소리

(32)의 예는 ‘용언의 관형형’이 후행하는 보통명사를 수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33)의 예는 ‘용언의 명사형’과 보통명사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도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여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역사 분야의 결합 양상을 확인하여 보자.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는 고유명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결합 관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결합 관계의 2, 3순위에 각각 ‘고유명사^명사’, ‘고유명사’가 들어 있다.

- (34) 농가집성, 단군, 동의보감, 동명왕, 석가탑, 월정사, 조선, 당
- (35) 살수^싸움, 노량^해전, 러시아^혁명, 한산도^대첩, 태평양^전쟁

(34)는 ‘고유명사(npp)’가 그대로 전문용어로 쓰인 예이다. (35)는 ‘고유명사^보통명사(npp^nc)’의 결합을 보여 준다. (34)의 전문용어는 ‘인명, 국명, 유물명, 유적명’ 등의 고유명을 나타낸다. 주지하듯이 역사 분야의 범위는 ‘고적(古跡)’을 포괄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35)은 ‘지명’이 선행 성분으로 사용되어 후행 성분과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후행하는 성분이 의미적으로 ‘싸우다(戰)’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지명+싸움’의 구조를 보이는 전문용어는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엄태경(2019: 142)에서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라이프치히의싸움(Battle of Leipzig)’, ‘마라톤전투(Battle of Marathon)’, ‘스탈린 그라드전투(Battle of Stalingrad)’, ‘워털루전투(Battle of Waterloo)’, ‘트라팔가르 해전(Battle of Trafalgar)’ 등의 용어들 모두 지명을 활용한 전문용어를 형성하는 예”라고 밝힌 바 있다.

3.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규범 분석

3.1. 어문 규범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남북의 언어 차이는 형태의 차이와 의미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상의 차이는 대부분 남과 북이 각각 제정한 어문 규범이 어휘에 적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광복 후 남측에서는 서울말을 바탕으로 한 표준어를 규범어로 정했고, 북측에서는 평양 등지의 북부 지역 말을 바탕으로 한 문화어를 규범어로 정했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어문 규범이 만들어지면서, 남북의 언어는 형태적 차이가 커지게 된 것이다.

남북의 용어는 그 일치도에 따라 ‘AA형’, ‘Aa형’, ‘AB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일 개념에 대해 양측이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AA형, 어문 규범과 관련한 부분만 다르고 동일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a형, 다른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B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AA형은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한 용어를 나타내므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유형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AB형은 남북이 같은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어가 다를 때 이를 통합하는 방법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의 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남북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용어를 생산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용어를 선택할지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신중진(2015~2019)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AB형에 비하면 Aa형은 어문 규범이 통합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측과 북측의 어문 규범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제정과 개정이 되어 왔고 이 규범이 오랫동안 준수되어 오면서 그 사회에 익숙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규범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규범어 통일을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 나가야 할 것이다.

어문 규범을 통일하기 위해 상정해 볼 수 있는 단계로는, 먼저 남북의 어문 규범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다. 그다음으로 규범을 통합하여 남북 규범어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남북의 어문 규범에 대한 고찰이다. 남북의 어문 규범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의 규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울러 그 차이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이러한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남북의 어문 규범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체제가 통일된 뒤에야 비로소 언어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는 남북의 어문 규범의 통일을 지향하되, 현재는 남북의 어문 규범을 통합하기 위하여 남북의 규범을 이해하고 각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남북의 어문 규범을 음악, 미술 교과서에서 사용된 용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2. 어문 규범 분석의 실제

남측과 북측의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분단 이후 남북이 각자의 언어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상이한 규범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1954년에 ‘조선어철자법’이 북측에서 시행되기 전까지 남북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바탕으로 하나의 규범으로 언어생활을 해 왔다. 그 이후 남측에서는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58)을 거쳐, 현재는 문교부에서 고시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1988)에 따른 용어를 표준어로 삼고 규범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반면에 북측에서는 ‘조선어철자법’(1954)을 만든 후, ‘조선말규범집’(1966)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수정하고 보완한 ‘조선말규범집’(1987)에 따른 용어를 규범어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측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달라진 내용이 많이 보인다.

현재 남측의 언어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북측은 ‘조선말규범집, 외국말적기법,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측과 북측의 규범을 보면 구성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남측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 문장 부호’ 규정을 포함시켜 놓은 데 반해, 북측에서는 ‘조선말규범집’에 맞춤법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표준어 규정을 별도 규범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북측에서는 문화어 규범을 따로 정하지 않고 ‘조선말규범집’(1987)에 문화어 발음법이 들어가 있는 점도 다른 부분이다.

‘한글 맞춤법(1988)’과 ‘조선말규범집(1987)’을 살펴보면, 총칙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칙은 남북의 형태 규범을 총괄하는 것으로, 각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남북의 형태 규범의 총칙은 상이한 면이 있다. ‘한글맞춤법(1988)’에서 보면, 제1장 총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말규범집(1987)’에 보면 제1장 총칙에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1988)은 총칙에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음소주의에 따라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유표적으로 인정하여 형태를 소리와 달리 적는 것을 규범을 통하여 보인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조선말규범집’(1987)에서는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형태 표기)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의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말규범집(1987)의 총칙이 기본적으로 형태주의 원칙을 따르지만 실제 규범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부분을 유표적으로 보이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남과 북에서 각각 규정하는 이 규범을 따를 경우 ‘한글 자모 명칭, 자모의 배열 순서,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두음법칙, 사이시옷, 형태 표기’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이처럼 남북의 어문 규범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특히 ‘두음법칙’과 ‘사이시옷’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한글 맞춤법(1988)’과 ‘조선말규범집(1987)’ 외에 다른 규정에서는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측과 북측의 규범 차이가 두드러진 ‘두음법칙’, ‘사이시옷’, 그리고 외래어 표기 방식을 중심으로 남북 용어의 규범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2.1. 두음법칙

남북의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북은 독자적으로 맞춤법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규범에서 여러 차이를 보인다. 그중에서도 두음법칙 표기는 남북 표기법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규정이다. 왜냐하면 두음법칙은 남측에서만 따로 적용하고 있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두음법칙은 북측에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남측에서만 나타나는 규범 현상으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남측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그대로 계승하여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북측은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한자의 본음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 표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남과 북에서는 낱말 첫머리에서의 한자음 ‘ㄱ’과 ‘ㄴ’의 표기에 차이가 나게 되었다. 남측의 두음법칙 표기 규정과 이와 비교되는 ‘조선말규범집’(198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 한글 맞춤법(1988) 제5절 두음법칙

-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

- 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37) 조선말규범집(1987) 제7장 한자말의 적기

- 제25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남북의 두음법칙 적용 여부에 따라 용어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음악과 미술 교과서에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38) | 여악-녀악 | 여성합창-녀성합창 |
| | 여창-녀창 | 여성고음-녀성고음 |

남과 북의 용어는 초성이 ‘ㄴ’, ‘ㄹ’인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의 표기에서 차이가 난다. 남측은 한글맞춤법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ㄴ’인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현실 발음을 존중하여 ‘ㅇ’으로 표기하지만, 북측은 한자의 본음 ‘ㄴ’을 그대로 밝혀 표기한다. (38)에서 보면 남측은 ‘녀(女)’가 ‘여(女)’로 쓰이고 있고, 북측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 | | | |
|------|-----------|-----------|
| (39) | 연음-련음 | 용선-룡선 |
| | 연통-련통 | 용고-룡고 |
| | 영도-령도 | 육려-륙려 |
| | 연습곡-련습곡 | 입창-립창 |
| | 영산회상-령산회상 | 육자배기-륙자배기 |

- | | | |
|------|-----------|-----------|
| (40) | 양감-량감 | 입방체-립방체 |
| | 입체-립체 | 입체감-립체감 |
| | 입체조형-립체조형 | 입체주의-립체주의 |

(39)는 음악 용어이고, (40)은 미술 용어이다. 남측은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규범이 적용되어 ‘ㄹ’이 ‘ㅇ’으로 표기가 된 것이다. 반면에 북측은 한자의 본음 ‘ㄹ’을 밝혀 표기하고 있다.

남측은 제11항에 [붙임] 규정이 있어서, ‘렬, 룰’을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 | | |
|------|-----------|-----------|
| (41) | 선울-선룰 | 기준울-기준룰 |
| | 조울-조룰 | 십이울-십이룰 |
| | 주선울-주선룰 | 주제선울-주제선룰 |
| | 고정선울-고정선룰 | 선울악기-선룰악기 |

원칙적으로 두음법칙 표기는 ‘ㄴ’, ‘ㄹ’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경우 적용하는 표기 규정이다. 그런데 남측에서 ‘렬’, ‘룰’ 등이 단어 첫머리가 아님에도 현실음을 존중하여 두음법칙을 표기에 적용하고 있다. 남측에서 ‘렬’, ‘룰’은 모음이 나 ‘ㄴ’ 받침 뒤에 올 때 ‘열’, ‘울’로 표기하고, 그 외의 조건에서는 ‘렬’, ‘룰’로 표기한다. 하지만 북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선룰’, ‘조룰’ 등으로 표기한다.

- | | | |
|------|-------|-----------------|
| (42) | 눅음-록음 | 낭만파-랑만파 |
| | 눔음-롱음 | 낭만파음악-랑만파음악 |
| | 눔현-롱현 | 낭만파작곡가-랑만파작곡가 |
| | 노고-로고 | 낭만주의-랑만주의 |
| | 뇌고-뢰고 | 신낭만주의-신랑만주의 |
| | 뇌도-뢰도 | 낭만주의오페라-랑만주의오페라 |

- (43) 낙관-락관
 낭만주의-랑만주의

(42)-(43)은 남측에서 한글 맞춤법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라는 두음법칙 규정이 적용되어 남측과 북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어들이다. (42)는 음악 용어이고, (43)은 미술 용어이다. ‘낭만주의’라는 용어는 음악과 미술 교과서에 모두 출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그대로 계승하여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남측은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온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였다는 점과 현실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항이 복잡하고 예외 조항이 많아 일반인이 익히기가 어렵고 동음이의어가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북측은 형태주의 표기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한자의 본음대로 적는다. 북측의 두음법칙 표기는 동음이의어를 줄이고, 형태를 밝혀 적어 가독성이 높다는 장

점이 있으나, 현실 발음을 인정하지 않고 표기에 의해 발음을 강제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음법칙은 이처럼 북측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남측에서만 나타나는 규범 현상으로 가장 현저한 남북의 언어 차이를 보여 준다. 홍종선·최호철(1998), 김민수(2002), 장은하(2002) 등에서는 발음과 표기의 이원화를 인정하여 표기에 있어서는 1한자 1표기의 형태주의적 방식으로 고수하되 발음에 있어서만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발음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있다. 한자가 우리말화하는 과정에서 어두 위치에서는 본음과 다른 이음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2.2. 사이시옷

사이시옷 표기도 남북의 표기 규범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차이 가운데 하나이다. 남측은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규정을 계승하고 있으나, 북측은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 형태주의 표기를 취하고 있다. 남측의 사이시옷 표기 규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한글맞춤법(1988)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남측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계승하여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남측에서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그리고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개에 한해 사이시옷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접 구성 성분이 같은 고유어 합성어이면서 둘 사이에 의미 차이가 나는 단어에 한해서만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45) 조선말규범집(1987)

제14항 합친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항 합친말을 이룰적에 ‘ㅂ’이 덧나거나 순한 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어나는 것은 덧나고 바뀌어나는대로 적는다.

[붙임]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셋별-새별, 빗바람-비바람

북측은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동형어 몇 개에 한해서만 의미 변별을 위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 교과서에서는 사이시옷 규정이 적용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미술 용어는 보이지 않고, 음악 용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출현하였다.

- (46) 가. 뱃노래-배노래
 나. 아랫성부-아래성부
 다. 상엿소리-상여소리

(46가)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해당하고,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용어이다. (46나, 다)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용어들이다.

남측은 사이시옷을 적용함으로써 적지 않은 단어에 사이시옷 표기를 해야 하고, 또한 그 기준이 발음이어서 일반인들이 학습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반면에 북측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형태주의 표기법을 실현하고 있으나 발음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과 동음이의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이시옷에 따른 남북측의 용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태를 밝히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한글 맞춤법(1988) 제30항의 입장을 확장하여 고유어든 한자어든 된소리나 ‘ㄴ’ 첨가와 같은 음운현상이 나타날 때 사이시옷을 쓰도록 단서 조항을 다는 방법의 통일안이 제시될 수도 있겠고, 조선말규범집(1987) 제14항대로만 원칙을 정하고 따로 사이시옷 규정을 두지 않는 것도 규범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박선우(2002)에서는 고유어에서는 남한의 표

기법에 따라 사이시옷을 반영하고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어 6개의 사이시옷 표기의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북한의 입장에 따라 사이시옷을 반영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사이시옷 표기의 단일화 방안으로 남측의 복잡한 사이시옷 표기 환경을 줄이고, 북측의 사이시옷 표기 환경은 늘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의 일방적인 제안이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운 절충안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3.2.3. 외래어 표기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국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어의 언어 규칙을 따라야 하고 국어식으로 발음해야 한다. 남측의 ‘외래어 표기법’(1986)은 4장 112항으로 15개 언어 적기법이 있고, 북측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은 7장 103항, ‘외국말적기법’(1985)은 총칙과 8개 언어 적기법으로 되어 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언어 정책과 외국의 언어 접촉이 서로 달라져 이질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북측은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을 공포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남북측의 언어는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6년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고 기존 외래어 표기법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남측의 외래어 표기법과 북측의 표기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47) 남측의 외래어 표기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일람표, 제3장 표기세칙(7개 국어), 제4장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

(48) 북측의 외래어 표기

제Ⅰ장 서론, 제Ⅱ장 조선어 자모에 의한 로씨야어 자모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 제Ⅲ장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음성기호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 제Ⅳ장 철자법의 일반적 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제Ⅴ장 정칙 발음법의 일반적 규칙과 관련되는 규정, 제Ⅵ장 구두점과 관련되는 규정, 제Ⅶ장 외래어 사정에 관련되는 규정

남측은 제1장에서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북측은 외래어로서 러시아어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국제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보다 러시아어의 표기가 우선한다. 서론의 제4항의 규정을 보면 “그의 어음 구성이 류사한 외래어는 가급적 현대 로씨야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의거하여 표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제I 장 서론에는 12개 항에 걸친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법의 원칙 외에 표기법의 목적,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 사용 원칙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2항 “외래어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어 가운데서 사용되는 외국의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도 포함하는 그의 외국어적 기원이 명백한 단어들을 의미한다.”에는 외래어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제6항에서는 “라틴어부터 유래하는 학술용어에 대해서는 라틴어에 대한 로씨야어식 발음으로써 그의 표기법을 고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조선인민의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은 제한할 것이며, 조선어의 어휘론적 자료로써 그 개념을 표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만 외래어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외래어 사용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제8항에서는 현행 조선어 자모 체계를 40자를 인정하고 있다. 제11항 “로씨야어와 같이 그의 철자법이 형태주의에 립각하고 있는 언어로부터 유래한 외래어의 어음 구성 및 그의 표기법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원어의 자모와 조선어 자모와를 직접 대조시키되 영어나 불란서와 같이 그의 철자법이 력사주의에 립각하고 있는 언어로부터 유래한 외래어의 어음 구성 및 그의 표기법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원어의 원음을 표시한 보조적 음성기호와 조선 자모와의 대조를 매개로 한 것을 원칙으로 삼되 매개언어의 발음상 특성을 참작한다”고 밝힌 원칙도 러시아어식 표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외래어 표기 규범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남북 용어는 된소리 표기와 관련된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된소리 표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측의 외래어 표기법에는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달리 북측의 규범에서는 파열음 표기에 예사소리나 거센소리를 대응시킨 것도 있고, 사전과 교과서의 용례에서는 된소리로 표기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정동환 2002: 248). 이처럼 외래어 표기 원칙을 바탕으로 남측과 북측의 외래어 표기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9)	솔-쫄	로시니-로씨니
	솔로-쫄로	크레센도-크레첸도
	소나타-쫄나타	글리산도-글리싼도
	소나티네-쫄나티네	메노모소-메노모쫄
	소프라노-쫄프라노	포르티시모-포르티씨모

색소폰-색스폰

피아니시모-피아니씨모

- (50) 메조포르테-메쵸포르테
메조피아노-메쵸피아노
메조소프라노-메쵸쑈프라노

모차르트-모쵸르트
스케르초-스케르쵸
스포르찬도-스포르쵸도

- (51) 칸타타-칸따따
캐스터네츠-까스따넛띠
오라토리오-오라또리오

리스트-리스뜨
스메타나-스메따나
알레그레토-알레그레또

- (52) 가부키-가부끼
무소륵스키-무쑈르스끼
차이콥스키-차이쑹스끼
림스키코르사코프-림스끼꼬르싸꼬브

(49)-(52)는 음악 용어로, (49)는 남측에서는 ‘ㅅ’로 표기한 것을 북측에서는 ‘ㅆ’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50)은 남측에서 ‘ㅈ, ㅉ’로 표기한 것을 북측에서는 ‘ㅊ’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51)은 남측에서 ‘ㄷ’로 표기한 것을 북측에서는 ‘ㅌ’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52)는 남측에서 ‘ㄱ’로 표기한 것을 북측에서는 ‘ㅋ’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미술 용어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 (53) 르네상스-르네쌍스

아시리아미술-아씨리아미술

- (54) 에스키스-에스끼스
로마네스크-로마네스끄
로마네스크미술-로마네스끄미술
로마네스크양식-로마네스끄미술양식

로코코-로꼬꼬
로코코미술-로꼬꼬미술

- (55) 알타미라-알따미라

네페르티티-네페르찌찌

(53)-(55)는 미술 용어이며, (53)은 남측에서 ‘ㅅ’로 표기한 것을 북측에서는 ‘ㅆ’로 표기한 용어들이다. (54)는 남측에서 ‘ㄱ’로 표기한 것을 북측에서 ‘ㅋ’로 표기한 용어들이다. (55)는 ‘남측에서 ‘ㄷ’로 표기한 것을 북측에서는 ‘ㅌ’와 ‘ㅊ’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 (56) 페르마타-훼르마타
피네-휘네
파-화

(56)은 [f] 발음을 남측에서는 ‘표’로 표기하고, 북측은 ‘ㅎ’로 표기한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과 북이 1음운에 대응시킨 1기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잉글리시호른-잉글리쉬호른’은 ‘어말 [ʃ]는 ‘시’, 자음 앞의 [ʃ]는 ‘슈’,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세, 쇼, 슈, 시’로 적는’ 남측 규범에 따라 남측은 ‘잉글리시’로 표기하고 북측은 ‘일글리쉬’로 표기하였다.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모음의 표기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 (57) 가. 트라이앵글-트라이앙글
나. 드럼-드람
다. 플루트-플류트
라. 드보르자크-드보르자끄
마. 베이스-바스

(57가, 나)는 남측의 ‘ㅈ’, ‘ㄷ’를 북측에서는 ‘ㅊ’로 표기하고 있었고, (57다, 라)는 남측에서 단모음으로 표기하는데, 북측에서는 이중모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예이다. 반대로 (57마)는 남측에서 긴모음으로 표기하는 용어를 북측에서는 짧은모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이다. 미술 용어 중에서는 ‘비너스-비나스’와 같은 단어를 남측은 ‘ㄷ’로 표기하고 북측은 ‘ㅊ’로 표기하여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 (58) 듀엣-두에트
트럼펫-트럼페트
클라리넷-클라리네트
업라이트피아노-아프라이트피아노

(58)은 남측에서는 어말과 자음 앞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대체로 받침으로 적고, 어말과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예외 없이 ‘으’로 붙여 적는 남측의 규범에 따라 남측은 ‘ㄸ, ㅂ’ 받침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북측은 ‘으’로 음절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술 용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딕-고시크’가 포함된 용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측은 ‘Gothic’의 ‘thic’를 ‘딕’으로 표기하는 반면에 북측은 ‘시크’로 음절을 추가하여 표기하고 있었다. [θ]의 발

음이 남측에서는 ‘ㄷ’로, 북측에서는 ‘ㅅ’로 표기하고 있었다.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는 외래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하느냐에 있다. 남측에서는 넓은 의미의 외래어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 북측에서는 국어 속에 거의 동화되어 쓰이는 것에 한정하여 외래어 범위를 설정하는 좁은 의미의 외래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직 국어 속에서 동화가 덜 되어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에 대해서는 ‘외국말’로 구분하여 ‘외국말 적기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 용어는 특히 외래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측은 “로씨야어 이외의 외국어로부터 유래한 외래어로서 그 발음이 로씨야어와 비슷한 것을 가급적 로씨야어의 표기법에 따른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어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친 외래어표기’(1984)에는 김정일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 말인가를 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와 같이 언급한 이후, 러시아어 발음 표기에서 원음주의를 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해당 외래어의 원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원어가 명백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고친 원칙 중에 “음악 부문의 이탈리아말 계렬의 외래어는 지금 쓰고 있는 라틴말식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규정도 있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관계를 맺는 국가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 문물의 수입 경로가 달라지면서 외래어에도 차이가 나게 되었다. 또한 외래어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외국 문물의 수용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래어에 대한 규범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도 반세기 동안 달라진 외래어 표기법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외래어 표기법의 통일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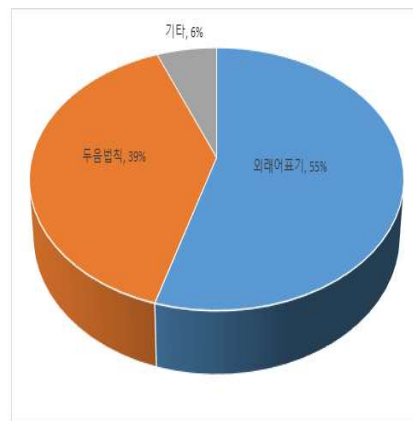
3.3. 종합적 어문 규범 분석

3.3.1. 규범 유형별 비교

지금까지 남북 음악, 미술 분야에 나타난 용어 중에서 어문 규범에 따라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 즉 Aa형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Aa형 내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음악과 미술 분야의 Aa형 용어들을 규범에 따라 구분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여 보았다.



[그림 35] 음악 A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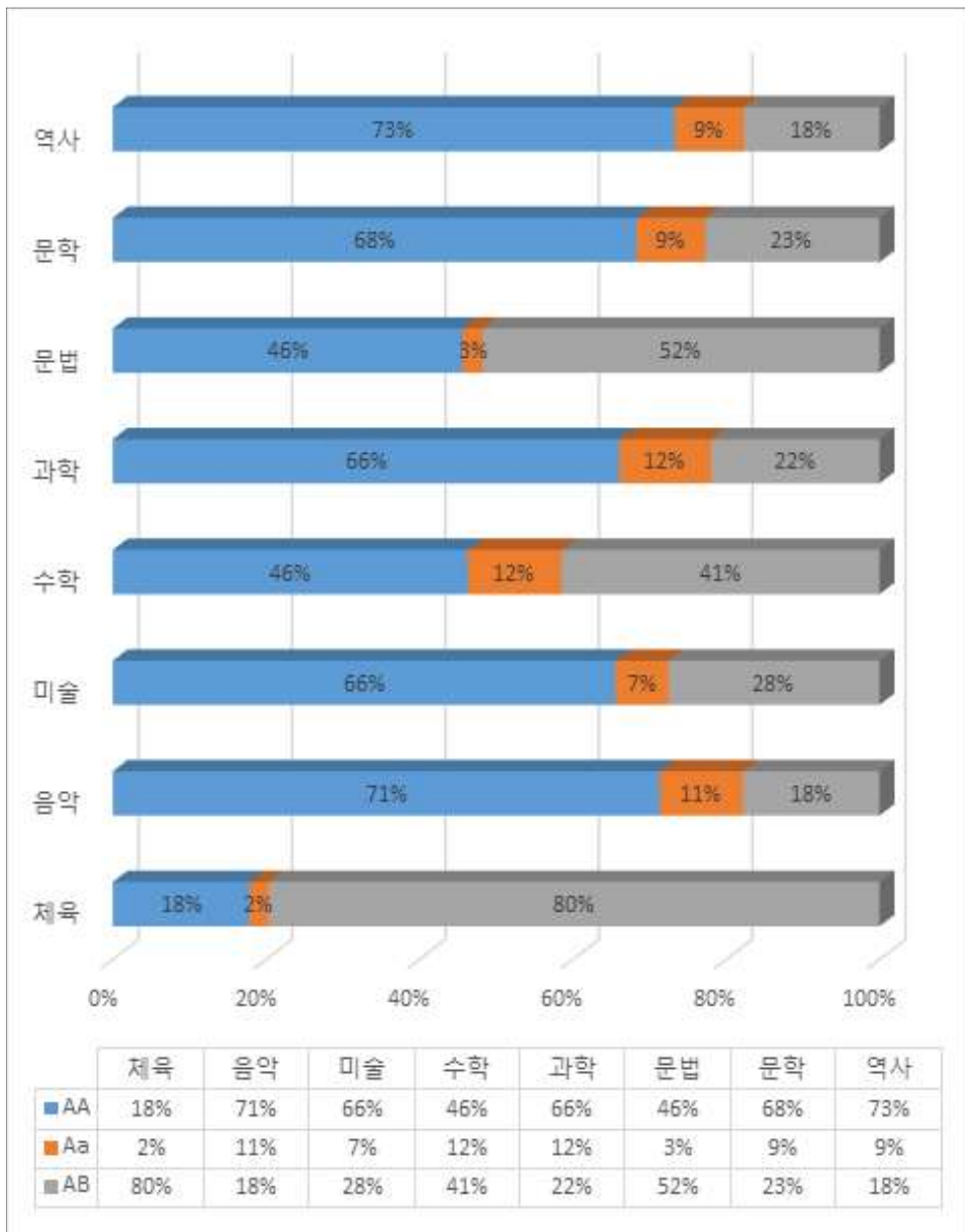


[그림 36] 미술 Aa형

[그림 35]는 음악 용어를 분석한 것인데, 음악 분야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영향을 받아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차이 나는 용어들이 Aa형의 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두음법칙에 따른 용어 차이가 35%로 나타났다. 사이시옷 적용에 따른 차이도 2%로 나타났다. [그림 36]은 미술 분야에서 규범에 의해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Aa형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음악과 마찬가지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차이가 55%로 가장 많았고, 두음법칙이 3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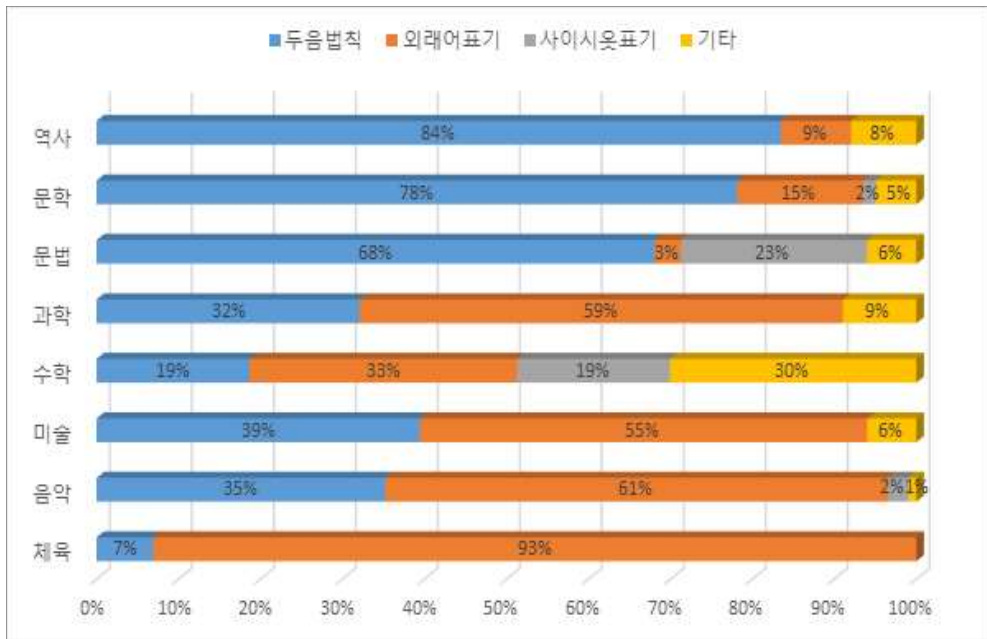
3.3.2. 분야별 비교

앞에서 살펴본 음악과 미술 분야의 Aa형을 다른 교과 분야의 용어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7] 분야별 AA, Aa, AB형

Aa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수학 = 과학 > 음악 > 역사 = 문학 > 미술 > 문법 > 체육’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의 Aa형 내에서 어떤 규범에 의한 영향이 컸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8] 규범 차이에 따른 용어 비율

어문 규범에 따른 형태 차이를 보이는 용어 중에서, 두음법칙은 ‘역사 > 문학 > 문법 > 미술 > 음악 > 과학 > 수학 > 체육’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역사, 문학, 문법 등 인문 분야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났다. 사이시옷 표기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는 용어들은 ‘문법, 수학, 음악, 문학’ 분야에서만 나타났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는 용어들은 ‘체육 > 음악 > 과학 > 미술 > 수학 > 문학 > 역사 > 문법’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역사 분야에서, 두음법칙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는 용어들은 ‘국제연맹-국제련맹, 상경용천부-상경룡천부, 안용복-안룡복, 양반-량반, 영선사-령선사, 요동성전투-료동성전투, 이규보-리규보, 나선정벌-라선정벌, 낙랑-락랑, 난전-란전, 냉전-랭전, 노동계급-로동계급, 나당연합군-라당연합군, 녹읍-록읍, 구여성-구녀성, 신여성-신녀성, 여성-녀성, 여진-녀진, 여진정벌-녀진정벌, 여진족-녀진족, 연호-년호’ 등이 있었다. 특히 ‘이규보-리규보’, ‘유인석-류인석’, ‘안용복-안룡복’ 등과 같이 인명을 표기하는 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역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는 용어들은 ‘가쓰라-가쓰라, 다루가치-다로가치, 도요토미히데요시-도요도미히데요시, 러시아-로씨야, 이토히로부미-이또히로부미, 칭기즈칸-칭기스한, 태프트-타프트, 하얼빈-할빈’ 등이 출

현하였으며, 남측이 예사소리나 거센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대신 북측은 경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루가치-다로가치’, ‘러시아-로씨야’, ‘테프트-타프트’ 등의 용어에서처럼 모음의 선택에서도 남북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 주었다.

문학 분야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는 용어로 ‘연작소설-련작소설, 역사적배경-력사적배경, 운율-운률, 여성명사-녀성명사, 연상-련상, 율문-률문, 낭만주의-랑만주의, 역사소설-력사소설, 논설문-론설문’ 등이 있었으며, 사이시옷 표기 규범으로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되풀잇법-되풀이법’, 외래어 표기법으로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러시아문학-로씨야문학, 클라이맥스-클라이막스, 로맨스-로만스, 몽타주-몽파쥬, 프롤레타리아문학-프로레타리아문학, 러시아문학-로씨야문학, 이솝우화-이소프우화’ 등이 있었다.

문법 분야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는 용어로 ‘이두-리두, 노어-로어, 예문-례문, 여성대명사-녀성대명사, 여성명사-녀성명사, 약어-략어, 역사문법-력사문법, 연결부-련결부, 영남방언-령남방언, 예문-례문, 이두-리두’ 등이 있었다. 사이시옷의 차이가 드러나는 용어는 ‘가운뎃소리-가운데소리, 가운뎃점-가운데점, 반잇소리-반이소리, 잇몸소리-이몸소리, 잇소리-이소리, 헛바닥소리-허바닥소리’ 등이 있었다.

체육 분야는 90% 이상이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가 드러나는 용어들이었는데, ‘폴인-폴린, 소프트볼-쏘프트볼, 카누-커누, 배드민턴-바드민톤, 홈런-홈란, 더블플레이-다블플레이, 타이어-다이아, 패널티킥-패널티킵, 다이빙캐치-다이빙캐취, 노르딕스키-노르딕크스키, 레슬링-레스링, 그립-그리프, 터치아웃-터취아웃, 노트아웃-노트아웃, 스트라이크아웃-스트라이크아웃, 타임아웃-타임아웃, 노카운트-노우카운트’ 등이 있었다. 그 밖에 두음법칙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농구/롱구, 농구대/롱구대’ 등이 있었다.

과학 분야에서 외래어 표기 규범에 따라 달라진 용어는 ‘파섹-파세크, 스피너-스피노르, 보어마그네톤-보르의마그네톤, 하위헌스의원리-후이겐스원리, 리파아제-리파제, 림프구-림파구, 말피기관-말뻐기관, 코르티솔-코르티졸’ 등이 있었다. 다음은 두음법칙의 적용 유무에 따라 달라진 용어로 ‘대전입자-대전립자, 임계상태-림계상태, 뉴턴역학-뉴턴력학, 발머계열-발메르계렬, 난원세포-란원세포, 이중나선-이중라선, 여포-려포’ 등이 있다.

수학 분야는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피타고라스의정리-피다고라스의정리, 함수의그래프-함수의 그래프, 피보나치수열-피보낫치수, 단위벡터-단위벡토르, 법선벡터-법선벡토르, 벡터-벡토르, 사인-시누스, 영벡터-령벡토르, 위치벡터-위치벡토르, 코사인-코시누스, 코사인함수-코시누스함수, 탄젠트-탕겐스’ 등이 있었다. 두음법칙의 적용 유무와 관련된 용어는 ‘연결성행렬-련결성행

렬, 연립방정식-련립방정식, 연쇄법칙-련쇄법칙, 수열-수렬, 연립부등식-련립부등식, 연속-련속, 연속함수-련속함수, 중복순열-중복순렬’ 등이 그 예이다. 사이스옷 표기 유무와 관련된 어휘도 보였는데, ‘극댓값-극대값, 기댓값-기대값, 대푯값-대표값, 절댓값-절대값, 최댓값-최대값, 최솟값-최소값, 함솟값-함수값’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야별 용어들을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두음법칙과 관련된 용어

분야	용어
문법	노어-로어, 언어연대학-언어년대학, 여성대명사-녀성대명사, 여성명사-녀성명사, 약어-략어, 약어법-략어법, 역사문법-력사문법, 역사언어학-력사언어학, 연결부-련결부, 연결부호-련결부호, 연서-련서, 영남방언-령남방언, 예문-례문, 유어-류어, 이도-리도, 이두-리두, 이서-리서, 이찰-리찰, 이토-리토, 이투-리투, 후기이두-후기리두
문학	나열식-라렬식, 난새-란새, 낭만주의-랑만주의, 낭송-랑송, 노포-로포, 논-론, 논설문-론설문, 논설체-론설체, 논책-론책, 문학논설-문학론설, 여성운-녀성운, 염원-념원, 가새염-가새렴, 감정연결-감정련결, 단연체-단련체, 배울시-배률시, 산문율-산문률, 여문-려문, 여행기-려행기, 역사설화-력사설화, 역사소설-력사소설, 역사적 배경-력사적배경, 연-련, 연관성-련관성, 연구-련구, 연구시-련구시, 연상-련상, 연시-련시, 연시-련시, 연시조-련시조, 연애시-련애시, 연작-련작, 연작소설-련작소설, 연주-련주, 연주시-련주시, 연주체-련주체, 열각성-렬각성, 열거법-렬거법, 염-렴, 영역-령역, 오율-오률, 운율-운률, 유형-류형, 육일-륙일, 율문-률문, 율부-률부, 율시-률시, 율절-률절, 율조-률조, 이념-리념, 이별-리별
미술	낙관-락관, 낭만주의-랑만주의, 양감-량감, 역사화-력사화, 영모도-령모도, 율동감-률동감, 임화-림화, 입방체-립방체, 입체-립체, 입체감-립체감, 입체성-립체성, 입체조형-립체적조형, 입체주의-립체주의
수학	귀류법-귀유법, 불연속-불련속, 수열-수렬, 연립방정식-련립방정식, 연립부등식-련립부등식, 연속-련속, 연속함수-련속함수, 중복순열-중복순렬
역사	금난전-금란전, 금난전권-금란전권, 나선정벌-라선정벌, 나성-라성, 나운규-라운규, 낙랑-락랑, 낙랑군-락랑군, 낙론-락론, 난전-란전, 남조선노동당-남조선로동당, 낭도-랑도, 낭사-랑사, 냉전-랭전, 노동계급-로동계급, 노동운동-로동운동, 노랑대첩-로랑대첩, 노랑해전-로랑해전, 노론-로론, 녹봉-록봉, 녹읍-록읍, 부역노동-부역로동, 사문난적-사문란적, 조선노동공제회-조선로동공제회, 조선노동총동맹-조선로동총동맹, 허난설현-허란설현, 홍난파-홍란파, 나당연합군-라당련합군, 나당연합군-라당련합군, 고려가야-고녕가야, 무령왕-무녕왕, 무령왕릉-무녕왕릉, 구여성-구녀성, 신여성-신녀성, 여성-녀성, 여성운동-녀성운동, 여진-녀진, 여진정벌-녀진정벌, 여진족-녀진족, 연분구등법-년분구등법, 연호-년

	<p>호, 육살-녹살, 이사금-니사금, 진성여왕-진성녀왕, 경제육전-경제륙전, 국제연맹-국제련맹,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전보장리사회, 권율-권률, 동국이상국집-동국리상국집,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군육진-사군륙진, 사육신-사륙신, 삼성육부-삼성륙부, 상경용천부-상경룡천부, 생육신-생륙신, 안용복-안룡복, 양계-량계, 양기탁-량기탁, 양반-량반, 양반전-량반전, 양안-량안, 양역실총-량역실총, 양인-량인, 양진-량진, 양전사업-량전사업, 양현수-량현수, 열강-렬강, 영객부-령객부, 영남학과-령남학과, 영선사-령선사, 영의정-령의정, 예부-례부, 예성강도-례성강도, 예송-례송, 예작부(-례작부, 예학-례학, 오경십오부육십이주-오경십오부륙십이주, 오도양계-오도량계, 요동성-료동성, 요동성전투-료동성전투, 요동원정-료동원정, 요하계선-료하계선, 용비어천가-룡비어천가, 유관순-류관순, 유득공-류득공, 유랑민-류랑민, 유배-류배, 유성룡-류성룡, 유인석-류린석, 유인원-류인원, 유학생-류학생, 유향-류향, 유향소-류향소, 유형원-류형원, 유흥기-류흥기, 육가야-륙가야, 육두품-륙두품, 육부-륙부, 육상서-륙상서, 육위-륙위, 육조-륙조, 육조직계-륙조직계, 육좌평-륙좌평, 육좌평제도-륙좌평제도, 육진-륙진, 윤작법-륜작법, 율령-률령, 의방유취-의방류취, 이괄의난-리괄의난, 이규경-리규경, 이규보-리규보, 이덕무-리덕무, 이동휘-리동휘, 이두-리두, 이문진-리문진, 이방부-리방부, 이방원-리방원, 이범윤-리범윤, 이산가족-리산가족, 이상설-리상설, 이상재-리상재, 이상좌-리상좌, 이상화-리상화, 이색-리색, 이성계-리성계, 이수광-리수광, 이순신-리순신, 이승훈-리승훈, 이시애-리시애, 이완용-리완용, 이용후생학과-리용후생학과, 이원익-리원익, 이의민-리의민, 이의방-리의방, 이이-리이, 이익-리익, 이인로-리인로, 이인영-리인영, 이자겸-리자겸, 이자성-리자성, 이제마-리제마, 이제현-리제현, 이조-리조, 이조전랑-리조전랑, 이종무-리종무, 이준-리준, 이중환-리중환, 이항로-리항로, 임궫정-림궫정, 임병찬-림병찬, 임원경제지-림원경제지, 입헌군주제-림헌군주제, 정인지-정린지, 제국주의열강-제국주의렬강, 지봉유설-지봉류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혼일강리력대국도지도</p>
음악	<p>나-라, 낭만주의-랑만주의, 낭만주의오페라-랑만주의오페라, 낭만파-랑만파, 낭만파음악-랑만파음악, 낭만파작곡가-랑만파작곡가, 노고-로고, 노도-로도, 노부-로부, 녹음-록음, 농음-룡음, 농현-룡현, 너고-뢰고, 너도-뢰도, 신낭만주의-신랑만주의, 여성합창-녀성합창, 여성고음-녀성고음, 여악-녀악, 여창-녀창, 고정선율-고정선률, 기준율-기준률, 삼현육각-삼현륙각, 선율-선률, 선율악기-선률악기, 선율윤곽-선률윤곽, 십이율-십이률, 연습곡-련습곡, 연음-련음, 연통-련통, 영도-령도, 영산회상-령산회상, 용고-룡고, 용선-룡선, 육려-륙려, 육률-륙률, 육자배기-륙자배기, 율-률, 율관-률관, 율려-률려, 입창-립창, 조율-조률, 주선율-주선률, 주제선율-주제선률</p>
과학	<p>난류-란류, 난반사-란반사, 나선균-라선균, 난소-란소, 난자-란자, 남세균-람조균, 남조류-람조류, 녹조류-록조류, 냉각곡선-랭각곡선, 양자-량자, 양자론-량자론, 양자수-량자수, 양자화-량자화, 역학적에너지-력학적에네르기, 연속방정식-</p>

	<p> 연속방정식, 연속스펙트럼-연속스펙트르, 열역학제일법칙-열역학제1법칙, 열역학제이법칙-열역학제2법칙, 열효율-열효률, 유체-류체, 일반상대성이론-일반상대성리론, 임계온도-림계온도, 임계각-림계각, 입자-립자, 자유낙하-자유락하, 자유입자-자유립자, 특수상대성이론-특수상대성리론, 핵분열-핵분렬, 감수분열-감수분렬, 분열조직-분렬조직, 분열기-분렬기, 세포분열-세포분렬, 세포질분열-세포질분렬, 실무울-실무률, 연관유전-련관유전, 연속변이-련속변이, 열성-렬성, 우열의법칙-우렬의법칙, 자율신경-자률신경, 핵분열-핵분렬, 불연속면-불련속면, 유성체-류성체, 영차반응-령차반응, 이상기체-리상기체 </p>
체 육	<p> 농구-롱구, 농구대-롱구대 </p>

<표 52> 사이시옷 규범과 관련된 용어

분 야	용어
문 법	<p> 가운뎃소리-가운데소리, 가운뎃점-가운데점, 반잇소리-반이소리,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수자, 잇몸소리-이몸소리, 잇소리-이소리, 헛바닥소리-헛바닥소리 </p>
문 학	<p> 되풀이법-되풀이법 </p>
수 학	<p> 극댓값-극대값, 극솟값-극소값, 기댓값-기대값, 대푯값-대표값, 절댓값-절대값, 최댓값-최대값, 최솟값-최소값, 함숫값-함수값 </p>
음 악	<p> 뱃노래-배노래, 아랫성부-아래성부, 상엿소리-상여소리 </p>

<표 53>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용어

분 야	용어
문 법	<p> 러시아어-로씨야어 </p>
문 학	<p> 러시아문학-로씨야문학, 몽타주-몽파쥬, 파토스-빠포스, 파리코뮌문학-빠리꿈문문학, 로맨스-로만스, 클라이맥스-클라이막스, 발라드-발라다, 프롤레타리아문학-프로레타리아문학, 이솝우화-이소프우화, 로망-로만스 </p>
미 술	<p> 메디치-메디찌, 로코코-로꼬꼬, 로코코미술-로꼬꼬미술, 카타콤-가타콤베, 콩테-콘테, 모나리자-몬나리자, 에스키스-에스끼스, 로마네스크 미술-로마네스끄미술, 로마네스크 양식-로마네스끄미술양식, 로마네스크-로마네스끄, 르네상스-르네쌍스, 아시리아미술-아씨리아미술, 알타미라-알따미라, 네페르티타-네페르찌찌, 모티브-모찌브, 고딕-고시크, 고딕미술-고시크미술, 밀로의비너스-미로의 비나스 </p>
수	<p> 피타고라스의정리-피다고라스의정리, 함수의그래프-함수의 그래프, 피보나치수 </p>

학	열-피보네티치수, 단위벡터-단위벡토르, 법선벡터-법선벡토르, 벡터-벡토르, 사인-시누스, 사인함수-시누스함수, 영벡터-영벡토르, 위치벡터-위치벡토르, 코사인-코시누스, 코사인함수-코시누스함수, 탄젠트-탕젠스, 탄젠트함수-탕젠스함수
역사	러시아-로씨야, 가쓰라-가쯔라, 미쓰야협정-미쯔야협정, 칭기즈칸-칭기스한, 도쿠가와이에야스-도꾸가와, 시모노세키조약-시모노세끼조약, 아스카문화-아스카문화, 다카마쓰무덤-다까마쯔무덤, 도요토미히데요시-도요도미히데요시, 이토히로부미-이토히로부미, 파리강화회의-빠리강화회의, 태프트-타프트, 러일전쟁-로일전쟁, 다루가치-다로가치, 마르크스레닌주의-맑스레닌주의, 하얼빈-할빈
음악	트라이앵글-트라이앙글, 탬버린-탐브린, 재즈-자즈, 베이스클라리넷-바스클라리넷, 베이스-바스, 드보르자크-드보르자끄, 헨델-헨델, 아첼레란도-악첼레란도, 슈베르트-슈벨트, 시-씨, 악센트-악센트, 칸타타-칸따따, 캐스터네츠-까스따넛띠, 심벌즈-썸발, 앙상블-안삼블, 페르마타-훼르마타, 피네-휘네, 파-화, 차이콥스키-차이콥스끼, 가부키-가부끼, 립스키코르사코프-립스끼꼬르싸꼬브, 무소륵스키-무쑤르스끼, 알토클라리넷-알토클라리네트, 코넷-코르네트, 클라리넷-클라리네트, 클라리넷협주곡-클라리네트협주곡, 세뇨-쎄니오, 테너-테노르, 쇼팽-쇼뽕, 파가니니-빠가니니, 트럼펫-트럼페트, 피콜로-픽콜로, 론도소나타형식-론도쑤나타형식, 소나타-쏘나타, 소나타형식-쏘나타형식, 소나티네-쏘나티네, 소프라노-쏘프라노, 솔-쏄, 솔로-쏄로, 알토색소폰-알토쌉스폰, 색소폰-쌉스폰, 크레센도-크레쎄도, 데크레센도-데크레쎄도, 달세뇨-달쎄니오, 잉글리시호른-잉글리쉬호른, 소스테누토-쏘스떼누또, 글리산도-글리짚도, 로시니-로씨니, 메노모소-메노모쑤, 포르티시모-포르티씨모, 피아니시모-피아니씨모, 피우모소-피우모쑤, 리스트-리스뜨, 스메타나-스메따나, 오라토리오-오라또리오, 알레그로마논트로포-알레그로마논뜨로뽕, 에디트피아프-에디뜨빠아쁘, 알레그레토스케르찬도-알레그레토스케르짚도, 왈츠-왈쯔, 드럼-드람, 듀엣-두에트, 업라이트피아노-아프라이트피아노, 라흐마니노프-라흐마니노브, 실로폰-쎄로폰, 모차르트-모짜르트, 스케르초-스케르쑤, 스포르찬도-스포르짚도, 알레그로마그라치오소-알레그로마그라쑤오쑤, 메조포르테-메쑤포르테, 메조피아노-메쑤피아노, 메조소프라노-메쑤쑤프라노, 논레가토-논레카토, 알레그로주스토-알레그로쑤스토, 알토플루트-알토플류트, 플루트-플류트
과학	역학적 에너지-력학적에네르기, 연속스펙트럼-런속스펙트르, 라디오파-라지오파, 사이클로트론-싸이클로트론, 솔레노이드-쑤레노이드, 원동형선류, 싱크로트론복사-씽크로트론복수, 플라스마-플라즈마, 플라스미드-플라즈미드, 글리코젠-글리코겐, 할로젠-할로겐, 로런츠변환-로렌쯔변환, 로런츠힘-로렌쯔힘, 헤르츠-헤르쯔, 볼츠만상수-볼쯔만상수, 슈테판볼츠만의법칙-슈테판볼쯔만의법칙, 쿨롱-꼴롱, 카르노기관-까르노기관, 쿨롱의법칙-꼴롱의법칙, 훈트의규칙-훈드의규칙, 르사틀리에법칙-르샤텔리에원리, 토카막-또까마끄, 시냅스-시납스, 캘빈회로-칼빈회로, 맨틀-만틀, 크로마토그래피-크로마토그래프, 패러데이의법칙-파라데이법칙, 고체레이저-고체레이자, 레이저-레이자, 암페어-암페아, 뉴턴-뉴톤, 선스펙트럼-선스펙트르, 스펙트럼-스펙트르, 흡수스펙트럼-흡수스펙트르, 윈트겐-렌트겐,

	슈뢰딩거방정식-슈레딩거 방정식, 줄-줄, 줄열-줄열, 쿼리-큐리, 휘드베리상수-리드베르그상수, 터림프구-T림파구, 나노미터-나노메터, 키르히호프의법칙-키르호호프의법칙, 흑의법칙-흑크의 법칙, 칼로리-카로리, 나일론-나이론, 알칼리-알카리, 내부에너지-내부에너지, 에너지-에너지, 에너지보존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 에너지띠-에너지띠, 열에너지-열에너지, 운동에너지-운동에너지, 자기에너지-자리에너지, 전기에너지-전기에너지, 정지에너지-정지에너지, 케플러법칙-케플레르법칙, 위치에너지-위치에너지, 페르미에너지-페르미에너지, 핵에너지-핵에너지, 화학에너지-화학에너지, 뉴클레오타이드-뉴클레오타이드, 라이소자임-리조짐, 바이러스-비루스, 백신-확전, 알코올발효-알콜발효, 에너지대사-에너지대사,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펩타이드결합-펩티드결합, 폴리펩타이드-폴리펩티드, 결합에너지-결합에너지, 뉴클레오사이드-뉴클레오시드, 몰랄농도-몰농도, 에너지전환-에너지대사, 에너지준위-에너지준위, 에텐-에틸렌, 이온화에너지-이온화에너지, 자유에너지-자유에너지, 카복시기-카르복실기, 태양에너지-태양에너지, 패럿-파라드, 활성화 에너지-활성화에너지
체육	골-골, 골인-골인, 소프트볼-쏘프트볼, 밴텀웨이트-밴람급, 마라톤-마라손, 카누-커누, 배드민턴-바드민턴, 홈런-홈런, 러브-라브, 러버-라버, 더블플레이-다블플레이, 타이어-다이아, 페널티킥-페널티킥, 다이빙캐치-다이빙캐취, 노르딕스키-노르딕스키, 레슬링-레스링, 그림-그리프, 그림-그리프, 터치아웃-터취아웃, 노트아웃-노트아웃, 스트라이크아웃-스트라이크아웃, 타임아웃-타임아웃, 타임아웃-타임아웃, 넷아웃-넷아웃, 아웃-아웃, 세이프-세호, 노카운트-노우카운트

최근 김민수(2002)에서는 남북의 언어 통일이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예비 협의를 거쳐 흡수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의 정신에 따라 호혜 원칙을 준수한다는 대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이 세 가지는 ‘첫째, 남북의 서로 다른 규범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절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이 절충을 하지 못하거나 안 될 것은 사활을 걸고 싸우지 말고 남북의 제안을 복수로 수용하는 방안을 널리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남북의 절충이 불가능한 경우 제3의 기준이나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 모두 이미 오랫동안 유지하고 준수해 온 규범을 통일을 위해 단번에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그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어떤 규범의 대립적 양상은 단순한 절충이나 복수 인정으로 모두 해결될 성격도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특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두 규범 중 어느 쪽이 우리말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가를 논리적으로

로 살피고 그러한 논리적 틀을 적용하여 규범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V. 신중진 외(2015-2019)와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

국립국어원에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을 수행한 지 현재 5년차에 접어들었다.³⁴⁾ 초창기에는 3년 과제로 계획되었으나, 어느새 5년차까지 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이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처럼 비교적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누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더 나은 연구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진 외(2015-2018)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되짚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른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글은 신중진 외(2015-2018)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다시 살피고, 다른 연구자들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한 자리에 모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 일이다.

1. 신중진 외(2015-2019)의 연구 성과와 한계

1.1. 연구 성과

1.1.1. 전문용어 통합안 마련

이 절에서는 신중진 외(2015-2019)에서 수집한 전문용어의 수량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요청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의 수량을 확인한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국립국어원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 과제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제시되었다.

34) 국립국어원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은 신중진 외(2015, 2016, 2017, 2018)을 지칭한다. 기술의 편의상 신중진 외(2015, 2016, 2017, 2018)을 신중진 외(2015-2018)로 통칭한다. 2019년에는 음악, 미술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4> 연도별 과제 현황

연도	과제명	분야	목표 수량
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수학, 자연과학	1,500개
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수학, 자연과학	2,000개
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어	2,000개
2018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역사	2,000개
2019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음악, 미술	1,500개
총 계			8,500개

이 과제는 신중진 교수 연구 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립국어원의 요구 사항 이상을 충족하였다. 골자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5> 연도별 전문용어 수집 수량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남측 수집 용어 ³⁵⁾	1,900	3,500	4,536	2,614	3,766	16,300
북측 대응 용어	1,487	2,360	2,200	2,049	1,600	9,696
통합 용어	1,487	2,360	2,200	2,049	1,600	9,696

위의 표와 같이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약 1만여 개의 대응 용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중진 외(2015-2019)는 크게 두 가지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중등 교과서에서 직접 추출한 용어라는 점이다.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대부분 중등 교과서에 근거하여 용어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교실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의성을 확보하고 있다.³⁶⁾ 이는

35)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남측 전문용어를 먼저 수집한 후 북측 대응 용어를 찾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때 남측 전문용어를 1.5배수-2배수가량 먼저 수집하여 북측 대응 용어를 찾았다.

남측 전문용어 수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북측 전문용어 수집 또한 북측의 교과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측 자료에서 수집한 전문용어 또한 북측 교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자료에서 수집한 전문용어는 고빈도의 전문용어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빈도의 전문용어는 남북통일 이후에도 널리 쓰일 가능성이 높다.³⁷⁾ 또한 이러한 전문용어는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될 여지도 있다.³⁸⁾ 따라서 이러한 전문용어의 수집과 정비, 통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신중진 외(2015-2019)의 연구 성과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는 남측과 북측의 국정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문용어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측과 북측의 국정 자료로는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그리고 북측의 《광명백과사전》, 《조선말대사전》을 들 수 있는바,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이들의 뜻풀이까지 살펴가며 용어 수집 및 통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용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절에서 논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가. 약 1만여 개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구축

나. 교과서 중심으로 실제 사용하는 전문용어 수집

다. 국정 사전을 바탕으로 한 전문용어의 신뢰도 확보

1.1.2. 언어학적 분석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구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남겼지만, 이와 함께 수집한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학적 분석은 앞으로 전문용어 분석에 기초가 될 작업이라고 판단

36) 교육과정 편수 자료를 사용한다면 보다 연구가 쉽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나, 신중진 외(2015-2018)에서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과정 편수 자료에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도 다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신중진 외(2015-2018)에서는 교과서 중심 수집 원칙을 천명하고, 편수 자료 및 남북의 국정 사전은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37) 2015년도 과제에서는 이러한 고빈도 전문용어를 기초 전문용어로 명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진·이성우(2016)을 참고할 수 있다.

38) 이는 기초 전문용어의 성격과 관련된다. 관련 논의는 신중진·이성우(2016)을 참고할 수 있다.

된다. 신중진 외(2015-2019)에서 수행한 언어학적 분석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다. 어종 분석과 조어 분석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먼저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2015년도부터 꾸준히 어종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문용어 통합 기준 수립에 기초를 쌓기 위한 것으로 학술적인 가치까지 확보하고 있다. 신중진 외(2015)부터 시작하여,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어종 분석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어종 분석을 통해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북측 전문용어의 선입견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이다. 그간 북측 전문용어는 고유어로 순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북측 전문용어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종 분포는 남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포착할 수 있었다. 물론 몇몇 분야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체육 교과).³⁹⁾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남측과 북측이 유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는 각 교과별로 전문용어의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영역은 체육 교과이다. 이 교과에서는 남측과 북측의 어종이 가장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⁴⁰⁾ 이는 북측의 체육 전문용어는 대부분 순화되었으나, 남측의 체육 전문용어는 외래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신중진 외(2016)에서는 체육 교과 전문용어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어종 분석이 전문용어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어종 분석 결과는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령령·신중진(2019: 23-24)에서는 신중진 외(2018)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용어인 ‘토기-그릇’ 중 토기를 우세한 전문용어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어종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신중진 외(2015-2018)의 어종 분석 결과는 통합 기준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신중진 외(2016-2019)에서는 조어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어 분석은 전문용어 형성의 기초가 되는 단위인 조어 단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조어 분석은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신중진 외(2015-2019)에서 실시한 조어 분석의 의의를 크게 두 가지

39) 신중진 외(2016)에서는 남측의 체육 교과 전문용어는 80% 이상이 외래어이나, 북측의 체육 교과 전문용어는 20% 정도만 외래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40) 북측의 체육 전문용어는 대부분 순화되었으나, 남측의 체육 전문용어는 외래어를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차이가 나타났다.

만 제시한다.

첫째는 조어 분석을 통해 핵심 조어 단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엄태경(2015)에서 구체화되었다. 엄태경(2015)에서는 신중진 외(2015)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수학 및 과학 교과의 핵심 조어 단위를 포착하였다. 그리고 이들 핵심 조어 단위만 잘 통합해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이 비교적 수월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엄태경(2015)의 논의 이후 신중진 외(2016-2019)부터는 수집한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중진 외(2016-2019)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 평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조어 분석의 학술적인 가치이다. 전문용어는 조어 단위들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어 단위를 파악하는 것이 조어 분석이다. 따라서 조어 분석을 시도하면, 전문용어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어 분석은 전문용어 연구의 근간이 된다. 더불어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물론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 형성 과정을 검토하는 것에도 유용하다.

이처럼 신중진 외(2015-2019)에서 시도한 언어학적 분석은 남북 전문용어 통합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도 지닌다. 따라서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문용어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1.3. 통합 기준 구축

신중진 외(2015-2019)의 가장 큰 의의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있다. 약 1만여 개의 어휘를 수집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남북 전문용어 연구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성과이다. 뒤에서 밝히겠지만, 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남북 전문용어의 비교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중진 외(2015-2019)의 연구 결과는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의 근간에는 통합 기준이 자리한다. 신중진 외(2015)에서는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ISO 704를 비롯하여 선행 연구에서 지적인 전문용어의 특성을 한 자리에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총 9가지의 전문용어 통합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문법성 - 윤리·미학적성 - 투명성 - 친숙성 - 일의성 - 경제성 - 고유성 - 일관성 - 체계성

또한 이들 기준을 입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문법성과 윤리·미학성을 필터 기준으로, 체계성을 종합적 검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 체계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 기준 구축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위의 통합 기준이 어떠한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필터 기준 및 체계성(조정)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기준은 전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어떠한 분야의 전문용어도 위의 기준에 의해 유연하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신중진 외(2015-2019)에서 검증 작업을 거친 바 있으며, 예체능 교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는 통합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인 ISO 704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신중진 외(2015-2019)에서 마련한 통합 기준이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을 시도했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전문용어 통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용어 통합안이 전문용어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¹⁾

이처럼 신중진 외(2015-2019)의 통합 기준 마련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향후 이어질 남북 전문용어 통합 과정의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 하여 살펴본다.

1.2. 한계 및 전망

1.2.1. 통합 기준의 정착과 활용

앞 절에서 밝혔듯이, 신중진(2015-2019)의 가장 큰 성과는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전문용어 통합의 하나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는 기준 정착 과정에서의 혼선이다. 현재의 기준은 신중진 외(2018)에서 설립된 것이다. 신중진 외(2018)의 기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체계성의 도입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인 신중진 외(2015-2017)은 체계성의 기준을 확인해

41) ISO 704는 전문용어 표준화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지 못한 상황이다. 즉, 이들 전문용어 통합안에 대해 체계성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추후 수정 보완 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필터 기준인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 또한 신중진 외(2016)에서 적용된 사항이다. 이는 곧 신중진 외(2015)에서는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중진 외(2015)를 대상으로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의 기준이 다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는 기준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위계 기준으로 설정한 ‘투명성 - 친숙성 - 일의성 - 경제성 - 고유성 - 일관성’이 전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우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즉, 각 학계에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진행할 경우, 각 기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쉬운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문용어 통합 작업에 전문용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전문용어 전문가는 통합 기준의 조정 및 통합 기준의 적용 과정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용어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문용어 감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신중진 외(2015-2019)에서 확립한 통합 기준은 의의가 상당하나,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보완, 그리고 각 학계의 도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어원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1.2.2. 새터민 참여

신중진 외(2015-2019)의 또 다른 한계점은 새터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신중진 외(2016)에서 새터민을 제외하여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적지 않은 약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의 판단으로는 몇몇 용어를 대상으로 소수의 새터민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의 설문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치밀한 설문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한 전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다.

첫째는 설문조사 과정의 정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또한 전문적인 이론이 배경에 자리한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설문조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통계적인 처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계 전문가도 함께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립국어원의 연간 연구 과제 목록으로 따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중진 외(2015-2019)의 후속 과제 형식으로 언급되지 않고, 다른 과제의 형식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새터민 인력풀의 마련이다. 신중진 외(2016)에서도 새터민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인원을 모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인력풀이 마련되어 연구자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력풀 확보는 정확한 설문조사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정한 규모의 표본을 확보한다면, 설문조사의 통계 처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통계 처리 결과는 통합한 전문용어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튼튼한 기반을 요구한다. 이는 곧 설문조사가 단일한 연구 과제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1.2.3. 다른 중등 교과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안 마련

신중진 외(2015-2018)에서는 ‘수학’, ‘자연과학’, ‘체육’, ‘국어’,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를 구축해 왔다. 더불어 올해는 ‘음악’ 및 ‘미술’ 분야의 전문용어가 구축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 다뤄지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예체능 교과가 적절한 비중으로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연구되지 못한 분야도 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엄연히 다뤄지고 있으나,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도 있다.

신중진 외(2015-2016)에서는 수학 및 자연과학의 남북 전문용어 대응 목록 3,700여 개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전 분야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된 분야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천문학/지구과학’ 분야이다. ‘천문학/지구과학’은 자연과학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 구축 및 통합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과학의 전문용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의 사회 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용어들을 들 수 있겠다. 해당 교과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지리’, ‘경제’, ‘법과 사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용어는 경제학, 철학, 법학, 경영학 등과 관련된다. 이들 용어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⁴²⁾ 하지만 국어 및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를 통합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은 주요 교과와 전문용어 통합에만 매달린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 중에서 고려해볼 만한 대상은 중학교 교과인 ‘기술/가정’ 그리고 ‘직업 탐구 영역’의 교과들이다.⁴³⁾ 이들 교과는 모두 이데올로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전문용어 통합 과제에서 고려할 만한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심화 전문용어에 대한 재고려도 요구된다. 신중진 외(2016) 이후 심화 전문용어에 대한 고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판단으로는 신중진 외(2017) 이후 진행된 교과 영역 중에서 심화 전문용어를 수집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한 교과 중 심화 전문용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2.4. 남북 전문용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편찬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약 1만 여개의 남북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업적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수집한 자료 내부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남측이나 북측의 사정이 변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수집하고 통합한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관리 및 업데이트이다.

물론 전문용어에 대한 관리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는 전문용어 관리 및 감수를 위한 ‘전문용어 전문가 위원회(가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용어 전문가 위원회(가칭)’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용어 전문가, 언어학 전문가를 아우르는 규모로 꾸려져야 한다. 둘째는 ‘전문용어 전문가 위원회(가칭)’가 따를 수 있는 전문용어 관리 및 업데이트 지침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자료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남북 전문용어의 체계적인 관리는 궁극적으로 남북 전문용어 사전

42) 다만 모든 사회 탐구 교과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리 분야의 전문용어는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43) 직업 탐구 영역의 교과로는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산업 기초’, ‘인간발달’, ‘생활서비스산업’의 이해가 있다.

으로 이어져야 한다. 편찬될 남북 전문용어 사전에는 남북 전문용어의 비교뿐만 아니라, 각각의 뜻풀이, 사용례,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전문용어의 원어 등이 포함된 구성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은 《겨레말큰사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전이므로, 그 의미도 상당하다. 물론 이는 종이 사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웹사전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 총망라

2.1. 단행본

이 절은 그간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가 단행본이나 연구보고서로 생산된 것을 정리한다.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과 달리 단행본이나 연구보고서는 분량의 제한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하므로 연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그 분량과 깊이가 상당하다. 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6> 단행본 목록

번호	저자(연도)	제목	출판사 (발행)	수집 여부 ⁴⁴⁾	소장처
1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2004)	남북과학기술용어집 [전자자료] ⁴⁵⁾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 합회	x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2	한국법무부 통일법무과(20 17)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	양평군 생각잡표	o	-
3	한국 산업자원부 (2007)	남북 산업 표준 용어 비교	산업자원부	o	-
4	최기호 외 (2007)	남북 체육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o	-
5	겨레말큰사전 (2017)	남북 생활 용어 1	한국문화사	o	-
6	겨레말큰사전 (2017)	남북 생활 용어 2	맵씨터	o	-

7	조명철 외 (2008)	남북한 무역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x	국립중앙도 서관
8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2007년 남북학술 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 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o	-
9	한만길 외 (1997)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분석	한국교육개 발원	x	국립중앙도 서관
10	이창건 외 (1998)	남북 원자력 용어 비교	한국원자력 협회	o	-
11	이상수 외 (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 사회	한국학중앙 연구원	o	-
12	최용기 외 (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 인문	한국학중앙 연구원	o	-
13	한국정보화진 흥원 (2012)	남북한 IT 용어 사전	한국정보화 진흥원	x	국립중앙도 서관
14	김호용 외 (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 비교 연구조사	과학기술부	o	-
15	부경생 외 (2013)	남북한 농업용어 비교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o	-
16	대한의사협회 (1996)	남북한 의학용어	아카데미아	o	-
17	국사편찬위원 회 (2002)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 조사	국사편찬위 원회	o	-
18	한국교열기자 협회(2002)	남북 마스크용 용어 사전	한국교열기 자협회	o	-
19	한국정보문화 진흥원(2005)	(남북공통) 정보화 교육 용어 사전	한국정보문 화진흥원	x	강릉원주대 중앙도서관
20	이상준 외 (2007)	남북 학술 전문용어 비교 사전: 예비 작업	통일문제연 구협의회	o	-
21	김희철 (2018)	남북 경제 금융 상식 용어 해설	수류책방	o	-
22	김승철 (2005)	남북한 IT 용어 비교	통일부 통일교육원	x	국립중앙도 서관
23	유호열 외 (2013)	남북 수자원 비교 용어집	대전: K.water	x	국립중앙도 서관
24	정종남 (2001)	남한 주민이 알아야 할 북한 어휘 2000개 1.	종로서적	x	국립중앙도 서관
25	정종남	남한 주민이 알아야 할	종로서적	x	국립중앙도

	(2001)	북한 어휘 2000개 2.			서관
26	전수태 외 (2002)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x	국립중앙도 서관
27	전수태 외 (2002)	북한 신문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x	국립중앙도 서관
28	국립수산과학 원 (2018)	남북한 수산 전문용어 비교집	국립수산과 학원	o	-
29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1	국립국어원	o	-
30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2	국립국어원	o	-
31	국토교통부(20 15)	북한건설용어집	국토교통부	o	-
32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15)	2015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x	KISTI
33	도로교통공단 (2018)	남북한 도로교통용어 비교	도로교통공 단	o	-
3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2018)	남북 철도용어 비교사전	한국철도기 술연구원	o	-
35	대한간호협회 (2018)	남북한 간호학 용어집	대한간호협 회	o	-
36	한국관광공사 (1996)	북한 관광 용어집	한국관광공 사	o	-

본 연구에서 확보한 남북 전문용어 비교 관련 단행본은 총 36권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과학기술, 방송, 산업 분야의 전문용어가 정리되었다. 이 외에 교육 분야 및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와 같이 민감한 분야의 전문용어 비교 작업도 이루어져 있었다.⁴⁶⁾⁴⁷⁾ 그뿐만 아니라 실생활 용어에 대한 정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위의 표에서 제시된 자료의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44) 직접 실물을 확인하였으나, 자료의 직접적인 확보(제본 및 구매)가 어려운 경우만 ‘x’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x’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소장처를 따로 언급하였다.

45) 전자 자료집의 경우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검색되었으나, 출판물의 경우 여러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6) 국사편찬위원회(2002)는 신중진 외(2018)에서도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47) 최기호 외(2007)은 신중진 외(2016)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57> 연구별 성과

번호	저자(연도)	제목	연구 성과
1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2004)	남북과학기술용어집 [전자자료] ⁴⁸⁾	과학기술 전 분야 남북 전문용어 22만개 비교 분석
2	한국법무부 통일법무과(201 7)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	남북 법률 용어 157개 비교 분석
3	한국 산업자원부 (2007)	남북 산업 표준 용어 비교	13개 산업 분야 용어 비교 ⁴⁹⁾ 북측: 13,428개, 남측: 5,072개
4	최기호 외 (2007)	남북 체육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체육 용어 1,700여개 비교 분석
5	겨레말큰사전 (2017)	남북 생활 용어 1	남북 생활분야 250항목 용어 비교 분석
6	겨레말큰사전 (2017)	남북 생활 용어 2	남북 생활분야 250항목 용어 비교 분석
7	조명철 외 (2008)	남북한 무역 용어 비교 연구	남북한 무역 용어 1,000여개 비교 분석
8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2007년 남북학술 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 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여성 전문용어 95개 비교 분석
9	한만길 외 (1997)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분석	남북한 교육 용어 500여개 비교 분석
10	이창건 외 (1998)	남북 원자력 용어 비교	원자력 분야 남북 공통 용어 2,211개 비교 분석
11	이상수 외 (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 사회	남북 사회 분야 용어 900개 비교 분석
12	최용기 외 (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 인문	남북 인문 분야 용어 900개 비교 분석
13	한국정보화진 흥원 (2012)	남북한 IT 용어 사전	남북한 IT 관련 용어 1,000개 비교 분석
14	김호용 외 (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 비교 연구조사	남북한 전력 분야 용어 1,000개 비교 분석
15	부경생 외 (2013)	남북한 농업용어 비교집	남북 농업 분야 전문용어 3,000여 개 비교 분석

16	대한의사협회 (1996)	남북한 의학용어	남북 의학 분야 전문용어 35,000여 개 비교 분석
17	국사편찬위원회 (2002)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 조사	남북한 역사 용어 5,058개 비교 분석
18	한국교열기자 협회(2002)	남북 마스크 용어 사전	남북 마스크 관련 용어 4,500개 비교 분석
19	한국정보문화 진흥원(2005)	(남북공통) 정보화 교육 용어 사전	남북 정보화 용어 2,491개 비교 분석
20	이상준 외 (2007)	남북 학술 전문용어 비교 사전: 예비 작업	주요 분야 남북 전문용어 700여 개 비교 분석
21	김희철 (2018)	남북 경제 금융 상식 용어 해설	남북 경제 금융 전문용어 163개 비교 분석
22	김승철 (2005)	남북한 IT 용어 비교	남북 IT 분야 전문용어 1,000여개 비교 분석
23	유호열 외 (2013)	남북 수자원 비교 용어집	남북 수자원 용어 1,200여개 비교 분석
24	정종남 (2001)	남한 주민이 알아야 할 북한 어휘 2000개 1.	남북 신문, TV, 실생활용어 2,000개 비교 분석
25	정종남 (2001)	남한 주민이 알아야 할 북한 어휘 2000개 2.	남북 신문, TV, 실생활용어 2,000개 비교 분석
26	전수태 외 (2002)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남북 방송 용어 1,610개 비교 분석
27	전수태 외 (2002)	북한 신문용어 조사 연구	남북 신문용어 990여개 비교 분석
28	국립수산물과학원 (2018)	남북한 수산 전문용어 비교집	남북 수산업 관련 용어 1,043개 비교 분석
29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1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12,600여개 비교 분석
30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2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8,600여개 비교 분석
31	국토교통부(2015)	북한건설용어집	남북 건설 용어 5,364개 비교 분석
32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15)	2015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남북 ICT 전문용어 7,181개 비교 분석
33	도로교통공단 (2018)	남북한 도로교통용어 비교	남북 도로교통용어 139개 비교 분석
3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2018)	남북 철도용어 비교사전	남북 철도용어 1,680개 비교 분석
35	대한간호협회	남북한 간호학 용어집	남한 간호학 용어 중 필수 용어에

	(2018)		대한 북한 대비 분석
36	한국관광공사 (1996)	북한 관광 용어집	3천 여개 북한 용어 분석 남북 관광 용어 대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한 수량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이 이루어졌다. 위에서 제시된 숫자를 모두 더하면 약 25만여 개에 해당한다. 물론 이 중에는 신중진 외(2015-2018)에서도 다루어진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아직 통합할 전문용어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의 성과를 학문 분류에 따라 나누어 보면,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⁵⁰⁾ 그것은 바로 심리학 분야와 뇌과학 분야이다. 다른 분야는 남북과학기술용어집,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과 같은 대단위 업적들에서 조금씩은 다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여러 분야를 아우르다 보니, 용어 수집의 깊이는 다소 부족하다. 더불어 분야별 편차도 극심하다. 즉,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 쪽 연구는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용어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따라서 지금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려면,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 특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수집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중등 교과 차원의 전문용어와 고등 교과 차원의 전문용어 수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에는 북측의 전문용어와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용어 수집 및 비교 지침이 구축되어야 한다. 각 학계별로 가치 있는 업적을 내고 있으나, 연구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신뢰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용어 수집 및 비교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셋째,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신중진 외(2017-2018)에서도 진행된 바 있으므로,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다.

이와 같은 세 과제는 단 기간에 진행될 수 없다. 긴 안목과 끈기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

48) 전자 자료집의 경우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검색되었으나, 출판물의 경우 여러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9) 13개 산업 분야로는 원유제품, 방직 및 가죽재료와 그 제품, 금속 및 금속제품, 동력 및 전기설비, 광업, 유용광물, 전자 통신 및 정보기술, 일반과학기술, 문화용품 및 관리, 운수수단 및 용기,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건설 및 건재, 측정계기 및 기구, 요업재료 및 제품이 해당한다.

50) 학문 분류에 따라 나눈 결과물은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

2.2. 학위 논문

그간의 남북 교과용 전문용어는 몇몇 학위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용어의 성격상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⁵¹⁾

<표 58> 학위 논문 목록

번호	저자 (연도)	제목	학교(구분)	수집 여부
1	김창숙 (2005)	남북한 생물학 용어 통일을 위한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2	허진영 (2000)	남북한 치의학 용어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
3	이영신 (2012)	우리나라와 북한의 생물 교과서 용어 비교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4	임세현 (2005)	남북한 중등학교 수학 용어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5	이경미 (2002)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
6	최인선 (2002)	남북한 학교 수학용어 비교 분석 연구 및 통일 후 수학용어 선정에 대한 방향 모색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7	김연정 (2001)	남북한 중등 과학 교육 비교 및 통합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
8	전미선 (2019)	남북표준 비교 분석에 따른 표준 통합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	○
9	최근수 (2003)	남북한 지질학 용어의 비교 분석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10	장해광 (2004)	남북한 중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11	이호성 (2005)	남북한 화학과 교과서 비교 분석 및 북한 화학 용어에 대한 이해도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12	이치연 (2018)	북한 치의학 연구 현황 분석 및 용어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	○
13	이정복	남북한 초중등 수학교과서에 나타난	인하대학교	x

51) 논문은 리스(www.riss.kr)을 통해 수집되었다. 검색어로는 ‘남북 용어’를 입력하였다. 검색 결과 중 일정 수량 이상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논문만 수집하였다.

	(1996)	수학 용어에 대한 연구	교육대학원(석사)	
14	손범규 (2002)	남북한 방송언어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석사)	o
15	천현후 (2009)	남북한 중등학교 한국지리 용어 차이와 통합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o
16	이광주 (1994)	남북한 국민(인민)학교 산수 교과서 용어에 관한 비교 분석	송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석사)	x
17	김사랑 (2017)	남북한 영문법 용어 비교분석	국제영어대학원대 학교(석사)	x
18	김효정 (200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중등 수학교과서의 비교	창원대학교 대학원(석사)	o
19	윤여진 (2018)	남북한의 중학교 미술교과서 용어 조어 분석 비교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o
20	조섭기 (2007)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x
21	곽미란 (2006)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x
22	금명근 (2000)	중등분야의 남북한 수학교과서 비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x
23	이환섭 (2013)	남북한 도로선형설계 기준 및 표준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석사)	o
24	변준희 (2010)	남북한 상징어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o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북한 용어 대조 연구는 주로 특수 대학원의 석사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⁵²⁾ 그중에서도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교과별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가 대상이 되었다. 또한 남북의 치의학 용어를 비교 분석한 박사 학위 논문도 1편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59> 학위 논문의 연구 성과

번 호	저자(연도)	연구 성과
1	김창숙(2005)	약 210개의 남북 생물 전문용어 통합 방안 제시 남북한 전문용어 통합 모형 제시
2	허진영(2000)	약 2,000여개의 남북 치의학 전문용어 비교집 제시

52) 수집하지 못한 논문은 저자가 리스(www.riss.kr)에서 열람을 거부한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까지는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3	이영신(2012)	약 230개의 남북 생물 전문용어 통합 방안 제시
4	임세현(2005)	남북한 수학 교육과정 비교 및 분석 남북한 수학 교과서 비교 및 용어 12개 비교 분석
5	이경미(2002)	한의학 전문용어 258개의 비교 및 분석
6	최인선(2002)	남북 수학교과 전문용어 40개 비교 분석 남북한의 수학과 학생 및 교사를 중심으로 용어 선호도 조사 ⁵³⁾
7	김연정(2001)	남북 과학교과 전문용어 158개 비교집 구축 남북 과학 교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8	전미선(2019)	남북 건설분야 전문용어 86개의 비교집 구축 남북 건설분야 표준화 방안 연구
9	최근수(2003)	남북 지질학 분야 전문용어 1,272개 비교집 구축 ⁵⁴⁾
10	장해광(2004)	남북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남북 수학 전문용어 112개 비교집 구축
11	이호성(2005)	북측 화학 용어 40개에 대한 남측 학생들의 이해도 조사
12	이치연(2018)	북한 치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 정리
13	손범규(2002)	남북한 방송언어의 통사·의미·화용론적인 분석 남북한 방송용어 61개 정리
14	천현후(2009)	남측 지리 전문용어 423개, 북측 지리 전문용어 344개 수집 북측 지리 전문용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15	김효정(2006)	남북 수학 전문용어 269개 비교집 구축 수학 전문용어 검색 사전 모델 마련
16	윤여진(2018)	남북 미술교과 전문용어의 329개 조어 분석 신중진 외(2015-2018)에 따라 AA, Aa, AB형으로 구분
17	이환섭(2013)	남북 도로교통 용어 50개 수집 및 비교집 구축
18	변준희(2010)	남북의 상징어 1,255개 수집 및 비교집 구축 ⁵⁵⁾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학위 논문에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이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신중진

53) 신중진 외(2016)에서도 수행된 바 있다. 탈북민 섭의 및 설문조사 실시가 어려워져 잠정 중단되었으나, 최인선(2002)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4) 신중진 외(2015-2016)에서 다루지 못한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전문용어이다.

55) 연구 대상이 전문용어로 보기는 어려우나, 남북 어휘 비교 연구에 대항한다고 판단하여 선행 연구 목록에 포함시켰다.

외(2015-2018)의 연구 성과와 겹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다. 허진영(2000), 이경미(2002), 전미선(2019), 최근수(2003), 천현후(2009), 변준희(20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논의는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허진영(2000), 이경미(2002)는 고등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용어의 비교이고, 전미선(2019), 최근수(2003), 천현후(2009), 변준희(2010)은 중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용어의 비교이다. 신중진·이성우(2016)와 이성우·신중진(2016)의 기준을 따르면, 허진영(2000), 이경미(2002)는 심화 전문용어에 해당하며, 전미선(2019), 최근수(2003), 천현후(2009), 변준희(2010)은 기초 전문용어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연구의 범위는 한정적이다. 이들의 연구 범위는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보건의료’, ‘건설/교통’, ‘문화/예술/체육’, ‘지역/지리/관광’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이들 분야는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비교적 적은 분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등 교과와의 교점이 없는 영역은 비교적 연구가 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원자력’과 같은 분야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들 논문이 특수 대학원의 석사 논문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다룬 분야는 향후 이루어질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과 영역이다. 이들의 연구는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의학’ 및 ‘한의학’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의학 전문용어 사전》과 궤를 같이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금의 연구가 중등 교육 과정의 전문용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 교육 과정의 전문용어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3. 향후 연구 방향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남북 전문용어 연구는 각 전문 분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각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용어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또한 개인이 조사한 연구 성과도 상당하였다. 그 결과 상당한 수량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기초 자료에 대한 검증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북측 전문가를 검토 위원으로 초빙하여, 해당 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

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점검 단계이다. 전문용어의 경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점검 과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사소한 오류 및 잘못 대응된 용어 또한 걸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수집되지 않은 전문 분야의 전문용어를 총망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했듯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용어가 주로 수집되었고,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용어는 미진하다. 더불어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수집되지 않은 전문용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전문용어를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국가 기관의 전폭적인 지지가 요구되는 일로 생각된다.

셋째는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용어를 합치고, 그동안 수집되지 않은 전문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를 확보한다면, 검증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는 수십만 개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비교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용어 수집만 완벽하다면 용어 통합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신중진 외(2015-2018)에서 마련한 통합 기준을 적용한다면, 용어의 통합은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는 남북 전문용어 사전의 편찬이다. 즉, 수집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 집과 통합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남북 전문용어 사전의 편찬이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궁극적인 도달점인 것이다. 수집된 전문용어를 아우른다면 그 분량이 대단한 전문용어 사전이 편찬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러한 사전은 《겨레말큰사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전이 될 것이므로, 그 의미도 상당할 것이다. 물론 이는 종이 사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웹사전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남북 전문용어 관리 체계의 구축이다.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 구축 및 사전 편찬으로 남북 전문용어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확보된 전문용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리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리는 국어학 및 사전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여 전문용어 관리단을 꾸리는 것 또한 전문용어 구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일을 수행하려면 국가 기관의 전폭적인 지지와 긴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 긴 호흡으로 남북 전문용어 사업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VI.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전문용어 연구의 방향

1. 연구의 성과

본 연구는 남과 북의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를 추출하고 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행한 내용과 그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발주처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추출, 대조 및 통합 방안 제시
 - 나.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 다.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통합 전략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 라.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

(1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음악 및 미술 교과를 비교한 후, 범위에 맞는 음악 및 미술 용어를 추출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나)의 목표는 남북의 전문용어를 유형별로 나누고, 통합 알고리즘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여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다)의 자문회의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한다.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은 연구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헬으로써 전문용어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한다. (1라)는 본 연구의 결과물을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함으로써 그간의 연구 현황을 알리고,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본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제안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0> 2019년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성과

	연구 성과
(1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미술 분야의 교과 과정 비교 ·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추출 및 목록화 ·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및 통합 제안

(1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사업들의 지침과 연계성 마련 · 음악, 미술 분야의 특징을 고려한 통합 알고리즘 설정 ·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1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 개최 · 연구진의 연구 내용 발표와 토론을 위한 워크숍 개최
(1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정리 ·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

본 연구진에서는 (1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우선 (1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악 및 미술의 중등 교과 과정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유사한 교과 과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북측의 음악 및 미술 교과서에서는 가사라든가 미술 작품 등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전문용어를 비교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남과 북의 음악, 미술 분야 교과서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1,600쌍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용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해 남북의 용어를 대조하고 통합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1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 사업들에 적용되었던 통합 알고리즘을 분석하였고, 음악, 미술 분야에 맞는 통합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이전 사업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관성 기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년도에 조정 단계를 추가하고 여기에 '체계성' 기준을 더하였다. 올해 역시 이를 바탕으로 두고, 각 기준을 적용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1다)의 목표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는 자문회의와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남북 분야',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본 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8월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를 논문 형식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1라)의 내용은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함으로써 달성되었다. 이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의 상황이 완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남북 전문 용어의 통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과정은 향후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방향

이 장은 향후 진행할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의 방향은 본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꾸렸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첫째는 기존 연구 결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둘째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2.1. 기존의 연구 결과 활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남북의 교과 전문용어를 정리하였다. 유형별 구체적인 수량은 다음과 같다.

<표 61> 2015-2019 교과별 남북 전문용어 수집 현황

연도	2015	2015	2016	2016	2016	2017	2018	2019	2019	
분야 유형	수학	자연 과학	수학	자연 과학	체육	국어	역사	미술	음악	합계
AA	163	750	219	333	209	1,279	1,502	312	802	5,569
Aa	43	136	84	71	29	120	184	33	122	822
AB	146	249	265	215	935	801	363	131	200	3,305
합계	352	1,135	568	619	1,173	2,200	2,049	476	1,124	9,696

5년의 기간 동안 만여 개의 남북 전문용어 대응 쌍을 수집하여 목록화하였다. 이 전문용어 쌍은 남북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수집하고 검토한 자료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진에서는 이미 구축된 목록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우리말샘》 또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 활용한다. 둘째, 이미 각 출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 교과서 제작에 참고 자료로써 활용한다.

《우리말샘》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으로 이미 일반에게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새로 나타난 말 그리고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 등을 국민과 함께 모으고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이다.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은 모두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사전인데,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을 쉽게 이용하는 데에는 《우리말샘》이 더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말샘》에서는 67개 분야, 27,000여 개의 북한 전문용어가 서비스되고 있다. 이 북한어 자료들을 출처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표준국어대사전》의 데이터가 기본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이 편찬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 사전이 그 이전 수집된 어휘 자료들을 싣고 있다고 가정할 때, 본 연구의 최신 결과물들을 새 사전인 《우리말샘》에서 표제어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 교과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최근 남북의 관계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각계각층에서 통일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통일 교과서 제작이다.



[그림 39] ‘미래엔’의 통일 교과서

위의 그림은 ‘미래엔’ 출판사에서 제작한 통일 교과서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분야의 교과서를 무료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본 연구 팀의 결과물들은 중등 교육 과정의 남북 교과서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그래서 남북의 교육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문용어를 충실히 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앞으로 제작될 통일 교과서에 편수 자료내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2.2. 연구의 방향

이 절에서는 향후 남북 전문용어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 내용과 연구진의 설정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남북 교과 전문용어의 지속적 구축

2015년부터 진행된 본 연구는 ‘문법, 문학, 역사’ 등의 인문 계열 교과와 ‘수학, 과학’ 등의 자연 계열 교과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모두 구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 경제, 지리, 도덕’ 등의 사회 계열 교과와 ‘기술, 가정, 컴퓨터’ 등의 실용 교과는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사업의 방향이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통일 교과서 제작 등에 활용된다면 이들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본 연구를 평가한 ‘자문위원 A’는 남북의 전문용어 비교 연구가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하여 끝까지 추진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기초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수집과 구축은 빈 곳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본 연구진도 A 자문위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남은 교과들 역시 전문용어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북의 교과별 전문용어는 북측의 교육과정과 자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현재 통일부 산하의 북한자료센터에서는 최근의 북한 교과서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수집된 자료들과 남측의 교육과정을 같이 고려했을 때, 현재 남아 있는 분야는 ‘조선지리, 기초 기술, 정보 기술’ 등이 있다. 이 교과들은 북측의 교과명들인데, 남측의 ‘지리’, ‘기술·가정’, ‘정보’에 각각 대응한다. 향후 진행될 연구 사업에서는 이들 교과의 남북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꾸준히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2) 남북 전문용어의 개념 조화와 어휘집(어휘 사전) 구축

본 연구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 2명의 자문위원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바로 남북 전문용어의 개념과 관련한 내용이다. 다음의 지적들을 살펴보자.

“남과 북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AA형, Aa형)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라고 한 것 중에는 남북에서의 의미와 용법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은 용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과 전문용어의 경우 남북에서의 ‘토론’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를 AA형에 포함하여 다루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AA형 혹은 Aa형에 속하는 전문용어가 남과 북에서 완전히 동일한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 의료 등과 같이 일반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영역에서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는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문위원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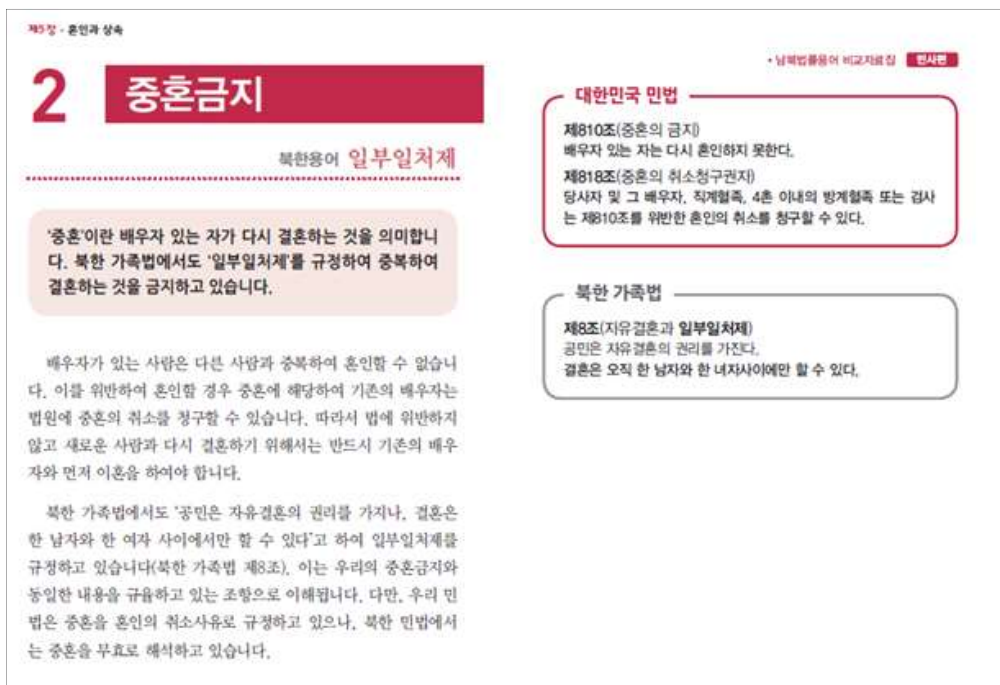
“지금까지 연구 대상인 전문용어는 ‘남측과 북측에서 공통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였습니다. 남측 또는 북측에만 존재하는 개념을 갖는 용어, 남북 간에 개념 차이를 보이는 용어, 남북 간에 개념 체계의 차이를 보이는 용어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자문위원 B -

위의 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일한 개념을 전제하고 이를 표현하는 전문용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진 역시 남북 전문용어의 개념과 의미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8년에 진행한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개념 조화’의 방향과 방법을 개괄적으로나마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엄태경·신중진(2019)에서 조금 더 진전되어 구체화하였다.

남북의 전문용어 연구는 형태적인 연구를 넘어 의미와 개념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진은 그간의 축적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 어휘집(어휘 사전) 편찬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 어휘집은 단순히 남북 전문용어의 대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핵심적 용어와 이들 용어의 개념 및 개념 체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엄태경·신중진(2019)에서 제시한 《ISO 860》의 ‘개념 조화’ 방법론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국제적인 조화 방법론

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론적 배경이 튼튼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방향에서 전문용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실증적인 방법이 더욱 세밀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기존에 연구된 남북 전문용어 사전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엄태경·이성우·신중진(2019)에서는 2015년 이후 정부 부처 관련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2016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에 주목하였다. 이 사전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법률을 이해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민법과 형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른 연구들과 달리 연구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용적인 목적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다음의 그림은 사전의 일부이다.



[그림 40]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민사편)》 중 일부(172-173)

이 사전은 남측의 법률 용어에 대응하는 북측의 법률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개념을 풀어써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히 비교·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차이까지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핵심적인 용어들의 비교를 개념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는 남북 전문용어 어휘집 또는 어휘 사전의 편찬이 필요하다.

본 연구 팀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화하여 다음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한은 4년으로 잡았으며, 향후 교과 추가 및 선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기술·가정 분야 및 정보 분야 전문용어 구축 ▪ 남북 전문용어 어휘 사전 편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지리 분야 전문용어 구축 ▪ 기 연구 결과의 종합적 분석 ▪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사전 시범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분야 남북 전문용어 사전 편찬 ▪ 역사 분야 남북 전문용어 사전 편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남북 전문용어 사전 편찬 ▪ 음악, 미술 분야 남북 전문용어 사전 편찬

[그림 41] 향후 연구 계획 및 방향

1차년도에는 기존 교과 과정에 남아 있는 ‘기술·가정 및 정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를 구축하여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진행하게 될 남북 전문용어 어휘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목표로 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한다.

2차년도에는 ‘지리’ 분야를 끝으로 하여 교과 분야의 전문용어 구축 사업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과별 남북 전문용어 구축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또한 이전 연도에 수립하였던 어휘 사전 편찬 계획에 따라 ‘국어’ 분야의 어휘 사전을 시범적으로 편찬한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진행할 어휘 사전 편찬의 방향을 조정한다.

3차년도에는 이전 사업에서 검토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 분야와 ‘역사’ 분야의 어휘 사전을 편찬한다. 마지막으로 4차년도에서는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와 ‘음악, 미술’ 분야의 어휘 사전을 편찬한다. 본격적인 어휘 사전의 편찬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철저한 계획과 성실한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연구 자료 및 참고 문헌

<연구 대상 자료>

1. 남측

* 연구 자료

교육부(2017), 『편수 자료 II - 인문·사회과학 / 체육·음악·미술 편』, 교육부.
장기범 외(2015), 『중학교 음악 1』, 미래엔.
장기범 외(2015), 『중학교 음악 2』, 미래엔.
장기범 외(2015), 『고등학교 음악』, 미래엔.
연혜경 외(2015), 『중학교 미술 1』, 미래엔.
연혜경 외(2015), 『중학교 미술 2』, 미래엔.
연혜경 외(2015), 『고등학교 미술』, 미래엔.

*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1999/2008),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우리말샘(2016), <https://opendict.korean.go.kr/main>, 국립국어원.

2. 북측

* 연구 자료

권명숙 외(2013), 『고급중학교1 예술』, 교육도서출판사.
권명숙 외(2013), 『고급중학교2 예술』, 교육도서출판사.
권명숙 외(2013), 『고급중학교3 예술』, 교육도서출판사.
권명숙 외(2013), 『예술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최동옥 외(2013), 『초급중학교 1 음악무용』, 교육도서출판사.
최동옥 외(2014), 『초급중학교 2 음악무용』, 교육도서출판사.

최동옥 외(2015), 『초급중학교 3 음악무용』, 교육도서출판사.
 최동옥 외(2013), 『초급중학교 1 음악무용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홍파 외(2013), 『초급중학교 1 미술』, 교육도서출판사.
 홍파 외(2014), 『초급중학교 2 미술』, 교육도서출판사.
 홍파 외(2015), 『초급중학교 3 미술』, 교육도서출판사.
 홍파 외(2014), 『초급중학교 1 미술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홍파 외(2014), 『고급중학교 1 미술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 참고 자료

백과사전출판사(2010),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참고문헌>

강현화(2000ㄱ), 「외래어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국어학적 분석」, 『어문연구』 2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3-55.
 강현화(2000ㄴ),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유형 분석 -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1-28.
 고석주 외(2007), 『전문용어연구 - 정리현황과 과제』, 태학사.
 국립국어연구원(2001),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3),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4),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편(2018),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 논문집』, 국립국어원.
 권재일(2018),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제 15차

-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 11-25.
- 김가영(2019), 『남북한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통일대비 미술교육 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가영·김효정(2019), 「남북한 중학교 미술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통일대비 미술교육 방안 연구」, 『상품학연구』, 제37권 3호, 139-154.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역락.
- 김령령·신중진(2019), 「남북 역사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과 통합 제언」, 『한국언어문화』, 제69집, 1-28.
-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1』, 국립국어원.
- 김민수(2002), 『민족어의 통일문제,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한 것인가, 국학자료원.
-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연아(2019), 『남북한 중학교 미술교육 통합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진·신중진(2019), 「남북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 어종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7집, 13-29.
- 김응모·최호철(1999), 『통일대비 남북한어 이해, 세종문화사.
- 김진아·노용(2012), 「남북한 미술의 특징과 교육과정 비교」, 『미술교육논총』, 제26권 3호, 355-384.
- 김한샘(2008), 「전문용어 정비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93-120.
- 김한샘(2015), 「국어사전에 나타난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제42회 한말연구학회 발표요지』, 한말연구학회, 224-232.
- 김한샘(2016), 「국어사전과 불교 언어 -‘불교’ 영역의 전문용어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5,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5-218.
- 김혜정(2007), 「통일대비 국악교육을 위한 북한민요 연구」, 『한국음악연구』 41, 5-22.
- 박균열·성현영·양희천 (2010),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변천」, 『통일전략』 10(3), 145-180.
- 박선우(2002), 「남북한 맞춤법의 변천과정과 통일방안」,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박재성(2007), 「서양음악용어의 한글표준화를 위한 논의」, 『음악논단』 21, 47-73.
- 법무부(2016),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 법무부.

- 성한별(2019), 『남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승윤희(2017), 「북한의 1학년 ‘음악’ 및 ‘음악무용’ 교과서 내용 비교를 통한 교과서의 변화 양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24호, 873-898.
- 신중진·엄태경(2016), 「심화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그 실제-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165-190.
- 신중진·이성우(2016), 「기초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311-336.
- 신중진 외(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7),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엄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의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7-39.
- 엄태경(2017), 「전문용어 형태 분석의 방법론」, 『2017년도 한국언어문화학회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학회, 92-103.
- 엄태경(2019), 『한국어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엄태경·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 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181-212.
- 엄태경·신중진(2019), 「개념 조화를 통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새로운 모색」, 『한글』 80(3), 한글학회, 533-562.
- 엄태경·이성우·신중진(2019), 「남북 전문용어 사전의 편찬 방향 연구」, 『2019년 한국사전학회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전학회.
- 우리어문학회(2003), 『남북한 어문 규정과 그 통일방안』, 국학자료원.
- 이경언·김진숙·김민하(2018), 「남북한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남한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음악교육공학』, 36, 149-169.
- 이성우·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어문 규범 몇 문제」,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41~71.
- 이수경(200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 미술문화교육 방향 모색」, 『조형교육』 제22집, 181-196.
- 이현주(2013),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 방법론에 대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3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1-370.

- 이현주(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40-67.
- 이현주(2017), 「전문용어 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65-98.
- 이현주·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261-293.
- 이현주·조동성(2011),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245-283.
- 이혜수·현경실(2017), 「북한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및 음악교육 실태조사」, 『음악교육연구』 제46권 제1호, 113-130.
- 임현경(2013), 「유럽의 전문용어학 연구 현황과 한국의 향후 연구과제」,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II』, 한국문화사, 93-122.
- 임현경(2015), 「국내 공공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제언」, 『통역과 번역』 17, 한국통역번역학회, 27-49.
- 장길환(2001), 「남북한 미술용어의 비교 연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2(3), 393-404.
- 장은하(2002), 「남북한 맞춤법의 분화와 통일소리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한 것인가』, 국학자료원.
-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정연진(2013), 「용어학을 위한 ISO 전문용어 표준」, 『통번역학연구』 17-4,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39-155.
- 조남호(2005), 「학술용어집 발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어정책에서 본 전문용어 정비」, 『수의학용어 표준화 2차 공청회 자료집』, 대한수의학회, 17-23.
-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 형태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서상규(2000), 「전문용어와 전문언어 말뭉치」,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201-230.
-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한용운(2015ㄱ),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199-210.
- 한용운(2015ㄴ),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권 2호, 국립국어원, 25-44.

<Abstract>

Establishment of Terminology in the Field of Music and Fine Art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ment of terminology in the field of music and fine art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o prepare the integration methods. This is to overcome the language heterogeneit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he era of reunification and to standardize terms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course of integrated edu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is study is located in continuative researches about establishment of terminology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ince 2015.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d to find new directions for the terminology business that has continued since 2015. Based on these points, follows are setting goals of the study.

- (1) A. By eliminating unnecessary costs occurred due to differences of terms in the course of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is study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at the course of integr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B. Arranging terminology of music and fine art essentially required to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for youth and learners will be prepared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onsistent textbooks in the period of unification.
- C. Applying the procedure and methodology prepared in the previous study to the music and fine art, this study proposes the integration plan about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he fields of music and fine art.
- D.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on the integration of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ince 2015 and prospect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the study on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E. This study looks out future direction of the study on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th putting together the results of other researches on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proposes next tasks.

The term extraction of this study was conduct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and fine art. First of all, the terminology of the subject in South Korea was extracted based on music and fine art textbooks. Then, corresponding terminology was identified based on music and fine art textbooks and dictionary materials from the North Korea. As a result, all 1,600 terminology was extracted, which consisted of 1,124 terminology in the field of music and 476 terminology in the field of fine art. In additions, there were 802 AA type, 122 Aa type and 200 AB type in terms of music field and 312 AA type, 33 Aa type and 131 AB type in terms of fine art fiel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using terminology of the same form than the using terminology of the different form appeared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Next, this study proposed the integration criteria and detailed guidelines of terminology in the field of music and fine art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is study established the integration criteria based on the criteria of preceding studies <2015 Analyzing Basic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2016 Establishment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Establishment Terminology of The Field of Korean Languag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Establishment Terminology of The Field of Histor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set up the rank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terminology integration of the field of music and fine are prepared according to filter criteria as grammar, ethics and aesthetics, and to hierarchical criteria as transparency, familiarity, simple-meaning, economics, uniqueness, consistency, and to adjustment criteria as systematic.

This study attempted linguistic analysis on terminology in the field of music and fine art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cused on word type, word formation,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and so on. The analysis of word type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Chinese

characters appeared in both music and fine art fields. The analysis of word formation showed that the terminology composed of one word formation unit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in the field of music, and the terminology composed of two word formation units was the highest frequently used in the field of fine art. The analysis of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showed that the differences on orthography of loanword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both fields of music and fine art.

The last, this study presented results of consecutive researches on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rom 2015 and next direction of the research. Future directions suggested by our researchers are as follows.

- (2) A. Utilizing the Terminology List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dictionary <*Urimalsam*>
- B. Utilizing to Compilation of Unified Textbooks, Compilation Terminology Vocabulary and Vocabulary Dictionar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C. Establishment Terminology of The Field of Technology·Domesticity and Geograph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D. Blending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Compilation Vocabulary Dictionary

Key words : the field of music, the field of fine art, terminology, integration terminology, filter criteria, rank criteria, adjustment criteria, linguistic analysis, word type, word formation,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research result, next task

<연구진>

연구 책임자	신중진(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선아(한양대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김유진(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엄태경(한양대 미래인문학융합학부 강사)
	이성우(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종기(예원학교 전 교장)
	전은진(한양대 인문과학대학 교수)
연구 보조원	김령령(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보조원	김순옥(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19년 12월 17일

발행일: 2019년 12월 17일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